
이란 여여원장 · 이재성 교사
母子로 道伴으로 여여하게
"불법의 향기"를 세상에
16 · 17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대반열반경〉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느니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7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59호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흔들리는 대학생 포교 선배·사찰 네트워크 '해답'

불자 교수들,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한 목소리

충북 영동대 경찰행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최근 졸업반 선배들로부터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학교 내 동아리 중 불교반에 가입하면 취업이 수월하다는 말이었다. 동아리 가입 후 다가온 첫 수요법회에서 A학생은 학과 교수님과 함께 중견 보안업체 임원들이 법회에 참석한 것을 보고 놀랐다. 법회 후 '선배들이 이 인연으로 채용됐다'는 말에 매주 법회에 빠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최근 취업 등 현실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 내 동아리 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대학내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불교가 가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는 8월 17~18일 서울 진관사에서 2015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수불자대회에서는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주제로 특별회의가 열려 늦은 밤까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각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들은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을 털어놓고 공의를 모아가자고 다짐했다.

'취업'에 불자조직 적극 활용

이번 특별회의는 급감하는 대학생 불자들로 인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 대학생 포교의 대표단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지회는 122개에 불과하다. 대불련에서 집계를 한 2009년 158개 지회에서 6년 만에 36개 지회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채은 대불련 회장은 "지회마다 1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회 수도 줄고 있지만 지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수도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6년간 대불련 36개 지회 사라져
17일 교수불자대회서 특별회의
"이대로는 한국불교 미래 없다"
취업 연계 등 활성화 방안 제시
"불자기업 연결 후 50여 명 몰려"
일선 교수들 "종단도 지원해야"

이에 대해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교불련 명예회장)는 "13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 중 전체 불교동아리 학생은 채 2000여 명이 되지 않는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부적으로 보면 한 두명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사라지는 곳도 늘고 있다. 대학생 포교의 공백이 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회의를 위해 모인 교수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규호 영동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해답을 제시했다. 불자 선후배 네트워킹을 통한 취업 멘토링이 그 것이다.

이 교수는 취업한 불교동아리 선배들을 후배들과 연결시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삼성 산하 보안업체 휴면TSS, 인천공항 보안업체 유밍SS 등 중견업체 취업이 원활하다는 소문에 이 대학 수요법회에는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이 교수의 학과도 불교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받아 일반 경찰행정학과의 30%대 취업률을 훌쩍 뛰어넘은 90%후반대 취업률(전국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당면과제는 취업이기에 취업에 필요한 불자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선후배 유대가 끈끈한 ROTC개념으로 불교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취업한 동아리 선배들이 다시 동아리를 찾아 후배들을 이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대학 간의 구분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권 부산 해양대 교수도 이 같은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부산지역 불교동아리들의 특징은 지도교수, 신도회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부산 지역은 불교동아리 회원이 1990년 1500명에서 2006년 150명으로 급감하자 2012년부터 부산불자교수연합회가 주축이 돼 대학간 연합법회를 열고 있다.

정 교수는 "단순한 법회를 열면 학생들의 참석이 미미하다. 신도회의 기업대표들, 교수들과 법회 후 영화관람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며 "학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제대로 알고 상담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니 점차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법회를 개발하라

일선의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들은 네트워킹에 대한 노력과 함께 법회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법사 파견 등 불교계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희재 경북대 교수는 "대학생들은 예전과 달리 자기개발로 인해 여유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배려해 점심시간 법회를 진행했지만 짧은 시간에 맞춘 법회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다.

이용철 성균관대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동아리 지도교수직이 없는 대학이 많다. 지도법사가 있어야 하기에 대학 인근 지역사찰이 법사를 파견하고 종단에서는 이를 인사고과에도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교수불자연합회와 중앙신도회는 신도조직을 활용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조계종 포교원에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은 8월 20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홍콩세계불교평화발전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텐진 폭발사고 희생자 천도 · 부상자 조속쾌유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텐진 참사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천태종, 20일 관문사서 천도재… 대사관에 3000만원 전달

천태종이 최근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로 숨진 영혼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 쾌유를 발원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 피해 복구 성금 3000만원을 전달하는 보시행을 펼쳐 눈길을 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8월 20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서 홍콩세계불교평화발전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텐진 폭발사고 희생자 천도 · 부상자 조속쾌유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번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일체중생이 하나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며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보듬어주는 마음서 보살심이 싹트며 이 우주 법계가 정토로 변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박양 홍콩세계불교평화발전협회 사무총장 등 1천여 명 참석했으며, 법회 후에는 총무부장 월도 스님 등이 서울 명동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텐진항 폭발사고 피해 복구 성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총장 당연직 이사' 조항 삭제

동국대 이사회 18일 결의… 개방이사 충원 지시 이행

동국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장이 제외됐다. 동국대(이사장 일면)는 8월 1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293회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을 통해 총장의 당연직 이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날 이사회는 교육부에서 지적한 이사회 내 개방이사 4명 충원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동국대 이사회는 정원 13명에 재적 11명으로 이중 개방이사는 안채란, 이연택 이사 등 2명에 불과하다. 조계종단 추천 이사는 9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9월 21일까지 개방이사 2명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승인인 신임이사 지홍, 호성 스님의 이사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남은 이사 정원 2명 중 1자리는 당초 정관상 총장 당연직으로 개방이사는 1명 밖에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를 규정하는 정관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2항 문구를 수정해 '이사는 조계종 재적 승려 9인, 대학의 장, 기여는 이교도가 아닌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한다'에서 '대학의 장'을 삭제했다.

또 정관 제23조(임원의 임기)를 수정해 '총장이 이사가 될 경우 (총장)임기 내로 국한한다'라고 조항을 삽입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9월 21일 이전 이사회를 한차례 더 열고 개방이사 2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동국대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정관을 개정했지만) 총장의 이사 가능성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내에 총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총장후보대상자 검증실무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도 변경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법인이사회 추천 3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인,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2인 등 총 7명으로 영담스님의 이사 해임에 따른 공석에 호성스님이 선임됐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초 · 중 · 고등학교 산하 교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성타, 삼보, 명신, 지홍, 심경, 호성 스님과 안채란, 이연택, 김선근 이사 등 재적이사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치적 징계' 갈등 해소 방안 논의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연석회의서… 과거사 정리 제도 개선

제안된 '염화미소법' 다룰 종회 특별위원회도 구성

19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정치적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스님들에 대한 종단 화합 조치 논의가 조계종 중앙종회 차원으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8월 18일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5차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멸빈자 사면과 과거사 정리,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등 최근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분과원장 스님 등은 의현스님 재심호계원 판결을 계기로 공론화된 사면 및 과거사 정리를 위해 종회 종헌종법특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종헌종법특위는 앞으로 종단 화합을 위한 조치나 사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으며,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며, 이르면 11월 종회에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방안이 성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 스님들은 지난 8월 10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 등이 제안한 '염화미소법(가칭)'에 대해 논의했으며, 9월 8일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종회 종헌종법특위는 오는 9월 1일 오후3시 소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및 과거사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공청회 개최 등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신성민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용서한 사람 없는데 스스로 용서?”

대불청, 8월 15일 日아베정권 강력 규탄

“광복절 하루 전 8월 14일 아베담화가 발표됐지만 그 어디에도 침략행위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아무도 용서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8월 15일 일본대사관 앞서 광복 70주년기념 ‘일본 우경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불청은 일본어로 적힌 ‘아베의 정치를 허용할 수 없다’ 팻말을 들고 일본대사관 앞에 섰다. 일본지식층이 안보법 반대 시위 당시 내건 슬로건에 대한 동조 표시다.

대불청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폭력적 행위”라며 “그럼에도 아베신조 총리와 자민당 정권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자국의 과거를 부정하려는 우경화 정책으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대불청은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아베정부의 사죄와 진상규명 및 법적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대불청은 “24년째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일본대사관 문은 굳게 닫힌 채 피해자들의 통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아베신조 총리 취임 이후 역사인식 관련 발언을 비롯해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위권 행사 인정 등은 한일 간 역사적 상흔과 갈등에 불씨를 지핀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불청은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제9조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함)를 재해석 및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위대를 통상적 국가 군대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연히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불청은 “만해 대선사의 자주독립과 만민평화 정신을 계승해 아베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보상 △야스쿠니신사참배 중단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도 중단 △과거제국주의 침략행위 반성과 왜곡된 역사 교육 중단 등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대한불교청년회는 8월 15일 일본대사관 앞서 광복70주년기념 ‘일본 우경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인 스님, 대흥사 종회의원 사실상 당선

조계종 중앙선관위, 19일 후보자 자격심사

학성 스님, 직능직 후보 사퇴
선일 스님 자격 미비로 탈락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법인 스님(대흥사)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이하 중앙선관위)는 8월 19일 제305차 회의를 열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대흥사 중앙종회의원으로 입후보한 법인 스님과 선운사 중앙종회의원으로 나온 도완 · 법경 · 재안 스님에 대해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이름을 올린 선일 스님은 미등록사설사암 보유, 재산 미등록 등을 이유로 자격 미비를 확정했다.

직능직 교육분야 중앙종회의원 입후보한 학성 스님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8월 18일 오후 사퇴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해 자격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 예정된 직능직 선출위원회 회의는 취소됐으며, 차기 직능직 선거는 내년 2월에 열리게 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 제306차 회의를 열고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 및 봉선사 주지 후보자 자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사병·장교 불자 확대… 군포교 지평 넓혀

반환점 돈 ‘군종교구 3기’ 평가 및 과제

2013년 7월 24일 출범한 조계종 군종교구 3기 활동이 반환점을 돌았다. 2년여의 성과를 토대로 군종교구는 군장병 배가 운동 등 후반기 활동을 활발히 벌인다는 계획이다. 2년 동안의 성적표와 과제를 짚어 보았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전방 군부대에서 자장면 공양 후 장병들을 위로하고 있다. 군종교구 3기는 이런 발로 뛰는 군포교를 통해 군장병 배가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늘어난 군장병들을 일선사찰과 연계하는 작업은 남은 임기 과제로 지적된다.

‘자장면’으로 장병 마음 녹여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자장면 보시’ 다. 정우 스님의 교구장 취임 이후 군종교구는 가장 먼저 장병포교에 집중했다. ‘장병포교에 힘쓰는 군법사들의 자양분이 되겠다’ 는 취임사처럼 정우 스님은 전국 부대 114곳, 법당 157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장병들을 만났다. 스님이 보시한 자장면은 지금까지 2만 그릇에 달한다. 또 불자가 아닌 군장병들에게도 핫팩 50만개, 장갑 33만개 등 월동용품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전방 군부대에 북카페도 개설했다. 이 같은 장병포교는 군종병 출신인 정우 스님의 원력이 컸다는 평가다.

수계인원도 2013년 감소 추세를 띠었지만 정우 스님 부임 후 증가추세다. 2013년 10만 5000여명에서 2014년 11만 65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전반기의 경우 2014년 대비 4000여 명이 증가했다. 군종교구는 전반기 활동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군불자 10% 증대 목표인 ‘군장병 불자 배가 운동’ 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불자장교 양성, 생도 5% 증가

이와 함께 군종교구 3기에서는 불자장교 양성에도 나섰다. 육해공 116곳의 법당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4500여명의 간부불자 명단의 통합관리를 도입해 전출입시 특별관리를 실시했다. 또 각급 사관학교 법회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5년 전군 사관생도 1100여 명 중 불자생도가 377명으로 2014년에 비해 5% 증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군종교구는 초임불자장교를 대상으로 해당부대 군승이 방문해 법회활동을 권유하는 등 신행생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타종단과는 갈등 풀어야

2014년 7월에는 창군 최초로 비구니 군종장교인 명법 스님이 파송되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균재 스님이 두 번째 비구니 군법사로 임관해 활동 중이다.

군승 파송 또한 2013년 11명, 2014년 13명을 파송했으며 우수군승 육성을 위해 예비군승으로 후보 10명, 요원 58명을 관리하고 있다. 교구 장학제도를 도입해 2015년 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군승 파송을 두고 발생한 다른 종단과의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천태종은 지난해 국방부의 군승파송 요청 부결을 두고 조계종과 군승 수급에 대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정우 스님은 당시 “스님들인 군승요원만으로도 군승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조계종 군종교구 체제에 들어와 법회의식을 같이하고 스님으로서 군포교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후 군사찰 개보수 등 숙제

군종교구는 후반기 노후군법당 신개축 및 보수불사를 추진한다. 군종교구는 3기 전반기 동안 32곳에 26억여 원을 투입해 신축 및 보수불사를 완료했다. 현재 신축 추진 법당은 9사단 신병교육대, 2해병사단, 36사 신병교육대 등 3곳으로 이밖에도 국군체육부대와 상무대 영외법당에 법당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특전사, 정보사 등 8곳이 부대이전을 추진 중이어서 신축법당이 필요하다. 또 전역자병 관리를 위해 포교원과 연계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과제로 꼽힌다.

군종교구는 “재원마련을 위해 군보수 예산 반영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 교구본사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포교원 등 관계 기관 등과 연계활동을 통해 군포교의 성과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행 도량의 명예 회복 이룰 것”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임명

원학 스님 사과 성명 발표
해인사 갈등 마무리 수순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에 향적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신임 주지 향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추천서가 접수된 지 9일 만이다.

임명식 직후 향적 스님은 “그간 해인사 문제로 종단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해인총림이 수행 중심 도량으로서 면모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해인사는 숲이 많은 곳이다. 숲이 많은 곳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일이 많다”면서 “방장 스님을 잘 모시고 전임자 스님들을 이해해 화합으로 산중을 운영해달라. 여러 경험이 많으신 만큼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8월 19일 해인총림 해인사 신임 주지 향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어 “주지 직무대행 스님들도 수고하셨다. 산고가 길었던 만큼 다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인사 주지 선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인사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원학 스님은 8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원학 스님은 “근래 해인사 신임 주지 임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에게 놀라움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주신 해인사 재적승 및 해인동문 여러분께 수행자의 본분에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13일, 중진들이 방장스님을 찾아뵙고 참회를 올려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저의 제안이 무산된데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난 6년 동안 해인사 정상화를 위해 공들인 무수한 노력이 원활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신임 주지 스님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스님은 “흩어져 반목하고 있는 해인사 대중의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모아 공의로 엮어내고 새 출발의 기운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가 신임 주지스님에게 주어졌다”면서 “방장스님의 권위와 존엄에 대한 각별한 외호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향적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1967년 해인사에서 수계(사미계) 하였으며, 해인지 초대편집장, 불교신문사 사장, 교육원 교육부장, 중앙종회 12, 13, 14, 15대 의원, 제15대 중앙종회의장(후반기)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 재적승 및 동문 여러분께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해인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해인사 재적승 및 해인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래 해인사 신임 주지 임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에게 놀라움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해 주신 해인사 재적승 및 해인동문 여러분께 수행자의 본분에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염원해 주신 총무원장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해인사의 신임 주지가 임명되었습니다. 총무원장스님께서 신임 주지스님에게 화합을 당부하셨습니다. 총무원장스님께서 고심하고 숙고하신 결과 모든 것을 구족하였기에 신임 주지로 임명하셨으며 염려되는 부분 또한 적지 않기에 특별히 화합을 당부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8월 13일, 중진들이 방장스님을 찾아뵙고 참회를 올려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저의 제안이 무산된데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아가 지난 6년 동안 해인사 정상화를 위해 공들인 무수한 노력이 원활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합니다.

흩어져 반목하고 있는 해인사 대중의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모아 공의로 엮어내고 새 출발의 기운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가 신임 주지스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장스님의 권위와 존엄에 대한 각별한 외호를 신임 주지스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해인사를 걱정해 주신 재적승 및 해인동문 여러분께 거듭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해인사를 기대합니다.

불기 2559(2015)년 8월 20일

제15대 해인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봉은사 주지 원 학 합장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 아십니까

국외재단,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 증보 발간

1910년 경주군 주임서기로 부임한 기무라 시즈오(木村靜雄)은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문을 받는다. 석굴암 전체를 해체해 경성으로 옮기라는 지시였다. 기무라 시즈오는 ‘유적은 원래장소에 있어야 역사적 증빙이 되며 총독부의 명령은 이를 무시하는 폭명(暴命)’ 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무시했다. 결국 지역의 부정적 여론과 관계 기관들의 입장 차이 그리고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계획 자체는 무산됐다. 이후 석굴암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해 시찰하러 오가는 사람들이 늘었고 석굴 안에 있던 불상 2구와 소형 탑 등이 없어지는 수난을 겪었다.

석굴암을 통째로 해체해 경성으로 이송하려했던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 문화재 수탈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발간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 이하 국외재단)은 광복 70주년 및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민간단체인 한국 · 조선 문화재 반환 문제 연락회의(이하 연락회의)와 함께 故 황수영(1918~2011) 박사의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를 증보 · 발간하였다.

동국대 총장을 지내기도 한 미술사학자 황수영 박사는 한일회담 당시 문화재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부당하게 반출된 한국문화재를 되찾아오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고적도보〉, 〈조선고적조사보고〉 등 보고서와 일본인 연구자의 논문, 당시의 문화재 관련 기사에서 우리 문화재의 피해 자료를 확보했다.



일제기 문화재 피해 사례를 조사한 故황수영 박사(사진 왼쪽)와 42년 만에 증보 · 발간된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故 황수영 박사 1973년 발간

누락 공문자료 · 도판 · 해제 추가

수덕사 벽화로 호류지 복원 실험

“민족 역사문화 최대 모욕 · 약탈”

이때 수집된 자료들은 한일회담이 끝난 후 1973년 자료집의 형태로 발간됐지만, 손으로 적은 내용을 등사판으로 인쇄한 200부만이 발행돼 일반 대중은 이 같은 피해 사항을 접하기 어려웠다.

국외재단이 42년 만에 증보 · 발간한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는 황수영 박사가 문헌을 편집 · 기록한 자료집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인용 문헌의 원문을 바탕으로 앞뒤 내용을 폭넓게 번역 · 수록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도판과 전문 연구자의 해제를 추가한 것도 증보판의 큰 특징이다.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경주 석굴암의 모습. 일제는 석굴암을 해체해 경성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자료집은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관련 법령과 행정에 관한 자료부터 고분 유물, 도자, 조각, 전적, 회화, 석조물, 공예 등 문화재 전 분야에 걸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전체 10장 190항목에 걸쳐 폭넓게 싣고 있다.

이 자료들은 고분과 유적의 도굴에 따른 유물 반출, 개인 수집가의 매매와 기관에 의한 문화재 유출 및 조선총독부에 의한 유물 파괴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일제의 수덕사 벽화에 대한 실험이다. 이 부분에 대해 황수영 박사는 “일본 호류지 벽화 보존방법 수립을 위한 것으로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요 약탈”이라고 간략히 적고 있다.

자료집에 추가된 해제에 따르면 수덕사 벽화에 대한 일제의 관련 공문으로 △1939년 조선학무국장이 야마니카 상회 사장에게 수덕사 대웅전 벽화 보존 의뢰 △우메하라 스에지가 후지타 료사쿠에 보낸 서간문에서 벽화 전사 기술 문의 △1939년 스기야마 신조가 학무국장에 보낸 복명서 등이 확인됐다. 특히 스기야마의 복명서에는 수덕사 대웅전을 수리하던 중 고려시대 벽화를 발견했고, 이를 호류지 벽화의 보존에 적용하자는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개심사, 무위사 벽화에 시험하겠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현재 일본 오쿠라문화재단에 소장된 ‘이천오층석탑’ 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예이다. 이 탑은 본래 이천 향교 앞에 있었으나 시정(施政)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출품을 위해 조선총독부박물관 앞뜰로 옮겨졌다가 일본으로 양도됐다. 일본의 사립 미술관인 오쿠라슈코칸의 양도 요청을 총독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해 반출된 것이다.

이번 자료집 증보에 대해 국외재단은 “황수영 박사의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는 목차 분류와 수기(手記)로 이뤄져 대중적 접근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의 문화재가 어떤 수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불자 “미륵불 돌려달라”

호암미술관 항의방문, 반환촉구 결의문도 발표

서산 해미면 지역 불자들이 용인 호암미술관을 방문해 미륵불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산주지협의회 회장 도신 스님, 김보희 ·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원, 해미면 주민들은 8월 13일 호암미술관을 방문해 미륵불을 친견하고 환수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은 반환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본연의 가치가 있다. 호암미술관 측은 공공기능도 있는 만큼 선의의 반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호암미술관 측은 소장 미륵불이 해미면 산수리 미륵불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들며 반환 거부입장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우리말로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

꼬마평화도서관, 9월 6일 어린이포교 ‘평화머니’ 개최

‘만약 부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가르침을 전하셨을까?’ 라는 동심 어린 발상으로 어린이 포교에 다가서는 자리가 열린다. 순수 우리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평화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다.

꼬마평화도서관을여는사람들(이하 꼬마평화도서관)과 으라차차영세중립코리아는 9월 6일 오후 3시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사찰음식전문점 ‘마지’ 2층 갤러리서 ‘평화난장이야기-평화머니?’ 를 개최한다. ‘평화머니?’ 는 ‘평화가 무엇이니?’ 란 말의 줄임이다.

이날 행사는 부처님 평화사상을 큰 주제로 △평화이야기 바람 △노래바람 ‘같이 살자’ △평화꾸러미-매듭 엮기 등 진행된다. 메인 프로그램 ‘평화이야기 바람’ 은 변산공동체학교 설립자 윤구병 작가와 꼬마평화도서관 변택주 경영살림연구가가 어린이 및 학부모와 함께 40분 간 평화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다.

이밖에도 자화자찬의 ‘같이 살자’ 노래를 배운 뒤 참가자 모두의 협연 공연이 진행될 뿐 아니라 우리 전통 색 5가지를 가지고 평화 매듭 엮기 등도 진행된다. 꼬마평화도서관은 “불교는 살인마조차 참회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보듬어내는 종교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평화이며 원효의 화쟁 정신”이라며 “이 가르침을 순수한 우리말로써 전하며 아이들의 깨끗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의 드레스코드는 ‘노랑’ 이다. 이에 대해 변택주 연구가는 “노랑은 우리말 ‘누리’ 와 ‘안전’ 을 뜻한다. 이 누리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원은 어린이와 학부모 40쌍으로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전문점 마지, 미붓아카데미, 보리출판사가 후원한다. 문의 (010)9272-4459

박아름 기자

종평위, 첫 ‘위촉직’ 4인 임명

조계종 8월 19일 위촉식 개최… 증오범죄방지법 제도화 추진

조계종 종교평화회원회가 구성원을 새롭게 정비하고, 한국 사회 종교평화 정착을 위해 정진해나갈 예정이다.

2년여 공석이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 이하 종평위) 위원장 자리에 지난 6월 만당 스님이 임명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9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평위 위촉직 위원 4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종평위 사상 첫 임명된 위촉직 임기는 2년이다. 위촉직 위원에는 수원아리담문화원장 송탁 스님, 이병두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현재 위촉직 1석은 공석인 상태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중요한 역할을 할 자리니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위촉직 송탁 스님은 “ ‘이웃종교’ 라는 말은 그야말로 서로 이웃이 돼야한다는 말이다. 진짜 이웃처럼 사소한 것을 함께 나눌 것”이라며 “불교계 얘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종교들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편한 대화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종평위가 나서 증오범죄방지법 제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미국은 종교 ·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비방 범죄와 관련해 갈등 해소를 위한 법이 잘 정착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종교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유발되지 않도록 증오범죄 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장 만당 스님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만당 스님은 6월 22일 위원장 임명식에서도 “특정 종교에 대한 반복과 대립으로 인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종단 차원의 법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9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평위 위촉직 위원 4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교평화 시민모임 ‘사이좋게’ 창립

8월 27일 안국동 W스테이지서… 주어사지 등 갈등 해결 모색

모든 종교는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는 종교적 갈등과 대립이 반목해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도 뿌리내린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종교평화시민모임-사이좋게’ (이하 사이좋게, 공동대표 도법)는 8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W스테이지서 창립 모임을 갖고, 향후 격월 종교평화 포럼을 개최한다. 사이좋게는 여주 주어사지를 둘러싼 불교와 천주교 갈등 등 대표적 종교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시작된 단체다.

사이좋게는 “주어사지 뿐 아니라 서소문과 해미읍성 등 전국적으로 종교 갈등의 불씨가 산재해있다”며 “종교간 갈등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향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대안을 공동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행사는 3명의 ‘마중물’ 강연 △박문수 한국가톨릭문화원 부원장 ‘갈등을 넘어 평화로, 종교평화의 씨뿌리기’ △조형일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종교평화의 오래된 미래 주어사에서 배운다’ △오강남 경계너머아하 이사장 ‘붓다와 예수의 제자들, 종교평화성지를 걷다’ 등 진행된 후 대화마당이 이어진다. 대화마당에서는 도법스님 여는 말씀 후 전체 대화와 토론 시간을 갖는다. 참여는 종교 평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02)3210-0108

박아름 기자

각종 점안의식의
작법절차를
집대성!



해사 편집/사륙배판/스프링 제본
312쪽/값 30,000원

점안의식집

전래되는 의식집들을 비교분석하고 보완하여
여법한 점안의식을 완성!

삼화상청, 신중작법, 불상점안, 삼보통청, 신중권공, 화엄시식, 조탑점안, 나한점안, 신중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산신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불상이운, 괘불이운, 파불급경가사소송법 등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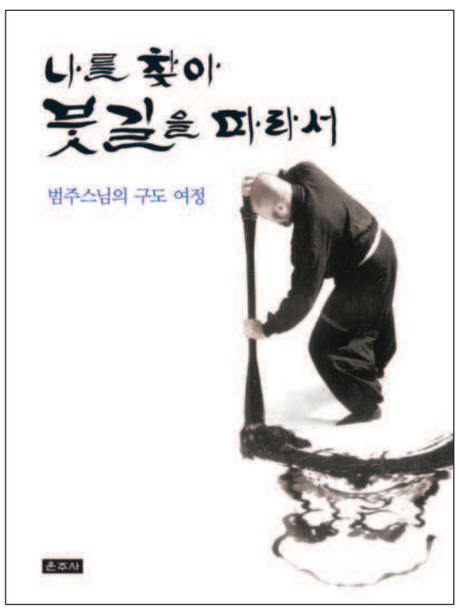
달마도와 선묵화의 대가 범주스님의 삶과 수행의 여정!

나를 찾아 붓길을 따라서

선묵일여, 선화불이의 세계를 추구해 온
범주스님의 삶과 수행, 예술세계를 담은 회고록.

출가 50년, 선묵화 40년!
선화를 화두 삼아 수행해 온 구도의 여정을 글과 그림을 통해 만나다.

범주 글, 그림/사륙배판변형/286쪽/올컬러/20,000원



수좌복지 후원을 위한 범주스님 선묵 회고전 일정

도시명	전 시 기 간	장 소
서울전	8/29(토) ~ 9/8(화)	조계사 나무갤러리
울산전	9/10(목) ~ 9/23(수)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
부산전	9/24(목) ~ 9/30(수)	부산시민공원갤러리
대구전	10/1(목) ~ 10/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일산전	11/9(월) ~11/22(일)	일산동국대학병원갤러리

회고록 출판기념회
일시 2015년 8월 29일 (토) 오후 4:00
장소 조계종 총무원 지하공연장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일 주 문



혜명양로원 말복 대중공양

현성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스님은 8월 12일 말복을 맞아 혜명양로원 어르신들에게 갈비찜과 떡, 막걸리 등을 대중공양했다.



제46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9월 6일까지 제46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남 · 녀 50명이다.



한가위 합동다례재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9월 27일 '한가위 합동다례재'를 봉행한다. (02)768-8600



제9기 불교영어강좌 수강생 모집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7일~12월 23일 진행되는 '제9기 불교영어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02)3218-4800



스카우트불교연맹 지도자과정

송묵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연맹장 스님은 10월 9~11일 양산 신흥사에서 어린이 · 청소년 지도자훈련 초 · 중급 과정을 진행한다.

"윤회 벗어나는 과정 茶毘로 표현"

〈다비〉

제1회 불교무용대전 대상 수상

이화석 교수



전북대 이화석 교수(예술대 무용학과)가 올해 처음 개최된 제1회 불교무용대전에서 대상을 수상(조계종 총무원장상)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0팀이 한 달여간 경연을 벌였으며 이 교수가 이끄는 '댄스컴퍼니 Joo-mo'는 불교무용예술을 결합한 창작안무 '다비'를 선보여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교수는 다비 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인간의 원초적인 생로병사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윤회라는 순환의 고리 속에 자신의 모든 업장을 흙과 물, 불, 바람의 사대 지수화풍에 내주어야 그 업장은 소멸되고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는 '다비'의 철학을 무대에 반영한 작품이다.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비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대회에서 이 교수는 투철한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불교의 자비와 구도정신을 무대예술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교 예술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불교의 자비와 구도정신 담아

예술의 대중화 기여해 호평 받아

이 교수는 이에 앞서 불교적 소재를 작품화한 '108'로 2013년 '국제 안무가 대회'에서 김기인 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이 공연은 외국 기획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 폴란드 등에서 공연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교수가 이렇게 불교적 소재를 작품으로 채택하는데에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그의 성장 배경이 한 몫을 한다. "아버지가 신실한 불자셨어요. 누나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출가를 했죠.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반야심경 천수경을 외워야만 용돈을 받을 수 있을만큼 신행활동을 강요받았어요.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싫었는데 무용을 하면서 전통적 소재를 찾다보니 결국 불교로 돌아가게 되었고 지금은 그 철학적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앞으로 이 교수는 다비를 국제 대회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는 "이번 가을 열리는 국제안무가대회에서도 다비를 출품할 계획이다. 앞으로 다비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최우수작품상은 정병인과 노병유의 우리소리 연구회-솟대팀이 수상했다. 이들은 북청사자놀음을 시대에 맞게 각색, 안무해 전통적인 악사 편성과 음악으로 현장성을 높이고, 관객과의 탁월한 소통으로 즐거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춤예술센터가 주관하고 조계종 후원으로 개최된 제1회 불교무용대전은 '대한민국 최대, 대학로 유일의 불교 무용 축제'라는 슬로건을 걸고 경연을 펼쳤다. 하지만 대상과 최우수상 모두 상금은 수여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치러져 불교 공연계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월운 스님, 동국대서 명예박사 학위

8월 19일, 역경사업에 매진한 공로로



(사진 왼쪽부터)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월운 스님,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 정승석 대학원장

역경불사의 큰 어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동국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8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5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열고 역경사업에 매진한 공로로 봉선사 조실이자 동국역경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는 월운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월운스님은 학술 발전뿐 아니라 인류의 문화 창달에 기여한 바가 크고, 학교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드높이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후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명예박사학위 수여 사유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연광 스님, 19일 승가교육기금 기탁



광주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 8월 19일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조계종 교육원에 기탁했다. 연광 스님은 "승가교육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어르신 여름나기 후원품 전달



재단법인 호연(이사장 호연 스님)은 8월 7일 서울 노원구청을 방문해 선풍기, 여름이불, 쌀, 모기약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 물품은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호연은 5월부터 70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 후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후원사업으로 비구니 스님 의료비 지원을 펼치고 있다. (02)948-3929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문화국장 석운, 조사국장 도심 스님 임명

8월 13일 임명식…상임감찰에는 진공 스님



석운 스님



도심 스님



진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3일 문화국장에 석운 스님, 조사국장에 도심 스님, 상임감찰에 진공 스님을 새로 임명했다.

문화국장 석운(石雲)스님은 수진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사미계를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팔공총림선원, 쌍계총림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해인총림선원, 영축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총무원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조사국장 도심(道心)스님은 성혜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수계했다.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해인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총무원 상임감찰을 역임하고 현재 성불사 주지를 맡고 있다.

상임감찰 진공(眞空)스님은 범종스님을 은사로 2000년 사미계를 수계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쌍계총림선원, 실상사 백장선원, 월정사 만월선원, 해인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노덕현 기자

"어르신 건강, 불심으로 챙겨요"

제10회 미륵암 칠월칠석 경로잔치 개최

조동종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은 8월 20일 칠월 칠석을 맞아 남해군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제10회 칠월칠석 맞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10년동안 꾸준히 경로잔치를 열어 온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칠월칠석을 맞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히고 마음 편안히 쉬셨으면 하는 바람에 경로잔치를 열게 됐다"며 "현재 미륵암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다. 완공 후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곳에서 경로잔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운 스님은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불심으로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조 남해군 삼동면 경로노인회장은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이 경로당을 자주 방문할 뿐만 아니라 최근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시원한 콩국수와 떡, 과일과 음료 등 마음씀씀이에 감사드린다. 미륵암 봉사활동 등에 지역 어르신들이 적극 동참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도 규합과 교육에 매진하겠다"

대한불교미타종 창종 75주년 기념식 봉행

대한불교미타종(총무원장 권성우)은 8월 18일 서울 휘경동 총무원 대법당에서 '창종 75주년 기념식 및 창종조 탄신 100주년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월정스님, 총무원장 권성우, 교육원장 석진스님, 벽암문도회 대표 영각스님, 포교원장 진표스님 등 종단임원 및 종도 5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창종조 탄신 100주년 기념 책자인 '사바에 뿌린 씨앗'을 창종조사 영전에 봉정하고 그간 종단발전에 공헌한 종도에 대한 표창도 시상했다.



권성우 총무원장은 '창종조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종단 발전을 위해 종단 재정비를 통한 종도 규합과 교육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한번 그 여자 그 남자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찾기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광복 70년 불자들의 염원 울려퍼지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교계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광복절 기간동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미래비전과 호국불교의 위상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전국 사찰에서 진행된 행사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노덕현 · 박아름 · 하성미 기자

“광복의 의미 불심으로 되새겨 통일의 밑거름으로”



한국종단협의회가 8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에서는 분단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통일에 대한 발원이 이뤄졌다.

남북불교합동법회 무산, 동시법회로

남측 불교계가 북측 불교계를 초청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된 광복70주년기념공동법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의 동시법회로 진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조선불교도연맹과 8월 15일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에서 오후 1시 일제히 ‘조국통일기원 8 · 15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공동법회 무산의 아쉬움 만큼 남북 불자들은 법회에서 분단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쌓았다.

조계사 법회에 참여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대한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 스님,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지홍 스님 등 불교계 대표인사들과 국회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의원,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재가불자 2백여 명은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은 “남북관계 개선은 상호 신뢰에서 시작한다. 서로를 자극하는 정치 ·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걸림돌 5 · 24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전환 모색을 위해 올해 특사교환을 포함 고위급 인사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대북인도적지원에 앞장서 온 불교계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치적으로는 단호하게, 경제 · 문화적으로는 우호 협력하는 자세로 남북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하셨다”면서 “마찬가지로 통일도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염원한다면 반드시 이룰 날이 올 것”이라 희망을 내비쳤다.

매년 발표되던 남북불교계 공동발원문도 이날 무산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은 “당초 법회 전 공동발원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남북 경색국면 해소 한 목소리
순국선열 위무하며 통일 기원
지역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
“강제징용 · 군속에도 관심을”

전국 곳곳에서 법회 및 타종의식 이어져

중앙의 행사와 함께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의 사찰에서는 타종의식과 경축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서울 도선사(주지 도서)는 타종의식과 함께 광복절 경축행사 중 총격으로 사망한 육영수 여사의 추모재도 함께 열어 눈길을 끌었다.

도선사는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33번의 타종과 함께 애국지사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 추모법회를 진행했다. 1000여 불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도선사 주지 송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3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암울했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날”이라며 “다시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 불자들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조상들께서는 일제의 온갖 만행을 겪으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워온 결과 오늘날 우리가 있다. 독립운동에 온몸을 받친 선현들께 깊이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예를 올린다”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부산역 광장에서의 뮤지컬 모습



블룸의 메시지 리본묶기 행사



도선사 육영수 여사 추모재

도서 스님을 비롯해 법회에 참석한 도선사 불자들은 “다시는 나라를 잃는 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불자들이 앞장서 호국불교를 실천하자”고 다짐했다.

기념행사 후에는 도선사와 인연이 깊었던 故육영수 여사의 41주기 추모재도 진행됐다. 육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장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육 여사는 생전 도선사 중창주인 청담 스님으로부터 ‘대덕화’라는 법명을 받은 바 있는 독실한 불자로 1960년대부터 육여사는 도선사를 찾아 기도를 하곤 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도 광복절을 앞둔 14일 경내에서 10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광복 70주년 통일아리랑 국민대합창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모인 대중들은 ‘아리랑’을 합창하며 분단의 아픔을 달랬다. 또 주지 성행스님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한마음으로 삼창했다.

성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는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켜왔다”며 “통일 아리랑 합창으로 국민대화합을 이루고 통일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부산, 플래시몹 · 뮤지컬 행사 등 ‘눈길’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도 부산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8월 15일 부산역 광장에서 플래쉬몹을 통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플래시몹은 수많은 군중들이 광장 등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퍼포먼스로 이날에는 광복 당시 진행된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오후 4시, 삼광사가 미리 고지한 인터넷과 SNS의 홍보자료를 본 시민들이 2000명이 넘게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아리랑과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만세 삼창을 했다. 이에 앞서 전문예술극단 에저또의 안중근 의사 의거를 다룬 뮤지컬 ‘영웅 장부가’가 선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산 삼광사는 1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독립 유공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제8회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 합동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을 비롯해 박성종 대한민국독립유공자추모기념사업회 회장,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살풀이춤으로 문을 연 1부 공연에서는 동래학춤, 바라무, 한량무 및 육법공양으로 독립유공자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2부에서는 진혼곡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추모사를 통해 유공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무원 스님은 “우리 국민들은 독립유공자들의 순고한 희생에 감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이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 이르기 까지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복 전인 13일에는 부산지역 6개 종단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공동선실천을 위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가 원불교 동래교당에서 ‘광복절 기념 평화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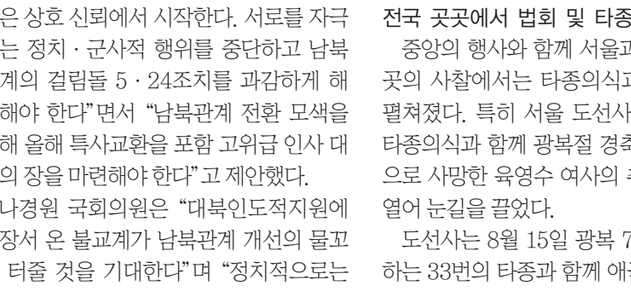
광복의 소외계층 보듬는 활동도 활발

이와 함께 광복으로부터 소외됐던 이들을 위한 활동도 불교계에서 활발히 펼쳐졌다.

불교계 포교단체인 사단법인 ‘블룸’(대표 김광호)은 8월 1~15일 주말 부산시민공원에서 임시군속훈련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활동을 펼쳤다. 임시군속훈련소 피해자들은 전범으로 몰려 광복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이들이다. 명예회복활동은 ‘전범이 된 조선 청년들’ 영상 상영과 함께 이지현 블룸 청소년센터장의 강연, 메시지리본달기 캠페인 등으로 진행됐으며 15일에는 진혼무를 비롯한 행사도 진행됐다. 행사 기간동안 총 400여 시민들이 찾아 이들의 아픔을 공유했다.

김광호 블룸 대표(부산불교문화원 원장)는 “당시 강제동원된 129명 중 14명이 전범으로 몰려 사형됐으며 115명은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했다. 희생자들은 전범으로 몰려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현재 일본에 4명만이 생존해 있다”며 “이들의 명예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산시민공원 내 흔적공원이 과거 임시군속훈련소로 추정된다. 잊혀져 가는 역사를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증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뜸온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님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제품설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법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님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

어려운 불교경전 '우리말로' 쉽게 전해요!

불교경전번역모임 '불한당'… 도법 스님, 윤구병 등 참여

매월 첫째 · 셋째주 수요일 저녁 6시, 모두가 퇴근한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다.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불한당'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불한당은 '불교를 한글로 전하는 모임'이란 뜻으로 2013년 9월 창립됐다. 한문으로 쓰인 불교경전이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한번 번역해보자'라는 뜻을 모아 처음 시작했다. 모임을 최초 제안한 변택주 작가는 "불교의 대사회적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도법 스님과 순우리말 사용에 남다른 애착을 지닌 윤구병 작가라면 불교와 우리말을 융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 분께 처음 제안했다"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불교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처음 목표"라고 설명했다.

모임이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각계각층 10여 명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 직업을 갖고 낮에는 본업에 충실하지만, 발제를 맡은 때엔 1주일 동안 하루 2~3시간을 경전 번역 공부에 투자할 만큼 열정적이다.

백승권 前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은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모임 취지지만 실제로는 나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한글로 뜻을 정리해 나가며 내 삶의 고민도 함께 풀어내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가치판단이 매우 넓어졌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불한당'은 의상대사의 〈법성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원효대사의 〈열반종요〉, 지눌대사의 〈수심결〉 등 번역해왔다. 불한당이 한국 고승들의 경전을 중점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인도 · 중국불교가 성행하고 있지만 의상대사와 같은 한국 불교 명승들의 가르침도 매우 훌륭해 전승돼야할 가치가 있다"는 도법 스님의 뜻이다.

지난 8월 19일 〈수심결〉 번역 과정이 한창인 불한당 모임에서는 도법 스님을 비롯해 변택주 작가, 박재현 화쟁아카데미 사무국장,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이 둘러 앉아 〈수심결〉 1~8 문답 요지를 번역하고 있었다.

이 날 발제 담당은 박재현 사무국장과 강영진 교수, 이광호 레디앙 대표였다. 불한당은 매회 2~3명의 발제자가 배정된 부분을 한글로 번역해 오면, 다른 일원들이 번역본을 두고 서로 생각을 개진하는 토론 시간을 갖는다. 저마다 번역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읽을거리와 재미도 각양각색이다.

초창기에는 법성게의 '법' 한 글자만 두고 한 달을 토의할 만큼 열의가 대단했다. 변택주 작가는 "'법'을 누군가는 우주로, 또 다른 사람은 흐름으로 해석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어느 한 의미로 결론짓지는 않았다"면서 "해석하기에 따라 우주나 폭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회상했다.

불한당 일원이 갖는 궁극적 고민은 '이 번역 과정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모두가 읽기 쉬운 불교 경전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이 읽은 내용이 실제 삶에 유익하게 적용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날 도법 스님은 "우리가 법성게를 번역했다면 법성게의 '태어남의 시작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은 본래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생사의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한당은 '불교를 한글로 전하는 모임'이란 뜻으로 2013년 9월 창설돼 매월 첫째 · 셋째주 수요일 저녁 6시 정기 모임을 열고 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도법 스님을 비롯해 10여명 회원이 참석해 발제를 이어갔다.

2013년 9월 창립… 월 2회 모임
"초등학생도 이해할 불교만들자" 목표
〈법성게〉〈열반종요〉〈수심결〉 등 번역
번역 방식과 해석 달라 재미 '쏠쏠'

이어 스님은 "얼마 전 남원 실상사를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법성게를 강연하며 '지금 이 순간 죽은 내 자식이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물었다"며 "이 얘기를 듣고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야'라는 이해만 되도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법성게를 통해 인간사회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법 스님은 가장 처음 번역한 〈법성게〉를 심화 · 연구해 남원 실상사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법문하고 있다.

한편 변택주 작가는 지금까지 번역한 내용을 향후 책으로 엮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변 작가는 "2018년부터 〈수심결〉이 〈금강경〉과 함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적용된다던데, 불한당이 수심결을 조금 더 매끄럽고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향후 종단에 교과서 내용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번역 완성단계에 이른 법성게 또한 번역본을 정식 출간할 목표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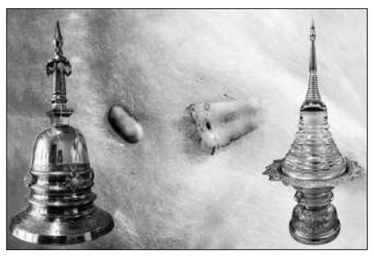
부천 석왕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8월 20일~29일 석왕사 경내서… 칠월칠석 · 백중문화제 등 '다채'

지난해 8월 스리랑카 정부가 부천 석왕사에 기증한 부처님 진신 사리를 친견하는 행사가 열린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칠월칠석인 8월 20일부터 칠월백중인 8월 29일까지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법회와 칠월칠석 및 백중문화제'를 개최한다. 첫째 날인 8월 20일 봉행되는 진신사리 친견법회서는 스리랑카 대통령이 직접 기증한 진신사리 1과와 1898년 인도 카필라성 발굴된 진신사리 1과가 공개된다. 인도 카필라성 발굴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와스까두웨 마힌다완사 스님이 석왕사에 기증했다.

이번 행사의 증명법사는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으로, 매일 각기 다른 주제로 특색 있는 소행사가 진행된다. 주제는 △8월 20일 '부처님과 중생이 상통하는 날, 자비의 편지 쓰기' △8월 21일 '약사여래 부처님 친견하는 날' △8월 22일 '베트남 전쟁 희생자 천도의 날' △8월 23일 '한국 · 스리랑카 문화교류의 날' 등 9개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이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왼쪽)와 1898년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햄이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 카필라성에서 발굴한 부처님 진신사리(오른쪽)

특히 22일에는 베트남 다낭시 대관음사에 모실 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 23일에는 스리랑카 와스까두웨 마힌다완사 스님의 '스리랑카의 부처님 진신사리 전래와 사리신앙'을 주제로 법문하는 등 다채로운 불교 의식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행복수업, '아남 툽텐' 방한 수련법회

8월 31일부터 '롱첸닝틱 및 쬐 수행' 등 진행

행복수업 명상수행학교(대표 혜봉, 이하 행복수업)가 아남 툽텐 린포체 스님을 초청해 세 번째 방한 수련 법회 '알아차림의 기적'을 연다.

수련 일정은 △8월 28~30일 서울 동국대 국제선센터 '대중수련' △8월 31일~9월 4일 티벳 닝마파 금강승 예비수행 '롱첸닝틱 수련' △9월 4~7일 번뇌끊기 수행 '쬐 수련'이다. 대중수련은 각각 28일 오후 7시, 29일과 30일 오전 8시 30분 열리며 부분참가도 가능하다. 롱첸닝틱 및 쬐 수련은 문경 한산사서 안거(숙박) 수련으로 진행된다.

행복 수업은 "롱첸닝틱 수행을 직접 구전 전승하는 곳은 한국에서 행복 수업이 유일하다"면서 "쬐 수행도 원래 단계가 매우 높은 수행이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니,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남툽텐 스님은 티베트 동부 지역서 태어나 티켓 불교의 닝마파 전통에 따라 수행했다. 라마 추르 로, 켄포 쇼펠, 라마 갈왕, 직메 푼촉 린포체 등 뛰어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후,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에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했다. 현재 미국내 36개, 유럽 8개, 아시아 2개 지부를 운영 중이다. 문의(070)8812-2231

박아름 기자

대불련, 전국동문대회 '다시 만나다' 성료

8월 15~16일 경주 등지서… 5백여 명 참석

'청년불교' 부흥 방안 모색 특강
동문 가족 등 5백여 명 함께해
연극 · 어린이불교학교 등 '다채'

"94년 조계종 종단개혁 핵심 주체였던 대불련 동문들은 최근 개혁정신이 역행하는 현실 과보 속 다시 한 번 정법 구현을 위해 바로잡아가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이하 대불련총동문회)는 8월 15~1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및 불국사 등지서 제13회 전국동문대회 '대불련, 다시 만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서 대불련총동문회는 특강을 열고 청년불교운동 부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어울림마당 및 연극관람 등 친목도모 시간을 가졌다.

15일 오후 2시 동국대 대강당에서는 입재식을 봉행했다. 백효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동문대회는 대불련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향후 50년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대불련, 다시 만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며 "이를 계기로 불법을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한 젊은 불자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전국 15만 대불련 동문들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아울러 '청년불교운동'을 주제로 이제열 법림선원장 특강도 진행됐다. 이제열 법사는 "치열해져 가는 경쟁 구도 속 청년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불안감을 안고 산다. 바로 이러한 때 불교가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 줘야 한다"며 "불교계서 그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나 기구를 만들어 청년들을 불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사는 "무엇보다 선행돼야할 것은 청년들이 불교 이념을 통해 마음 계발을 이끌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청년들이 하나 된 신행 운동을 펼쳐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제발표에 나선 최승태 대불련발전위원장은 대불련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캠퍼스 포교를 통한 청년불교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부대중과 함께 대불련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며 "출가자가 감소하는 요즘 시대에 재가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대불련 동문들의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동문대회에는 어린이 · 청소년불교학교를 함께 열고 동문들의 자녀도 참여토록 했다.

자녀들을 위한 반야심경 및 사찰예절 교육, 찬불가 배우기, 불교 동화 시청, 불국사 및 석굴암 참배 등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법련사, 불일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9월 1일 개강… 명상지도사 과정도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가 제2기 불일아카데미 신입생을 9월 1일부터 모집한다.

불일아카데미 제2기 과정은 크게 불교입문반과 경전반으로 나뉜다. 불교입문반 주요과목은 불교 기본교육과 보현행원품 강의이며, 경전반에서는 불교기초과정을 이수한 자들이 〈직지심체요절〉을 배우게 된다. 강좌는 총 3개월 과정으로 수업료는 각 10만원(교재비 포함)이다. 불교입문반은 9월 3일부터 매주 목 오후 1시, 경전반은 9월 1일부터 매주 화 오후 1시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서 실시된다.

아울러 명상지도자를 위한 명상상담프로그램 '인경 스님의 명상교실'도 새롭게 신설됐다. 9월 7일 개강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동 장소서 열린다. 인경 스님은 동국대에서 간화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회장을 역임 중이다. 문의(02) 733-5322 박아름 기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9월 8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천도재, 49재 의식 처음부터 (시련, 대령, 관욕)
◇원서교부 : 2015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9월 4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02)393-8027

개인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훈련병들에 생명나눔 중요성 꾸준히 포교



호국연무사 지운 법사(사진 왼쪽)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1천장을 달성해 22번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8월 15일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마련한 수계법회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이 연비하며 웃고 있다.

호국연무사 지운 법사 장기기증 희망등록 1천장 전달

22번째 명예의 전당에 올라

8월 14일 논산육군훈련소서

3천여 장병 수계법회도 진행

(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8월 1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행된 광복 70주년 기념 수계법회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1천장을 전달받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진행했다. 1천장 달성에 박차를 가한 논산 육군훈련소 지운 법사는 이날 생명나눔 명예의 전당 인증서와 명패를 수여받았다.

지운 법사는 지난 6월부터 매주 3회 진행되는 정기법회에서 생명나눔을 주제로 법회를 열고, 훈련병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을 받아왔다. 그 결과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1000장을 증정한 지운 법사는 이사장 일면 스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망등록자를 추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2번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명예의 전당 제도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추천을 100명 이상 달성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 총 22명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지운 법사는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법회를 진행해왔다. 그는 "국가에서 만든 생명나눔 관련 동영상과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의미 등 다양한 주제로 세분화해 꾸준히 법회를 열었다. 또한 생전에 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꺼려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장기기증을 우선으로 신청자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1000명으로부터 서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한다.

지운 법사는 함께해준 병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인사의 말을 전한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동참해준 모든 병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곳이 훈련소이다 보니 5주만 있으면 병사들이 자대배치를 받아서 나가요. 이런 이유로 초창기 동참자들은 이번 기념법회에는 참석을 못했죠.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훈련소를 떠난 병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지운 법사의 전달로 2015년 8월 현재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3천 명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등록자 수는 총 46295명에 이르게 되었다.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신 지운 법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생명나눔이 마련한 광복 70주년 행사에서는 훈련병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면 스님을 계사로 오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거듭나는 수계의식을 펼쳤다. 계사로 나선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오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다섯 가지를 단순히 교훈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를 근본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부대행사로 문화공연도 진행됐다. 남양주 광동고 재학생 7명으로 구성된 댄스팀 '카르페디엠' 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화려한 댄스공연을 선보였다. 동국대 교육대학원 무용단 또한 전통공연부터 현대무용, 힙합, 방송댄스까지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펼쳐 3000여 훈련병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뢰 제거된 마을에 평화의 씨앗 심어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동통 수다라초교' 기공식

최근 캄보디아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대원 2명이 목함지뢰를 밟아 큰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지뢰가 제거된 지역에 학교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떠 주목을 끈다.

지구촌공생회는 8월 18일 캄보디아 웃더민쩨이주 동통마을에서 '동통 수다라초등학교 기공식' 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사무총장 원광 스님, 지구촌공생회 시찰단 일행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동통 수다라초등학교 기존 학교건물은 전체적으로 균열이 생긴 낡은 목조 건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266여명 학생 수 대비 교실 부족으로 아이들은 2인용 책상을 5명이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지구촌공생회는 "평소 불교계 언론을 통해 지구촌공생회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 봐온 익명의 후원자가 지난 2월 무주상보시로 학교건립기금 2억 후원과 함께 동남아 지역 아이들을 위한 학교 두 곳 건립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는 동통 수다라초등학교와 따께오주 쁘레익 따 퍼 바라밀초등학교를 건립하는데 사용되며 후원자는 부처님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발원하며 '수다라' 와 '바라밀' 이라는 교명을 지어주었다. 동통 수다라초등학교는 교실 3칸, 교무실 1칸, 도서관 1칸을 신축하여 내년 1월 완공된다.

월주스님은 이날 기념사에서 "기공식을 계기로 동통 수다라초등학교가 무사히 건립되어 주민들과 아이들이 지뢰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자원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상보시로 학교건립기금을 후원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하다." 고 전했다.


지구촌공생회는 8월 18일 캄보디아 '동통 수다라초등학교 기공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사장 월주 스님의 기도 장면

한편, 캄보디아는 30년간의 전쟁과 내전으로 약 천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지뢰 폭발사고로 다리가 잘리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위협해 캄보디아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작년 한해도 150명이 지뢰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했다. 동통 마을이 위치한 태국과의 국경인 서북부 지역은 특히 지뢰가 집중 매설되어 있으며 주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고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2013년 지뢰제거연대(CSHD)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지뢰제거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정혜숙 기자

인도네시아 재난정책 개선 나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책대화 실시

쓰나미, 지진, 홍수, 진흙 화산 등 재난으로 얼룩진 인도네시아에 올 3월부터 도시빈민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위험경감사업' 을 추진해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정책 대화를 진행했다.

사업점검을 위해 인도네시아 현장에 담당자를 파견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12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반다아체시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재난예방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대화' 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르고위요노 국장(자연재해 및 위험관리국) 및 관련부서 공무원들, 재난위험경감사업에 참여했던 7개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반년동안 실시한 재난위험경감사업에 대한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재난예방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개선점을 요구하고, 피해를 감소시킬 현실적 정책 제정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와 함께 재난예방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차원에서 지방재난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을별 재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마을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지원에 그쳐 그 효과가 미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재난위험경감사업을 통해 재난 및 마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커뮤니티 맵핑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마을의 역사와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의 위험요소를 분석해 예방책을 수립하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올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재난위험경감사업을 추진한 대상은 인도네시아의 5개주 7개 도시 내 약 1만 4천 가구(약5만 3천명)로, 이들을 대상으로 재난대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의 취약점을 파악해 환경을 개선하고, 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추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자연재해 및 무분별한 개발이 야기한 재난상황까지 매년 수많은 재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단순히 후원금품을 지원해 생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 대응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고, 환경기반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난위험 경감사업을 추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8월 12일 인도네시아서 열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인도네시아 재난예방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대화' 회의 장면

이천복지관,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희광)은 8월 18일 이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총 57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방안에 대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도전적 행동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사례들을 논의하고 질의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앞으로도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정혜숙 기자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아래와 같이 제1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30분 ~ 3시 30분)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5년 8월 ~ 2015년 8월 3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모 집

인생이 아프면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치유하는 인생치유이며, 불교는 인생치유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인생치유학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의 승려는 신앙인이나 수행승이 아니라 인생치유사가 되어야 하고 불교사찰은 신앙이나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인생치유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고자 설립되어진 종교법인 참종은 인생치유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인생치유연구소를 설치하고 라이프힐러라는 인생치유사 자격증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앙인이나 수행승이 아닌 인생치유사가 되고자 하는 스님과 신앙이나 수행하는 곳이 아닌 인생치유하는 곳으로 그 기능을 변모하고자 하는 사찰들을 널리 모집합니다.

Life healer (인생치유사) 3급과정

■ 수강과목 : 인생학개론(불교의 교육관, 결혼관, 죽음관), 인생해부학(오온, 12처, 18계, 유식학), 인생치유학(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오문)
모든 과목은 불교용어를 현대 언어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불교 강의 같지는 않습니다.

■ 강 사 : 군맹서진 스님 ■ 수강시간 : 총 72시간(주1회 2시간)

■ 강 의 료 : 100만원 ■ 강 의 실 : 조계사 앞 추후통보

■ 접수마감 : **2015년 9월 24일** ■ 개 강 일 : **2015년 10월 6일**

■ 접 수 처 : 종교법인 참종 부설 인생치유연구소 내 인생치유사양성학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산 76번지
전화 : 031-834-7072 / 팩스 : 031-834-2141 / 이메일 webmaster@obongsa.org
홈페이지 : http://www.obongsa.org, 다음카페 인생치유연구소

■ 접수방법 : 입학원서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다음카페 인생치유연구소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마감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신 후 강의료를 납부.
자격증 취득 후 Life teacher (인생강사)로서 활동

※ **Life teacher(인생강사) 자격증 취득 이후 Life healer(인생치유사) 2급(Life nurse-보조치유사)과 1급(Life doctor-주치유사)을 본인이 원할 경우 순차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단법인 참종 부설 인생치유연구소 내 인생치유사양성학교

“戒의 실천은 부처님되는 지름길”

서울 봉은사 일요법회

자광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불자들은 불교에 입문하며 불살생 · 불투도 · 불사음 · 불망어 · 불음주의 ‘오계(五戒)’ 실천을 다짐한다. 이는 불교 계율의 근본으로 재가자뿐만 아니라 처음 출가하는 출가자들도 사미오계(沙彌五戒)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조계종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7월 12일 서울 봉은사 일요법회서 ‘계의 실천은 부처가 되는 지름길’ 을 주제로 법문했다. 2009년~2013년 군종교구장을 역임하며 계율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광 스님은 “부처님 행동을 따라 육도윤회를 벗어난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러야 한다” 면서 “육도윤회와 모든 고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계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계를 파하거나 어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타인을 위한, 다수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자광 스님은 …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7년 사미계를, 196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선원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육도윤회 벗는 기본 수행법, ‘五戒’
실생활서 실천하면 큰 효과 볼 수 있어
‘계’는 부처님의 행동과 같은 거울
“어길경우 다수위한 일이어야 이해 가능”

부처님의 종교적 ‘천재성’

저는 요즘 기본계율실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계를 실천 한다면 성불(成佛)에 이르는 길도 빨라지고 수행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완성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계율실천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반드시 일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불법(佛法)을 만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부처님은 성인 중의 성인 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2천 6백여 년 전에 왕족의 신분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훗날 왕이 될 수 있는 지위까지 다 갖추어진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무엇이 아쉬워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 고행을 시작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쉽게 발걸음이 떨어졌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문유관(四門遊觀)’을 겪으시고 인간세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약육강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법당에 앉아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 올 때 비를 맞으며 도로공사를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 그 분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편하게 와서 법문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느끼신 불평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환경에서 법문을 듣고 있고 또 누군가는 비를 맞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전생의 업보이지만 한편으로 약육강식은 상당히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화목하게 그 어떤 살생도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부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 늙고 병든 사람을 보게 되는데 부처님께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치고 계시던 아름다운 옷과 부귀,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에 부처님과 대동한 신하가 ‘누구나 늙고 병이 들며, 이것은 부처님에게도 해당되는 일’ 이라고 말해줍니다. 이후 또 다른 성문에서는 장례행렬을 보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은 또 다른 성문에서 고요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신하에게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물으니 신하는 ‘약육강식과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는 수행자’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모든 것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왕의 지위와 재물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왕궁에 다시 돌아오니 수행자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 부처님은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에 부왕을 찾아가 출가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출가 전부터 일반적인 범인(凡人)과 다른 종교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전생부터 선업을 닦아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왕은 부처님의 출가를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밤중에 몰래 성문을 빠져나와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가 엄청난 고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성불을 이루시고 생로병사를 비롯한 우주 근본의 이치를 다 알게 되신 경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은 성인 중의 성인이십니다. 부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고등한 종교 중에서도 6백년이나 앞서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또한 ‘팔만사천대장경’ 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한글로 번역 하면 그 양이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 성서를 합친 것에 7백배에서 1천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등 종교를 믿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불교에 대한 연구를 수없이 해왔지만 조금의 허점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캠브리지 대학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 우주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 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계적인 과학자가 입증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우주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신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신이 개입할 틈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부처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닌 여러분 부모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큰 깨달음입니다.

현재를 통해 전생을 본다

사람들은 자신이 전생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자신의 성격, 환경, 취미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17살에 스님이 되어 32살에 군포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군대 가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무려 25년 동안 군대에 있었습니다. 당시 군포교에 대한 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생을 한번 생각해보니 ‘군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님이 되어서도 그 긴 시간 동안 군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전생의 군대에 대한 업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후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궁금하다면 금생에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봄으로써 내생에는 과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생에 술과 도박에 빠져 산다면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축생 중에서도 아주 나쁜 축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열심히 마음을 닦고 수행정진 하면 지금 태어난 이 모습보다 더 수승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이 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이 죽음을 여러분은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고 자포자기 하듯 아무렇게나 살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음 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서 수행하고 또 닦아서 못된 버릇, 나쁜 습관, 전생의 지은 나쁜 업들을 다 송두리째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음 생에는 수승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육도윤회 한다고 하여 지옥도 · 아귀도 · 축생도 · 삼악도 · 아수라도 · 인간도 · 천상도를 돌고 돈다고 합니다. 악행을 많이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혼자 호의호식하며 남에게 베풀지 않고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아귀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축생세계는 인간세계에서 말초신경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아수라 세계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게 되고, 천당세계는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선행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천상계는 신들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천상계에서는 신들이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천상계에서도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천상의 세계도 완벽한 세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야할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천상계를 쫓으며 살 것이 아니라 그저 부처님을 따르며 살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육도의 세계를 설명하시며 깨달음의 세계 또한 4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 연각, 보살, 불의 4단계입니다. 육도윤회를 완전히 벗어나 초월하게 되면 다시는 육도윤회로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깨우침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생에 육도윤회를 헤매는 공부는 그만하고 성문, 연각, 보살, 불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계의 실천은 곧 붓다로 사는길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수행방법으로 육바라밀을 등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우리 실생활에 실천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기본 오계(五戒)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는 부처님의 행동입니다. 설사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율을 열심히 실천해 부처님 행동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보통 선을 우선으로 여기는데 마음도 좋고 말씀도 좋으나 행동이 없는 마음, 행동이 없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모두가 부처님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오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살생(不殺生)살생을 하지 말라. 이것은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함과 더불어 생명을 괴롭히지 말고 나아가 보살피고 거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합니다. 간접 살생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직접살생의 방법이 아니라 마음에 피를 묻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둘째, 불투도(不偷盜)는 남의 물건 욕심내지 말고 훔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회의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큰 도둑질이며,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도 간접도둑질로 볼 수 있고, 자연훼손도 포함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끼며 보존하고 잘 가꿔서 모든 사람들이 오래오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불투도의 계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불투도는 보시를 행하라는 것으로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불사음(不邪淫)은 삿된 음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외에 음행을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성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란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근심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질서가 문란하면 내생에 사람 몸을 받더라도 상당히 추한 몸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불망어(不妄語)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의존관계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법칙이라 합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절대 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음주(不飮酒)는 술과 마약을 멀리할 것을 말합니다. 소주 한잔을 마시면 뇌세포 108개가 죽는다고 합니다. 마약과 술을 멀리해 청정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오계를 잘 지켜 올곧은 정신 수행에 임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성불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혹여나 계를 어기거나 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또는 남을 살리거나 다수를 위하는 일이여야 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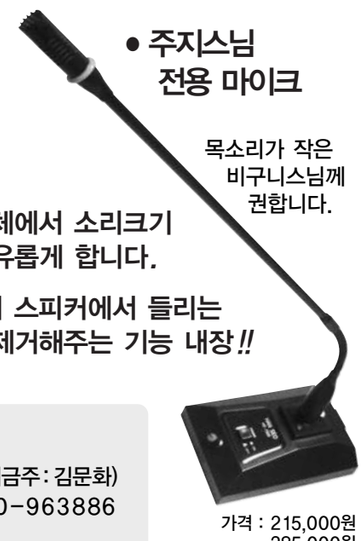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90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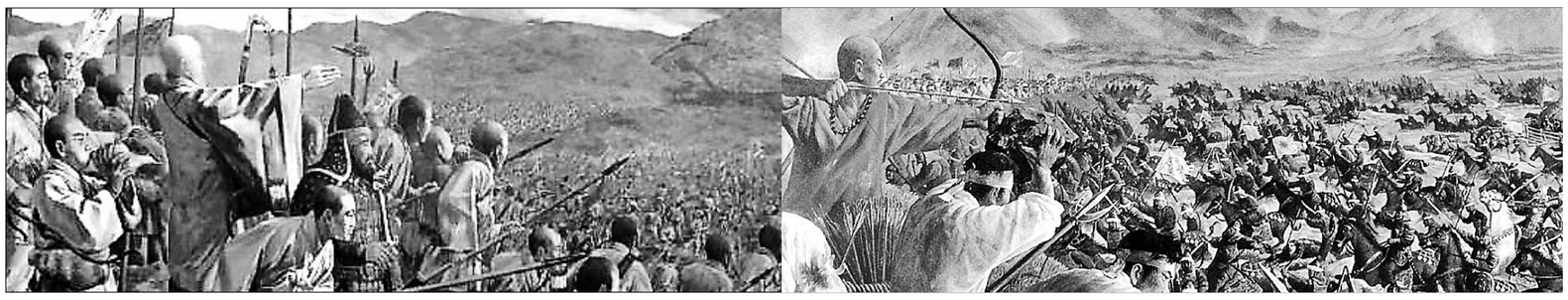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8월 중
◆ 개강일시 : 2015년 8월 중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불교에 대한 국가인식 바뀌었나?



"총섭제도 등 위상 변화 있었다"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조선왕조실록 기록 및 승려 비문과 문집을 살펴보고 양란 이후 국가차원에서 불교에 대한 효용성 인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양란 이후 총섭제도를 통해 승단은 국가 통제권이 들어가게 됐다. 총섭제도는 군사조직으로서 종교적 의미에서 본다면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승려들이 국가적인 질서 안으로 편입된 점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도 바뀐다. 승려 비문이 유학자들에 의해 씌이고, 또 이 무렵 배불상소 또한 현저하게 줄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세기 이후부터는 승려들은 호적에도 등재돼 백성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원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현존하는 많은 사찰 건축물들이 이때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역으로 불교계의 정치활동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선 전기에는 많은 승려들이 중앙 정치무대로 찾아가 고려시대처럼 불교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양란 이후 불교계는 중앙진출보다는 지방 산중에 거처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불사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는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고 불사를 통해 불교를 발전시키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러한 모습이 중국과 일본과 다른 특색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조선 후기 전통이 오늘날 한국불교와 직결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고려시대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던 승려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수행했다. 보다 현실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순천대 HK 교수

양난 이후 불교계 변화와 동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불교계는 호국불교라는 기치 아래 의승군 활동을 벌였다. 이 양난 이후 불교계는 안팎으로 크게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이를 두고 사회 활동에 따른 유학자들과 국가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주장과 여전히 억불정책은 계속됐다는 주장이 8월 15일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남양주 봉인사에서 연 제7회 광해군 추선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산성 축조 등에 이용한 것일 뿐"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고 교수의 논점을 반박했다. 이 교수는 "억불정책을 지속하고 하지 않고 한 것은 군주의 성향과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억불정책은 지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승려를 군인으로 동원키 위해 국가로부터 그럴 듯한 직함도 받고 대우도 받았으나 전란이 끝나자 곧 성 쌓는 데 동원됐다. '총섭'이라는 허명의 직책을 제수하며 불교를 악용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특히 산성 축조와 경비에 승려들이 동원된 점을 억불정책의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전란 이후 산성축조에 전국사찰에서 1년 6회 700명이 차출됐다. 그 제반경비 조차 사찰과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 출신 속가의 재산까지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이 부역을 피하기 위해 다른 승려를 고용하는 번전제도가 생기고 이 제도가 갑오경장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양란 이전보다 유학자들이 쓴 승려 비문의 양적 증가가 불교계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주장에 대해 "승려 비문의 양적 증가는 비문의 양적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승직 제수 등이 늘어났거나 양란 이후 승려의 사유재산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양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 내내 불교의 역할은 국가의 제례와 능원과 서원의 수호, 표충사 관리 등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양란 이후 사찰 주체 수륙재 개설이 늘어며 왕실과 민중의 마음을 보듬는 종교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인다"며 "한국불교사의 주체를 소수의 출가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부대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연구교수

"불국사 다보탑, 3층 아닌 2층이다"

최민희 박사, 신라사학회 학술세미나서 주장

세계유산에 등재된 불국사 다보탑은 전형적인 신라석탑과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닮은 탑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런 다보탑을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4층설과 3층설 등 다양한 양식 해석이 있어왔다.

최민희 박사(경주 화랑중 교사)는 8월 22일 경주대에서 열린 제147차 학술발표회에서 '균제와 착시로 본 불국사 다보탑의 층수'를 통해 다보탑 양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였다.

최 박사는 "다보탑은 기단을 비롯한 아래는 사각형이며, 중간부터 상륜부까지 팔각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석가탑과 차이를 보인다. 불국사에서는 석굴암과 달리 비대칭을 우선으로 하여 다보탑은 2층으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이어 "지대석과 기단, 그리고 탑신부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추출해 보면 2층탑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갖가지 장엄으로 화려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라며 "2층탑임에도 3층이라는 오해를 불러온 이유는 3층탑인 석가탑과 대칭으로 보이도록 조성한 까닭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박사는 또 "이러한 의도적 조성은 불국사 대웅전과 극락전 앞쪽 가구식 석단에서도 사용된다. 대웅전 석난간은 2층으로 극락전 석난간은 1층으로 조성하여 극락전이 2층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착시 현상을 유도한 것일까. 최 박사는 입체적인 미를 위한 의도적 설계라고 해석했다.

최 방사는 "불국사와 석굴암에는 수많은 대칭과 비대칭을 통한 통일성인 '균제'가 사용됐다. 하지만 이러한 균제가 미적으로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은 군데군데 섞여 있는 '파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종립학교서 불려진 '항일 학도가'

노동은 중앙대 명예교수, '불세존기념창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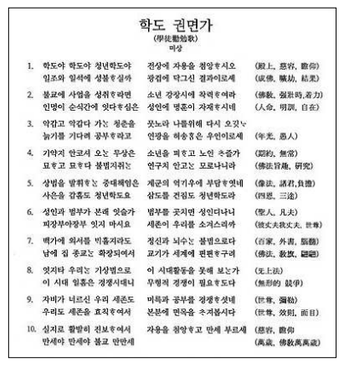
일제시대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불려진 일본의 조선 침략에 항거하는 내용의 '항일노래'가 공개됐다.

노동은 중앙대 명예교수는 8월 13일 1910년대부터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불려진 '학도권면가'를 공개했다. 학도권면가는 청소년들에게 권학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소년 학도로서 부처님을 본받아 공부에 힘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교수는 "권상로 스님과 김지순 스님이 1911년 3월 조선총독부 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발행한 〈불세존기념창가〉에 나오는 학도권면가"라며 "이번에 발굴한 〈불세존기념창가〉는 불교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창가집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교수는 "1920년대에도 이 곡이 계속 불렸다. 항일노래로도 활용됐다"며 "학도가 노래 곡조에 학도권면가 가사를 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교수가 발굴한 〈불세존기념창가〉는 '열반일 기념가' '성도일 찬송가' '탄신 경축가' '학도권면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1911년 3월 20일 교과용도로서 허가돼 전국 불교계 학교에서 도서로도 활용됐다.



학도 권면가
(學徒勸勉歌)
마상

1.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권상여 자용을 청장후지오	(靑上, 壹兒, 歡你)
	심조와 일석에 성불후실아	정점여 덕그신 결과아로세	(或惠, 賜加, 結果)
2.	불교에 사업을 성취후라면	소년 강장시여 착력후여라	(佛敎, 成就時, 着力)
	인명이 순식간에 엿더후실은	생한여 명존이 자재후지네	(人命, 瞬訊, 自在)
3.	악갑고 악갑다 가도 청춘을	못노아 나올위해 다시 오깃누	
	늙기를 기다려 공부후랴고	인생을 허송후은 우인이로세	(年老, 愚人)
4.	기약지 안코서 오는 무상은	소년을 피후고 노인 추즐가	(期約, 無常)
	묘후고 묘후다 풍법거취는	연구치 안고는 모로나니라	(佛法皆趣, 硏究)
5.	상법을 발휘후는 중대책임은	제군의 억기우에 부담후엇네	(像法, 活君, 負擔)
	사은을 갑흘도 정년학도요	삼도를 건질도 청년학도라	(四恩, 三途)
6.	성인과 범부가 본래 엇슬가	범부를 곳치면 성인디나니	(聖人, 凡夫)
	피장부아장부 잇지 마시요	세존이 우리를 소겨스리라	(彼丈夫我丈夫, 世尊)
7.	백가에 외서를 박출하라도	정신과 뇌수는 불멸으로다	(百家, 外書, 駁撥)
	남녀 집 종교는 확정되여서	교기가 세계에 편편후구려	(佛法, 敎旗, 翩翩)
8.	엇지타 후려는 가상법으로	이 시대활동을 못해 보는가	(无上法)
	이 시대 일홈은 경쟁시대니	무형적 경쟁이 필요후도다	(無形的 競爭)
9.	자비가 너르신 우리 세존도	머릭과 공부를 정성후셧네	(世尊, 彌勒)
	우리도 세존을 표지후여서	본분에 면목을 추저봅시다	(世尊, 效則, 面目)
10.	십지로 활발히 진보후여서	자용을 원만후고 만세 부묘세	(歷劫, 勝妙
	반석아 반석아 불교 반만세		萬歲, 佛敎萬萬歲)

이날 노 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옥중가 등 '항일노래'도 함께 공개했다. 노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독립운동가와 혁명가들이 부른 '항일노래' 100여곡 수집해왔다. 노 교수는 기존 발굴 250곡에 이번 100여곡을 보태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항일음악 350곡' 노래집을 펴낼 예정이다.

한편, 중앙대 국악대학장을 지낸 노 교수는 '음악기학' 등 400여 편의 국악 관련 논문과 〈한국근대음악사〉 등 30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선연구소, 印아시아학硏과 심포지엄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소장 진월)는 8월 13~14일 인도 아시아학연구소에서 '보리달마'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와 인도 아시아학연구소의 교류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인도 정부의 지원과 중국의 소림사, 일본의 세계보리달마협회, 홍콩의 보리달마보편연합, 모리셔스의 타밀디아스포라국제협회 등 18개국 8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장 진월 스님의 '한국의 보리달마 유산과 영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차문화연구소의 선차 시연, 보리달마의 고향인 칸치프람과 중국행 포구였던 마하마르프람 등 문화유산 답사로 진행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장 진월 스님은 "앞으로 선연구소와 아시아학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고 국제 학술교육 협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약탈 문화재 반환에 남북 공조 시작

남북 불교계가 일제강점기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8월 17일 "오는 26일 개성에서 조선불교도연맹측과 만나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조선대원수 투구와 오쿠라문화재단 율리사지 석탑 반환을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문제는 현재 일본의 도쿄간이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9월 17일 제 2차 조정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혜문 스님을 비롯한 남측불교계와 북한 조불련 측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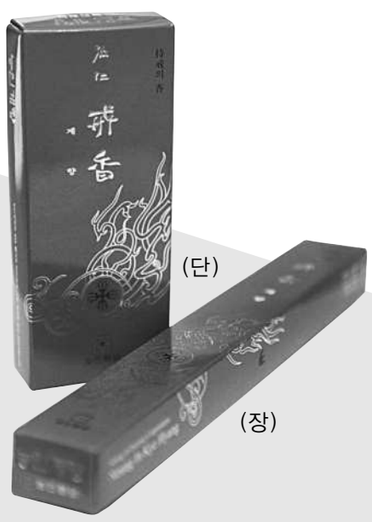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제1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법음범패 학인 모집

본 대학원 법음범패 1년 과정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법음범패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

중급과정(법음, 범패) 1년 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강주 : 일관스님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 054-262-1117(보경사 종무소)
010-9361-5566(일광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불교계 힘모아 아시아 문화축제 연다

금산사 · 마주협 등 10월 18일 전주서 개최

국내 체류 이주민이 1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교계가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아시아문화축제를 연다.

아시아문화축제 '다꿈어울림한마당' 조직위원회(위원장 성우 · 경우 · 진오)는 10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아시아문화축제 '다꿈어울림한마당' 을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문화축제는 그동안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가 진행해오던 다문화축제를 전국단위로 확장한 것으로 호남불교계가 주축이 돼 개최하게 된다.

축제에는 착한 벗들, 광주외국인인력지원센터, 꿈을이루는사람들, 지구촌공동회 등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며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9개국 이주민 2000여 명이 참가한다.

'화합을 넘어 융합으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 문화축제에는 전통과 문화로서 한국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동아시아 불교의 다양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각국의 불교문화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 한국의 사찰음식을 비롯해 아시아 참가국들의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한지를 이용한 한국전통의상과 아시아 각국 의상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밖에 외국인 법당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과 종교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이주민들이 한국불자들과 함께 경기하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배구대회와 게임을 즐기는 명랑운동회,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이번 아시아문화축제는 지난 2008년부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수도권에서 개최해왔으나 올해부터 사찰이 주도해 전주에서 개최하게 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아시아 문화축제는 이주민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로 진행된다"며 "불교가 이주민 복지분야의 선두주자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불교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주요인사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행정, 정치, 시민사회에 대한 전북불교계의 역량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불자의 자긍심과 단합을 촉진하여 전북불교계의 변화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정사 "각종 규제 올림픽특구 포기"

정부 상대 '의궤' 반환 서명 운동도 전개

평창 오대산 월정사 일대의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특구 건폐율 등 제한조치에 강원도와 평창 월정사가 반발하고 있다. 평창 월정사는 강원도와 함께 일반사업으로 기존 특구 개발 계획안인 '자연 명상마을' 조성 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지정 권한을 가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8월 23일 동계올림픽특구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도가 제출한 건폐율 30%가 15% 이하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월정사는 강원도와 특구 지정 후 자연생태 역사 · 문화자원과 명상을 융합한 마을을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힐링 명소' 로 가꿀 계획을 수립했다. 월정사–상원사 구간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친환경적 운송수단을 활용하며, 일대를 재정비해 청정지구로 변모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중도위 특구안으로 자연 · 명상 타운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분석이다. 건물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관련 시설 건립이 불투명해졌다. 중도위의 특구안에 따르면 자연 명상 · 문화체험지구 기반시설인 대형주차장 건설도 불가능하다. 월정사와 강원도 측은 당초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며 주변 기존 상가건물을 정비하고 문화체험지구를 집적화하려 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독일올림픽위원회가 오대산 자연 명상 · 문화체험지구를 올림픽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할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자연명상 · 문화체험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특구 지정보다는 도와 함께 원래 계획대로 지구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구 취소 후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면 개별 중앙부처를 상대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착공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월정사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강릉 오죽헌 · 시립박물관 입구에서 오대산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찾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특별전이 끝나는 31일까지 지속된다.

월정사 측은 "원래 월정사에 있던 소중한 문화재가 102년 만에 돌아왔지만 전시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올림픽을 기치로 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의궤가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월정사 봉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황사 석가여래삼불좌상 전남문화재 지정

전남 해남군은 미황사와 약수사 유물 4건이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8월 13일 밝혔다.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22호로 지정된 해남 약수사 불교전적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보살만행수능엄경 권1~4(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四)' 등 7책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귀중 희귀본 불서로 문헌학적으로나 불교사상사적 측면에서 귀중한 자료임을 인정받았다.

제323호 해남 미황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 삼존불로 조선후기 17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불상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제324호 해남 미황사 목조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일괄은 조선후기 제작된 지장보살상을 비롯해 시왕, 판관, 녹사 등 36구의 조각상(명부전 봉안)으로 17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제325호 해남 미황사 목조 석가여래삼존상과 나한상 일괄은 조선후기 제작된 석가여래삼존상과 십육나한상을 비롯한 26구의 조각상(응진당 봉안)으로 18세기 중엽을 대표할만한 상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남군은 국가지정문화재 35점,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42점 등 총 77점을 보유하게 됐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신규자원 발굴과 지정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산재한 불교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323호 해남 미황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

금산사 '부모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금산사(주지 성우)와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8월 13~14일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가 참여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가족, 사랑, 소통'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7명과 보호자가 참여했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은 숲속 걷기 명상, 가족과의 대화, 나를 깨우는 108염주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한 참가 청소년은 "고요하고 차분하게 보낸 하루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사업인 템플스테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성을 순화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 하계수련회

전주 우리는선우(회장 김진철)와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곽인순)는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 (전주 소년원) 불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8월 10~11일 열린 이번 하계수련회에서는 풍선아트와 전통놀이를 체험과 명상체조, 찬불가 배우기, SATI 수행법 배우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 학생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실수 안하고 잘 지내고 싶다"며 "사회에 나가면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에서 배운 미용기술을 살려서 미용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 배월희 선생님은 "불교 수련회를 통해 상처투성이인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살아가는 내내 긍정의 에너지로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좋은 우리절, 청소년 심리치유 캠프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참좋은우리절에서 단조로운 학교생활과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심리치유캠프' 를 진행했다.

이날 캠프에서는 진로상담 전문교사인 정수홍 씨가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선택을 위한 상담을 진행해 청소년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좋은우리절 명상나눔단 지도법사 무근스님은 "내년부터는 청소년심리치유캠프에서 얻은 여러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인성프로그램과 접목하여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 청소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동구 태고종 보현사 개원

광주 구도심인 동구지역에 포교당이 개원했다. 태고종 보현사(주지 법정)는 8월 18일 동구 지산동에 법당과 요사공간을 마련하고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선암사 회주 금용 스님, 주지 설운 스님, 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보응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도량을 훌륭히 만드는 것은 참여대중이 성심을 다해 삼보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집을 짓거나, 시주하는 공덕이야말로 중생이 쌓을 수 있는 공덕 중 가장 수승하다"고 강조했다.

법어에 앞서 주지 법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도량을 만드는데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이 가득한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한 보현사는 무등산자락의 시작하는 주택지역으로 대지 100여 평에 30평의 철구조물조립식 형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피난민 아픔 위로하며 이웃과 함께한 60년

정수사, 창건 60주년 맞아 사지 〈부산 시민과 함께 한…〉 발간

호국영령 위로하는 영가 기도 진행
무료급식소 '기쁨의 집' 운영도



정수사 사지 〈부산시민과 함께 한…〉의 표지

부산 정수사가 위치하고 있는 용두산은 한국 전쟁 이후 몰려든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형성했던 곳이다. 하지만 1954년 대화재로 판자집들이 전소되면서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우범지역으로 변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련 공무원과 경찰들은 당시 범어사 조실이던 동산 스님을 찾아가 답을 구했고 스님은 부처님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하면 부산 불교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답해준다. 따라서 1956년 대승불교회가 세워졌고 이후 대승선원이라는 명칭을 거쳐, 성철 스님이 명명해준 현재의 정수사로 거듭나며 순국 영령들을 위한 영가기도와 무료급식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해 왔다.

도심포교를 위해 매진해온 정수사(주지 일준)가 창건 60주년을 맞아 사지(寺誌)를 발간하고 9월 22일 법요식을 갖는다. 이에 정수사는 8월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지 〈부산 시민과 함께 한 정수사 60년의 이야기〉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정수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주지 일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주지 일준 스님은 "부산 시민과 함께 해온 60년을 밑거름으로 삼고 '봉사하는 정수사, 열린 정수사'로 자리매김하며 개산 100주년의 초석으로 삼고자 부족함을 무릅쓰고 정수사 사지를 발간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책 〈부산 시민과 함께 한 정수사 60년의 이야기〉는 동산 대종사와 성철 스님의 중생제도 원력이 깃든 정수사의 역사와 현황을 총 정리한 내용으로 △용두산과 정수사 창건 △정수사의 정신적 기둥-동산 큰 스님과 성철 큰 스님 △정수사의 역사 △함께 하는 행복과 기쁨 △나를 채우고 비우는 법회와 기도 △열린 정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지 일준 스님은 "공식적인 기록문서가 없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중요한 도량으로 그 가치를 조명하고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 책을 편찬했다"며 "특히 사숙이신 원택 스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많은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 책은 백련불교문화재단의 법보시로 제작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일을 해낸 주지 일준 스님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평소 스님의 안목과 열정으로 정수사를 더욱 빛나게 하여 활기찬 문화 공간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사는 1956년 대승불교회라는 이름으로 상량식이 봉행됐고 이후 대승선원을 거쳐 성철스님이 지어준 현재의 정수사라는 이름으로 대중과 함께해오고 있다. 특히, 8·15 광복 이후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부산 경남 출신 무연고 전몰 및 순직 경찰관 영령들의 위패를 모셔 지금까지 호국 영령을 위한 영가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관음기도와 참회 및 절기도도 끊이지가 않는다. 또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도량으로 백팔대참회, 능엄주, 아비라 기도, 3천배 등 수행정진도 이어오고 있다.


정수사 주지 일준 스님(왼쪽)이 원택 스님에게 정수사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성철 스님의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1991년부터 용두산을 찾는 노숙자 및 걸인들을 위해 음식을 나눴으며 1999년 6월 19일 무료급식소 '기쁨의 집'을 본격적으로 개원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현재 기쁨의 집에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400여 명이 이곳을 찾는다. 봉사자만 해도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0여 명의 자원봉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지 일준 스님은 앞으로 '봉사하는 정수사, 열린 정수사'로 자리 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정수사는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 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산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법당을 찾고 참배를 하고 있다"며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어 외국어로 표기된 정수사 소개 및 참배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벽화와 탱화 불사와 전통 가람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지붕 불사도 진행해 사찰의 격에 맞는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정수사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와 부산을 대표했던 용두산의 위상에 어울리는 사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새롭게 편액을 새기고 로고도 제작했다.

일준 스님은 "옛날에는 용두산의 이름이 부산이었다. 부산을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를 담은 곳이니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부산 정수사(釜山 正修寺)'로 새롭게 편액을 새겼다"며 "로고는 성철 스님의 친필 원상 안에 가마솥 뚜껑을 넣어 제작했다. 개산 100년을 넘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이어 가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한편, 정수사는 오는 9월 22일 오전 11시 원택 스님을 비롯한 성철 문도 스님과 부산에서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스님 및 내빈을 모신 가운데 '정수사 창건 60년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한다. 하성미 기자

동산 대종사 추모사진집 '감인대' 봉정

열반 50주년 맞아 300여 장 흑백사진 담아

한국 불교 정화 운동의 초석을 다진 동산 대종사의 사진집 〈감인대〉(堪忍待)봉정식이 열렸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는 8월 15일 범어사 대웅전에서 동산 대종사 추모 사진집 봉정식을 봉행하고 사진집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봉정식을 거행, 일제시대 흔들렸던 수행 가풍의 면모를 회복하고 현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한 동산 대종사 삶을 더욱 뜻 깊게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의원 정관 스님, 명선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동산 대종사의 제자인 선래 스님, 대성 스님과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불 스님은 "금정총림 범어사의 청정 수행 가풍 회복을 위해 정진한 동산 대종사의 유훈을 저희 사부대중이 화합과 배려 속에 계승할 수 있도록 대자대비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한다"며 고불문을 낭독했다.

문도를 대표해 금정총림 범어사 전계사 정관 스님은 "광복 7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아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 동산 스님과 관련한 불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산 대종사 추모 사진집 봉정식 장면

새롭게 발간된 사진집 〈감인대〉는 동산 대종사 열반 50주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기획한 것이다. 사진집에는 동산 스님의 일상, 수행 이야기 및 정진, 한국불교의 역사를 포함해 300여 편의 흑백 컬러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편, 범어사는 동산 스님의 열반 50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며 동산 스님의 사진을 전시하고 일반인들에게 전달해 감동을 안겨주었다. 전시회 후 범어사는 선래 스님의 앨범, 법안 스님이 보내온 '덕명 스님 사진첩', 그리고 석공 스님이 30여 년간 모아온 사진 자료를 수집 정리해 사진집 〈감인대〉를 발간했다. 하성미 기자

미타선원 애니어그램 명상상담 강좌 진행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2015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으로 '애니어그램에 기초한 고집멸도 명상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부산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미타선원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명상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교육 일정은 9월 7일~9일이며 강사로는 주지 하림 스님(명상심리상담지도자)이 직접 나선다.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명상심리상담사 자격연수 수료증을 받는다.

미타선원은 "주지 스님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주중에 교육 시간을 기획했다"며 "특히 연수 내용이 명상이어서 신행 상담에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활용가치가 높아 스님들께 더욱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강의 내용은 △성격유형 검사와 애니어그램이란 △불편한 경험 나누기(苦) 등이다. (051)253-8680 하성미 기자

환희불교복지대학, 호스피스교육과정 모집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희사를 실천하고 있는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이 제34기 호스피스교육과정을 모집한다.

교육은 9월 15일~11월 27일 2개월 진행되며 매주 화, 금 오후 2시~5시에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료 후에는 수료증 수여, 봉사활동 지원 및 유급활동도 아울러 지원한다.

환희불교복지대학은 "1999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456명이 졸업하여, 약 400여 명의 호스피스가 복지시설에서 활동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4기 호스피스교육과정 개강을 기념해 환희불교복지대학은 9월 15일 오후 2시 환희노인요양원 5층 강당에서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의 '화(火)를 다스리는 비결'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051)203-9436 하성미 기자

대구 불광사 영산대재 및 만발공양 개최

8월 14일 경내 만불보전서

대구 수성구 욱수동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 은해사 주지)은 우란분절을 앞두고 8월 14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영산대재 및 만발공양을 봉행했다.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소임 스님들과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 한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부산무형문화재 청하 스님외 2인 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이날 동참 신도들은 육법공양과 함께 은해사, 불광사 대중스님들에게 음식을 올리는 만발공양과 40여 벌의 승복을 지어 헌공하는 의식을 통해 여름안거중인 스님들의 건강과 원만한 수행정진 성취를 발원했다.

경북불교대학 학장 돈관 스님은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께 올리는 갖가지 공양을 만발공양이라하는데 이는 만개의 발우라는 뜻으로 수많은 공양을 의미한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한 수행자를 보호하는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여의고자 한다"며 만발공양의 의미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은 8월 14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영산대재 및 만발공양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육법공양 모습.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불사추진위원장 김홍중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기 알면 욕망도 개인 아닌 공생 위해 발현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⑭ 근두운을 타고 술법을 부리는 손오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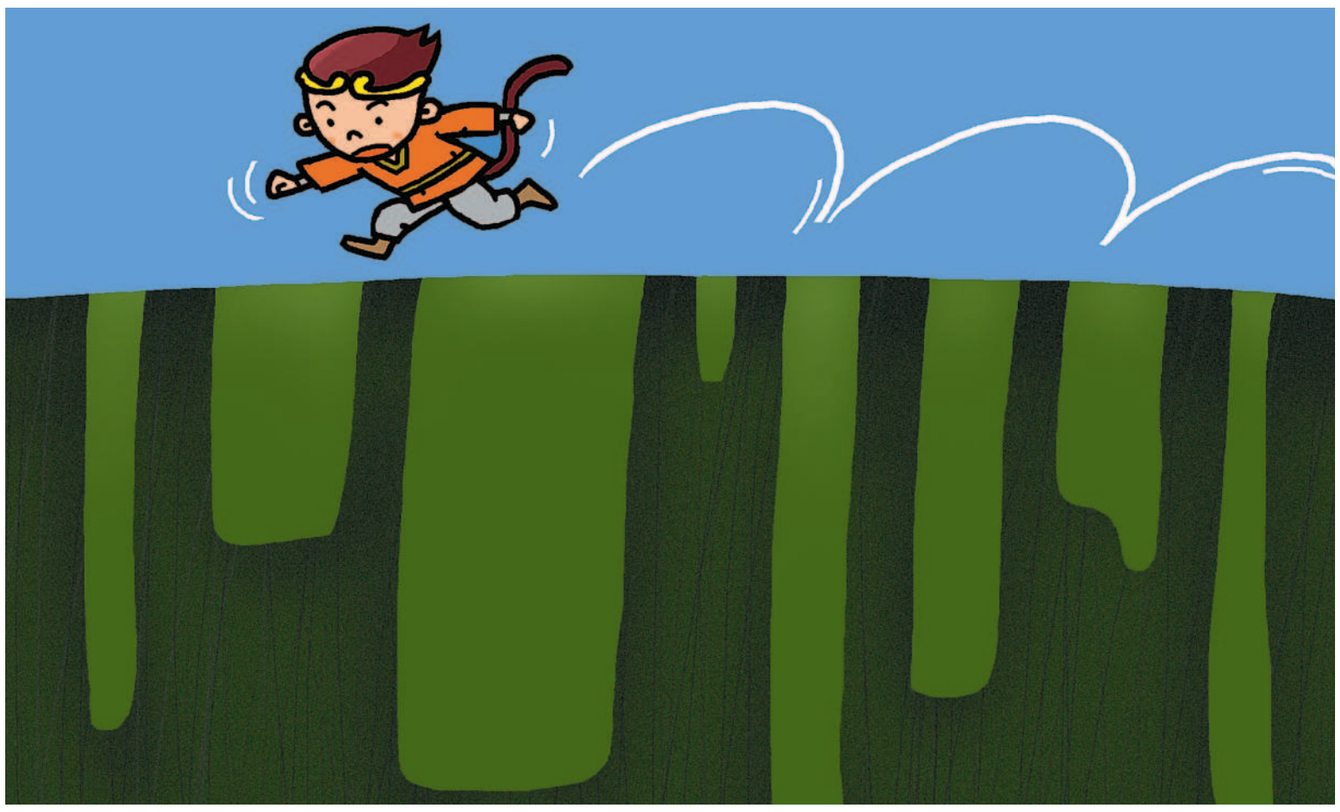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전 주에 금단대도, 즉 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수양법을 이야기했죠? 수보리 조사가 전한 불로장생의 비법이라는 것이 금단대도라면 수보리 조사라는 이름이 좀 안어울리죠? 수보리는 우리 불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부처님의 십대제가 가운데 공(空)의 이치에 대해 가장 깊은 깨달음을 가진 제자, 즉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와 혼동이 되어서 말이죠. 금강경 읽으면 바로 수보리 존자 등장하시잖아요? 그 수보리존자하고 이름은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서유기의 저자는 아마도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서유기는 불교와 도교를 적절하게 뒤섞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금단대도를 배우면 부처도 신선도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불교와 도교를 그렇게 어중간하게 뒤섞을 생각은 없습니다. 가릴 수 있는 데까지는 가려보려구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도교는 인간의 욕망의 궁극인 불노장생을 꿈꾼다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색채가 적죠. 부처님의 일화 하나 소개드릴까요? 장로니게경(長老尼偈經)에 나오는 일화지요.

'키사코타미(Kissagotami)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잃고 거의 미친 상태에서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에게까지 찾아오게 되고, 애절하게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은 그녀에게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한다. 그런데 그 겨자씨는 반드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타미Gotami는 마을로 달려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이를 묘지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도시에서도, 신들의 세계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진리, 참된 진리는 무상함, 덧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담은 게송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겨자씨를 얻었느냐고 물어보자 자신에게 이미 겨자씨는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해주신 부처님께 예경하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육체적인 영생에 대한 지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노장생을 꾀하는 도교와는 근본적으로 지향이 다르다 말할 수 있지요. 물론 불교도 기복적인 요소를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 인간의 욕망 성취를 약속하는 세속화의 모습을 띄게 되지만, 애초부터 불로장생을 꾀하는 도교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교는 본디 목적부터가 수명을 늘리고 신선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 수많은 인간의 욕구를 달성하려는 방편들을 무수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술법이라든가 비법 등이 적극적으로 연구됩니다. 부적술, 강신술, 방중술, 기타 등등 . 이런 점들도 불교와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지요. 불교는 이런 요소들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물론 불교의 말기 형태인 밀교에서는 매우 많은 술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지만 불교 일반적으로는 초능력이라든가 술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육신통(六神通)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수행의 과정에 나타나는 힘일 뿐, 그것 자체에 대한 추구가 목적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우기 여러 가지 술법들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엄하게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술법이나 신통 등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불교는 역시 세속화되고 타락한 불교의 모습일 뿐이며, 어느 정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와 도교의 차이점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 두고요. 여기 이야기의 초점은 손오공이 배운 것은 도교적인 수행법과 술법이라는 것입니다. 수행법은 금단의 술이라 한다면, 술법은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72가지의 술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72지살에 해당하는 술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기엔 둔갑술, 분신술 등의 여러 술법이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슈퍼 맨, 스파이더 맨 등의 초인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을테죠. 하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특별한 술법 하나를 배웁니다. 손오공의 술법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바로 바로 '근두운' 이라는 구름타는 술법이죠. 애초에

재주를 바라는 욕망은 '고'(苦)
서원이 삶의 동력될 때 '행복'
연기의 가르침으로 정진해야

구름타는 술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수보리 조사가 그게 구름을 타는 거냐, 구름에 기어오르는 거냐 비아냥대면서 제대로 된 구름타기를 가르쳐주는데, 바로 그게 근두운입니다. 한번 공중제비를 돌아 뛰어오르며 구름을 타면 단숨에 십만 팔천리를 날아갈 수 있는 술법인 거죠. 요즘의 거리로 한번 환산해 보실래요? 1리가 4km 니까, 108,000 × 4 = 432,000,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432,000km를 갈 수 있는 것이군요. 흠! 나칠계님~, 눈이 반짝 반짝 하시는 게 혹 그런거, 아니 그런 재주의 백분의 일이라도 가르쳐주는 도사 찾아서 나서실 기세! 참으세요! 이런 신통한 재주 가졌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적이 없고, 그런 재주 찾아다닌 사람 잘되는 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당신이 고루과문한 거지 정말 그런 재주 가진 도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구요? 애고~ 앞에 이야기 좀 읽어 보세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 했잖습니까요. 그런 재주를 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라구요. 그리고 그런 재주 하나 가진 것은 남이 가지지 않은 어떤 신기한 기구나 도구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재주를 탐내는 것은 결국 남 안가진 신기한 물건 가지려는 탐욕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의 추구가 행복을 가져올 턱이 있나요? 하나 가지면 또 하나 가지고 싶은 끝없는 욕망의 계속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욕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탐욕의 끝에는 언제나 괴로움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구요.

흠~ 삼쾌선생은 너무 고상한 척 하는게 문제라구요? 탐욕을 벗어나라고만 하면 어쩌냐구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us!" 이런 말은 못들어봤냐구요? 헤헷, 제가 왜 못들어봤겠어요. 저도 무조건 욕망 버리라는 것엔 동의 못해요. 삶의 동력을 잃게 되면 큰 일 나죠. 그렇지만 탐욕이라는 것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 또한 분명하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어쩌라는 말이냐구요? 앞에서 이미 말씀 드렸죠? 서원(誓願)이 중요하다구요. 탐욕에 의해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서원이 삶의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탐욕과 서원은 무엇이 다른가가 문제겠네요. 탐욕은 열심히 버리고 서원을 열심히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적인 정신과 어그러지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했듯이, 탐욕과 서원도 둘이 아닙니다. 아상(我相)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끌어 당기려 할 때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연기(緣起)의 진리를 알게 되면 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와 너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 그것이 무한한 연기성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 나만을 위하던 욕망이 너와 사회와 국가와 나아가 온 중생이 모두 잘되는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불교는 아직도 무조건 욕망 버리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대로 사홍서원은 절에 와서나 크게 노래하고, 세속에 나가서는 그저 욕망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불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애고~ 저의 모습인 것을 모든 불자님들의 모습으로 확대하지 말라구요? 알았습니다. 사홍서원 큰 뜻 세우시고 불퇴전의 길을 가고 계신 많은 도반들께 합장! 그런데 문제는 손오공이네요. 아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없는 상태, 그저 불노장생이라는 세속적인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는 손오공이 수많은 재주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이건 분명히 재앙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가 힘을 가졌을 때,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 위험성은 남을 해치는 것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을 해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옛말이 있어요. "사람은 죄가 없지만 보물을 가진 것이 죄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진귀한 보물을 가진 자는 밤에 나다니지를 말아야하고, 큰 임무를 맡은 이는 적을 가볍게 보지를 말아야 한다"(懷重寶者, 不以夜行; 任大功者, 不以輕敵 - '戰國策'). 재주를 가진 것은 바로 보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재주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게 마련이지요. 그 재주를 통해 자신을 살찌우고 변화시키는데 힘을 쓰기보다는 남들에게 자랑부터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탐내는 이들에게 해를 당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수보리조사는 우선 이점을 크게 경계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가 분명 앞으로 이 재주로 큰 난리를 일으킬 것이다. 만약 이 재주가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알려지면 나도 그 재앙에 휩쓸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문하에서 축출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자가 재주를 지니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위험성은 손오공이 문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는 데서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쓸데없이 자기 재주를 자랑하는 이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배움'(爲己之學)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배움'(爲人之學)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이건 〈논어(論語)〉에 나오는 공자 말씀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존재는 애시당초 도(道)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좀 괜찮은 제자로, 차분하게 성장하기를 바랐던 제자가 촐랑 촐랑 배운 재주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스승은 크게 상심할 수 밖에요.

그 결과는 가르침의 중지입니다. 더 이상의 가르침을 내린다는 것은 서로 간에 재앙을 더할 뿐이죠. 그래서 벼락같이 야단을 쳐 내쫓아 버립니다. "네가 이곳을 떠나면 반드시 옳지 못한 생각을 낼 것이다. 그러니 어떤 재앙을 일으키고 어떤 못된 짓을 한다 해도 결코 내 제자란 소리를 해선 안된다"하는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서요.

흠~손오공,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건가요? 그렇지는 않군요. 그래도 막강한 도술 원숭이가 된 거니까, 애초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한 셈이지요? 그러니 이제 고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체면 구길 정도는 훌쩍 넘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왔던 길을 근두운 타고 한번에 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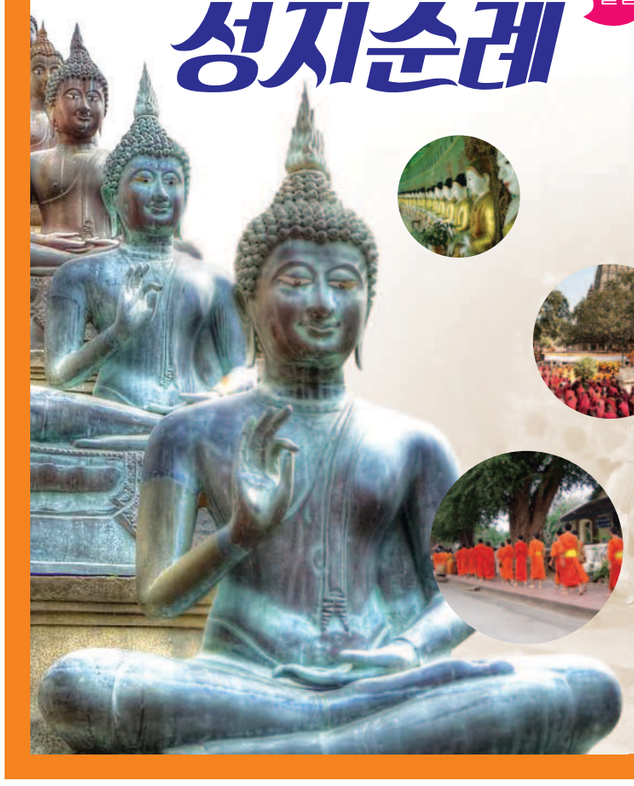
다음 시간에는 고향 돌아간 손오공의 빛나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겠죠? 기대하시라~~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출발일 : 11월22일	요금문의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10월20일	요금문의
부탄/네팔	8일	출발일 : 12월10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 9월5일,10월17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 12월1일	요금문의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2박(껄로/삔띠야동굴)	7일	출발일 : 11월14일,12월16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마음 속 방해 요인을 어떻게 할까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4. 의식하의 자기의 문제 ㊤

바닥 깊은 곳에 있는 것

마지막으로 그러나 중요한 근본불교의 또 다른 관점에서의 비판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요즈음의 표현으로 한다면 의식하(意識下)의 자기에 관한 문제이다.

아함부(阿含部)의 한 경전은 붓다의 한 제자가 마침내 자살(自殺)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름을 고오티가라고 하는 그는, '방일(放逸)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근(精勤)하면서' 가끔 해탈(解脫)의 심경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다시 퇴전(退轉)하여 번뇌 속에서 지났다. 이런 일을 여섯 번이나 반복한 후에 그는 마침내 스스로 칼을 들고 자살한 것이다. 그 기술(記述)은 오늘날에도 역시 읽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방일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근하는' 자가 그래도 가끔 퇴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이 이유를 찾아서 들어가면 사람은 마침내 자기의 의식 밑의 것에 생각이 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속에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 무엇'이 살고 있다. 그것은 내 가슴 바닥의 밑바닥에 시커멓게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들의 이성(理性)이나 의지(意志)의 손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그것은 그 바닥 깊은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지나 행동을 조정하며 움직이게 한다. 이런 것을 우리들은 자기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끔 이것이 착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또 이것은 행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마음이 끌려간다. 성내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성내는 것은 그 때문이며 술을 마시지 말라고 충고하는데도 마시며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이제 고오티가가 '방일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근' 하면서도 가끔 퇴전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결국은 그러한 내 마음 속의 방해자(妨害者)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하(意識下)의 자기의 문제는 현대의 사상가들도 필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과제이다. 실존주의(實存主義)라고 부르는 철학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과제도 그것이며 많은 문학자들이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도 그것이며, 또 심리학의 분야에서 정신분석이란 것도 이 자기 속의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 밝히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학자나 사상가들 가운데는, 가끔 문제를 처리 하는데 있어 대승불교의 여러 분야를 섭렵하며 거기에서 어떠한 시사(示唆)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은 가장 빠른 시대에 사장 정밀한 사색(思索)을 이러한 의식하의 자기에 대해서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밀한 사색 연구의 결실, 교묘한 처리의 방법은 앞으로도 더욱 깊은 주의를 끌 것이며 높은 평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 대승불교가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게 된 이유도 또한 근본불교의 자기비판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애욕의 흐름은 어디에도 흐르며
넝쿨풀의 싹은 돋아나서 무성하다.
덩굴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지혜로써 그 뿌리를 끊어라

내 그대들에게 착한 것을 가르치리라.
여기에 모인 자는 모두
애욕의 뿌리를 캐어 버리라.
우시라향(香)을 구하는 자는
피라나초(草)를 파내듯이

첫 번째의 구절에서는 나무뿌리를 끊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 지혜로써 덩굴풀의 뿌리를 자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에서는 아름다운 비유의 말로써 애욕의 뿌리를 캐어내라고 가르친다. 거기에 지적된 점은, 모두 인간 심층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의 정밀한 관찰



봉선사 법당의 설산수도상. 석가모니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고행을 했다.

자기 심층의 문제

근본불교도 또한 자기의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방해자(妨害者)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 한 것은 아니었다.

붓다의 가르침은 언제나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갔으며 자기의 심층(深層)에 내려가서 해결한다는 방법적 모색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법구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로 그 특징을 말하여 볼까 한다.

나무뿌리가 손상되지 않으며 견고하면
나무는 잘리어도 또 자라난다.
이것처럼, 애욕(愛欲)의
미혹(迷惑)을 끊지 않으면
여러번 여러번 다시 고(苦)는 생겨난다.

과 분석은 의식의 표면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구조를 분석하여 오온(五蘊)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그 분은 인간의 의식의 작용을 관찰하여 육처(六處)를 세웠다. 또 다시 12연기 (十二緣起)니 사성제(四聖諦)니 하는 것은 모두 의식상(意識上)의 문제에 초점을 두며 인간 생활의 현실과 당위(當爲)의 사유방식을 갖추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팔정도(八正道)를 대표로 하는 실천의 계획에 관해서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견(正見)을 그 기체(基體)로 하는 팔정도의 구성은, 그러한 점을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 올바른 사유(思惟)를 지닌다. 올바른 삼업(三業)을 갖는다. 올바른 생업(生業)에 몸을 둔다. 그리고 올바른 정진을 계속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 생활의 당위(當爲)를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아마 여기에 인간실천의 큰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붓다는 처음으로 그 큰 길을 인류의 세계 속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확립시켜준 사람이었다.

그 큰 길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평범하다. 그러나 평범하다는 것은 결코 저열(低 劣)하다는 뜻도 아니며 쉽다는 뜻도 아니다. 도리어 인간실천의 면에 있어서는 평범하다는 것이 가장 우수하며 가장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여러 번 경험 하였다. 그리고 붓다에 의해서 가르쳐진 큰 길도 역시 그런 것이었다.

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견(正見)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삼업(三業)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올바른 노력을 쌓는 것은 더구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또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는 것이 있어 뜻밖에 그것이 나타나면 모처럼의 노력이 수포(水泡)가 되어버린다. 스승은 언젠가 그 알기 어려운 것을 돌아보며 '지혜로써 그 뿌리를 끊어라' 고 가르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것의 뿌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일까.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관심은 차츰 이 자기의 안에 있는 알지 못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일곱 가지 아내

불교에는 칠처경(七妻經)이 있다. 일곱 가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첫째는 스승 같은 아내요, 둘째는 부모 같은 아내이며, 셋째는 친구 같은 아내요, 넷째는 오누이 같은 아내이다. 다섯째는 원수 같은 아내요, 여섯 번째는 종이나 하인(下人)같은 아내이며, 일곱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아내이다.

하여, 불교 학자나 스님들이 불교 신도를 상대로 강의 할 때 일곱 가지 아내를 자주 등장시킨다. 대개가 전전생(前前生)의 인연까지 끌어들이며 부부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노력한다. 전생(前生)에 착한 인연을 많이 남긴 사람일수록 부모 같고, 스승 같으며 친구 같고 오누이 같은 반려자를 만난다는 설명이다.

지은 업장(業障)이 검은 그림자로 덮여 있으면 금생의 반려자를 만나되, 어쩔 수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여 바라보기조차 싫은 원수 같고, 종이나 하인 같은 있으나 마나한 아내와 남편을 맞게 된다는 구차스런 설명도 늘어놓는다.

이 심한 그 자체가 문제일 뿐.

천사와 악마

강의할 때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엉뚱한 질문을 던져본다. "이 세상에는 천사가 있긴 있는데, 혹시 그 숫자를 아십니까?"

천사라는 말에 힌트를 얻어 1004명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천사의 수는 알겠는데, 그럼 악마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난센스(Nosense)일 수 있는 이 질문엔 대답이 긴 침묵으로 이어진다. "천사가 천사 명이라면 악마 또한 천사 명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지킬과 하이드는 둘이 아닌 하나요, 우리들 맘속에는 언제나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천사와 악마는 둘이 아닌 하나이다. 열려 있을 때는 천사지만 닫혀 있을 때는 악마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식이 바람피울 경우 대개가 쉬쉬 입가림을 하지만, 사위가 바람피울 경우 입놀림이 분주해진다. 시집 간 딸이 바람피울 경우에는 쉬쉬 입조심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며느리가 바람피울 경우엔 사정이 백팔십도로 달라진다.

감정에 따라 대상은 변화한다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닌 하나다

금생(今生)에 더욱 선근(善根)의 씨앗을 뿌리고, 보시(布施)하고, 복을 지어 내생(來生)에는 부모 같고, 스승 같으며, 오누이 같고, 친구 같은,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을 짓자는 투의 기복불교(祈福佛敎를) 풀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곱 가지 아내를 등장시킨 가르침에는 전생(前生)이나 내생(來生)을 중요시하지 않았음을 알아야한다.

금생의 오늘 함께 살고 있는 반려자가 내 행위와 마음가짐에 따라 일곱 가지 아내로 바뀌어가며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같은 아내 한 여자이지만, 그때그때의 상황과 분위기, 마음의 변화에 따라 부모처럼 보일 때도 있고, 스승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다. 감정 변화에 따라 그렇게 좋고 편하던 아내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며 종이나 하인처럼 무시하거나 멸시하고픈 감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러는 아내의 존재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아내 탓은 아닐 것이다. 내 눈높이, 내 감정의 폭의 업다운(Up Down)이 바람피울 경우에는 쉬쉬 입조심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며느리가 바람피울 경우엔 사정이 백팔십도로 달라진다.

사위나 아들은 같은 남자이다. 딸과 며느리도 같은 여자이다. 그런데 감싸 안을 남자가 따로 잇고, 쌍지팡이 짚고 대들 여자가 정해져 잇는 것이다.

자, 다시 이야기를 첫 부분으로 옮겨가자. 천사와 악마가 둘이 아닌 마음 작용의 하나라면, 행복과 불행도 느낌의 차이일 수 있을 터이다. 흔히 종교계에서 떠벌리는 지옥과 천당도 마음의 온도계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자.

쌀독에 반쯤 남은 쌀을 보고도 배고픔과 걱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쯤이 남아 있어 다행이라며 부지런함에 마음의 채찍을 다짐하는 여유도 부릴 수 있을 터이니까. 문을 열면 장안(중국의 옛 서울)으로 길이 통한다(開門卽透長安)는 생각보다는, 문을 열면 곧 장안(開門卽長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는 본시 동, 서, 남, 북이 없는 법이다. 빛과 어둠 또한 둘이 아닌 하나이다. 천사인 당신은 때로는 악마일 수 있고, 악마인 당신은 더러는 천사일 수 있을 테니까.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중국 난개발로 '쫓겨나는' 티베트인

광산 개발과 댐 공사 등 티베트 고원지대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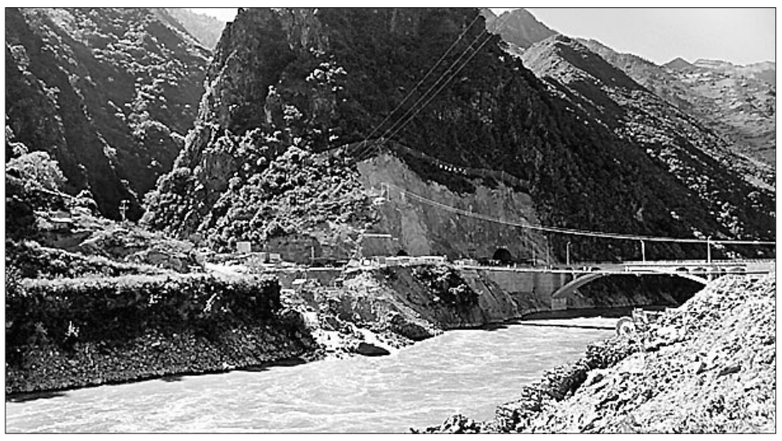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티베트의 산업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ree Press'는 마이클 버클리(Michael Buckley · 캐나다)의 〈Meltdown in Tibet(녹아내리는 티베트, Macmillan 퍼냄)〉에 주목, "티베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산업화 정책이 티베트 특히 고원지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대륙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발간된 〈Meltdown in Tibet〉은 중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의 산업화의 병폐를 고발하며, 티베트에 대한 지구촌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이다. 'Free Press'는 이 책을 인용 "티베트 산업화의 정점은 중국 주도의 광산 개발과 댐 건설"이라고 주목했다.

중국을 등에 업은 광산 개발업자와 댐 건설업자들은 티베트 농부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유목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대규모 개발과 공사로 넘쳐나는 쓰레기들은 강으로 유입되며 물을 오염시키고 때론 태워지기도 해 공기도 오염시키고 있다.

티베트 수도 라싸 인근 훈둡(Lhundrub)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광산 노동자는 "수질과 대기 오염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풀이 자라지 않아 많은 동물들이 굶주려 죽고 있으며, 개발 지역으로 부터 7~8km 떨어진 땅은 메말라 곡물을 재배할 수 없다"며 "이


중국의 티베트 지역 댐 건설 현장

베스트셀러 〈녹아내리는 티벳〉 주목
난개발로 티벳 농부 · 유목민 몰아내
쓰레기 방출로 환경 오염 '극심'
중국정부 '나 몰라라' 태도 고수

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영위해 온 티베트인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반발에는 관심이 없다. 'Free Press'는 "현지 티베트인들은 지역 관할 당국자에게 생계의 원천인 목초지 보호를 호소하며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발음으로 인해 야생 동물들이 놀라 지역을 떠난다는 청원을 했으나 묵살됐다"며 "오히려 지역 관할 당국자들은 티베트인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반대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클 버클리는 "중국 정부는 티베트 자치구가 매년 성장할 뿐 아니라 티베트인 삶의 질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중국 정부는 티베트 자원 개발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반면 농사와 목축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땅은 황폐화되고 있다. 티베트 개발은 가까운 미래에 지구촌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ee Press'에 따르면 마이클 버클리는 티베트 고원지대의 댐 건설은 강 하류 지역의 나라, 특히 그 나라 사람들의 물줄기를 차단해 삶의 균형이 깨질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티베트에서의 댐 건설에 주변국인 인도, 베트남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Meltdown in Tibet〉를 읽은 달라이 라마 역시 "티베트 고원지대의 심각한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이클 버클리의 지적처럼 티베트 고원지대의 난개발은 고원지대에 산재한 빙하를 녹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세계 기후변화를 가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UN 산하 기후변화전문위원회(IPCC)의 보고서에 의하면 티베트 고원지대의 빙하는 2035년 이전에 모두 녹아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중국 정부의 '티베트 산업화' 정책이 이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버클리는 "중국은 힘으로 밀고 들어와 무자비한 개발을 진행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세계 제3극이라 불리는 티베트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파괴된다면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롭상 스님, 85명 아이들 '아버지' 되다

HBO, 8월 17일부터 인도 고아시설 스님 다큐 방영

인도 한 시골 마을에는 85명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스님이 있다.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85명은 대부분 부모를 잃었거나 혹은 버려진 아이들이다.

종교전문지 'RNS(Religion News Service)'는 8월 17일 'RNS'는 "보스턴에서 불교 가르침을 전파하다 오직 고아들을 위해 황폐한 시골 학교로 발걸음을 돌린 스님이 있다"면서 롭상 편속(Lobsang Phuntsok) 스님을 소개했다. 롭상 스님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곳은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Arunachal Pradesh)에 위치한 '잠세이 가살(Jhamtse Ghatsal)'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시설이다. '잠세이 가살'은 티벳어로 '사랑과 연민의 정원'이라는 뜻이다.

미혼모 아래 태어나 버려져
조부모가 불교 사원에 보내
보스턴서 전법활동 중단 후
인도 건너가 고아 돌보기 시작

이곳에서 롭상 스님은 4살짜리 꼬마부터 청소년까지 85명 아이들의 아버지다. 아이들 중에는 고아도 있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 부모가 키울 수 없어 보내진 아이도 있다.

롭상 스님의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이유가 있다. 스님의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스님을 키울 수 없게 되자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조부모가 스님을 구조해 돌보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한 불교 사원으로 보내졌다.

'RNS'는 "이 때가 바로 그가 스님으로서 삶을 시작한 때"라면서 "롭상 스님은 미국에서 몇 년간 불교를 가르치는데 시간을 쏟았지만, 이후 여러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삶을 택하고 인도로 발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롭상 스님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롭상 스님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부터다. 미국 영화채널 'HBO'는 8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이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타샤와 스님(Tashi and the Monk)'를 방영하고 있다.

영화는 영국 영화감독 앤드류 힌튼(Andrew Hinton)과 독일 영화감독 조니 버크(Johnny Burke)에 의해 만들어졌다. 힌튼은 색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소재를 찾기 위해 잠세이가살 근처 마을에 머무르던 중 롭상 스님을 만나 학교를 방문했다.

힌튼 감독은 'RNS'를 통해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매우 묘한 기운이 있었다. 나는 내가 그곳을 다시 찾을 것을 알고 있었다"며 "내가 느낀 형용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청중과 공유하기 위해 이 영화를 강력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힌튼 감독은 잠세이가살을 떠난 후 18개월이 지나 버크 감독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약 3주 동안 머무르며 아이들이 기도 명상 수업 중인 모습, 스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치는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하지만 스님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RNS'는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많은 부모들이 롭상 스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며 "최근 11살 남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스님을 찾아왔지만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롭상 스님은 "아이가 우리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을 만큼 힘든 상황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며 마음 아파했다.

다큐멘터리 제목에 등장하는 5살 여자아이 타샤(Tashi)는 마을 어귀에 버려진 것을 스님이 발견해 시설로 데려왔다. 타샤의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알콜중독자인 아빠는 타샤를 버렸다.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은 스님과 타샤의 이야기를 다룬다.

힌튼 감독은 "불자는 아니지만 잠세이가살에서 진정한 자비와 연민을 봤다"며 "타샤는 친구들과 뛰놀며 스스로 우울한 시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롭상 펀속(Lobsang Phuntsok)스님은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잠세이 가살(Jhamtse Ghatsal)'서 8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출처=RNS〉

中 청두 티벳불교 '상륙'

8월 10일 티벳불교 아카데미

중국이 청두에 티벳불교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China Daily'는 8월 10일 "쓰촨성 지역 남서부에 위치한 청두에 티벳불교 아카데미 건설이 10일 시작됐다"며 "1억 1,600만 위안(한화 약 214억) 예산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보도했다. 건설 자금은 쓰촨성 주 정부가 조달했으며, 7.73헥타르(약 2만 3천평) 부지에 건설된다.

중국 공산당 보좌관 리 샤오샹(Li Xiaoxiang)은 공식 보고를 통해 "쓰촨성티벳불교아카데미는 내년 완공이 목표다. 4백 명 학생이 입학해 3~4년 과정 동안 불교 고전, 티벳 문화, IT와 정치 등 수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hina Daily'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지역에는 2천 1백만 티베트인이 거주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톨레도 지역 포교는 '부부 법사'에 맡겨라

일본불교계 '중심사원'서 3년간 법사 과정 마쳐

린센 · 카렌 와이크, "지역 주민 포교에 노력할 것"

미 오하이오 톨레도(Toledo) 시의 '중심사원(Heartland Buddhist Temple)'에서 이색적인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The Blade'는 8월 19일 "중심사원의 재적신도로 활동하던 와이크(Weik) 부부가 지도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수계를 받았고 대중들은 이를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부부는 린센 와이크(Rinsen Weik)와 카렌 와이크(Karen Weik)로 중심사원 법당에서 오후 10시 30분에 시작된 수계 법회에서 지도법사 자격을 함께 수지했다.

카렌 와이크는 "13명의 선배 지도 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과 함께 계를 받는다는 게 무척 낯선 경험이었다"며 "남편 리센과 함께 톨레도 지역주민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센 와이크는 "중심사원에서 묵조선을 배우고 실수하며 연민과 자비를 배울 수 있었다"며 "포교 현장에서 인종, 성별, 경제력 등을 구분하는 분별심을 버리고 통찰력를 가지고 지역 불교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 Blade'에 따르면 톨레도 시의 중심선원은 묵조선의 가치를 세우고 있는 일본불교계 사찰로, 3년 과정의 지도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활동할 법사를 배출하고 있다. 와이크 부부는 2012년부터 이 과정에 참여해 올해 3월부터 지도법사 마스터 과정을 밟아 왔다.


중심사원 법당서 계를 받는 린센 와이크(Rinsen Weik)와 카렌 와이크(Karen Weik) 부부 모습

이들 부부의 교육을 담당한 멜리사 모이젠(Melissa Myozen) 스님은 "중심사원은 묵조선의 가르침이 통찰과 점진을 실천하는 도량"이라며 "부부가 함께 지도법사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멜리사 모이젠 스님은 "부부의 노력으로 지역에서 불교가 우뚝 서고 그 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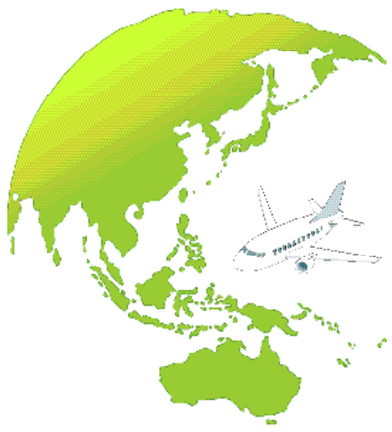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4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 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 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냥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져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맹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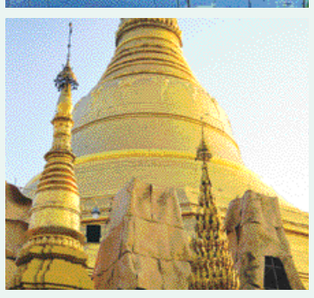
제 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챠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혜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 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 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혜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www.hyunbulshop.co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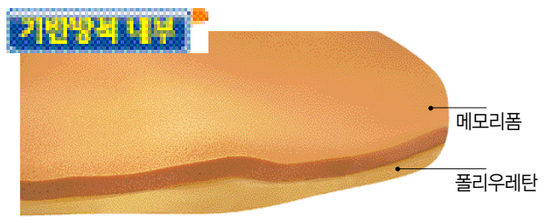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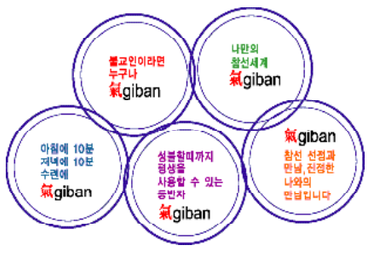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禪師 말씀 石에 새기며 비우고 또 비우고…

최두헌 전각전 경주 예술의 전당서 9월 13일까지

서예를 배웠던 청년은 대학시절 인사동에서 만난 전각을 보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가운데에서도 전각에 매진했고 불교문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문학을 파고들었다. 또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만나 참선화두로 마음공부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청년의 이런 삶의 흔적은 전각과 글씨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최두헌 학예사가 첫 전각 전시를 연다. 경주시의 후원으로 9월 13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 지하 1층 소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25점의 전각과 서예 작품을 선보인다.

최두헌 작가는 "선승들의 진영과 법어를 돌에 새기고, 벽암록 구(句), 선승들의 시(詩), 도가의 무위(無爲) 등을 주제로 도장, 인장, 낙관 등을 작품화 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각이라는 예술의 무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작가는 전각예술은 오직 인면(印面)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그 안에서 정신적 응집을 돌출해내야 한다고 말한다. "돌 위에 선사들의 말씀이나 조형적 예술미를 칼질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온 우주를 한 치의 방촌(方寸)안에 모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희열과 기대감이 먹물의 번짐만큼이나 짜릿하죠. 지금 저의 전각은 방촌 안에서의 문자유희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색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서예와 전각의 결합으로 다양한 작품 세계 모색

매화나무를 연상케하는 '세계일화'(無求備齋)는 낙관과 먹의 번짐을 조화롭게 배치시켜 눈길을 끈다. 낙관을 찍어 그 위에 먹물을 흘리니 나뭇가지가 형성되고 이는 흡사 통도사의 홍매화를 보는듯하다. "의도했던 바는 아니고 우연의 효과로 탄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붉은 낙관을 찍고 그 사이로 먹을 흘리니 이는 매화나무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연기적 세계관을 말하죠. 그래서 그 제목을 세계일화라고 했습니다."



최두헌 작가가 9월 13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서 개인전을 연다. 사진 왼쪽은 '무구비재', 오른쪽은 '세계일화'

갖추지 않은 집을 의미하는 '무구비재'(無求備齋)는 그의 은사인 동국대 한문학과 김종진 교수가 작가에게 지어준 당호(堂號)를 작품으로 옮겼다. 이 당호는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란한 욕심이 생기고, 배고프고 추우면 도(道)의 마음이 생긴다네. 비우고 또 비우고, 구하지 말고 또 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승 진영과 법어 등 25점 전시 벽암록 작품으로 승화 출판계획도

"세상은 모든 걸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비우고 비워서 갖추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뜻이죠. 스승님께서는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품어야지 일물(一物)을 갖추려고 아등바등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처음 당호를 받았을 때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종 대종사의 진영과 함께 새겨진 오도송도 인상적이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 앞에 바로 주인공의 집이 보이네/ 하하! 이제야 만나 의혹이 없으니/ 우담바라 빛이 온 세상에 흐르네' 라는 의미의 이 오도송은 의미 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지금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봉 스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스님의 오도송을 작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오도송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벽력같은 할(喝)입니다. 과연 지금 거울 앞에 앉아 내 자신과 이야기 나눌 사람이 몇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이 오도송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이죠."

작가는 앞으로 벽암록 100개의 화두를 서예로 옮긴 작품 전시는 물론 이를 책으로도 펴낼 계획이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스님들의 작품도 전각으로 새겨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두헌 작가는 동국대 한문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부산대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한국전각학회 회원, 부산전각학회 회원,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 전각반 강사, 울산대 미술대 동양화과 강사로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로 활동하고 있다. 1588-492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음악원 지도자 과정 개설 수강생 모집

불교음악 및 찬불가 지도… 개강은 9월 2일
홍윤식 교수, 국악인 안숙선 · 김성녀 등 강사로



홍윤식 교수



국악인 안숙선



국악인 김성녀

조계종단 최초로 설립된 불교음악원이 불교음악 지도자 과정과 찬불가 지도자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9월 2일로 수업은 불교음악원 및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등에서 진행된다.

불교음악 지도자과정은 총 4학기 과정으로 매주 수 · 금요일 오후 7시~8시 수업이며 모집인원은 10명으로 수강료는 학기당 100만원이다.

수업은 △불교와 음악(특강) △기초이론 및 선율작법 △주선율작곡법 및 합창 편곡법 △국악기의 이해 및 선율작곡법 △대중음악 작곡법 △합창 지휘법 △관현악 지휘법 △멀티미디어음악 △마스터 클래스로 구성된다.

강사진으로는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김동환(중앙대 명예교수) 채윤(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하광훈(서울예종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 김회경(조계종 불교음악원 음악감독) 등이 참여한다.

찬불가 교육과정은 총 2학기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이며 선착순 100명 모집으로 수강료는 학기당 50만원이다. 교육과정은 △불교와 음악(특강) △불교음악의 기초이론 및 실습 △전통범패와 작법 △생활 찬불가 교육 △회심곡 △댄스 스포츠로 구성된다.

강사진으로는 안숙선(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김성녀(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영(사 아리랑보존회 이사장) 박상진(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박애리(국악인) 강주현(연꽃향기 찬불가요교실 대표) 한정일(천태종 관문사 지휘자) 정율 스님(성악가) 남상일(국악인) 인묵 스님(조계종 의례위원회 위원장) 등이 나선다.

각 학기 기말작품 발표회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불교음악 지도자과정은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찬불가 교육과정은 불교음악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접수기간은 8월 26일까지이며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cobm007@gmail.com)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2월11일 입법예고를 통해 설립이 공식화 된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의 진흥을 꾀하고 불교음악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6월 7일 봉은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과정은 불교음악 최고위과정과 지도자과정, 찬불가 교육과정과 최고위과정 등 총 4개의 교육과정으로 나뉘며 찬불가 외 작곡, 지휘 등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여 일반재가신도들과 합창단을 중심으로 불교포교에 기여하고자 한다. 3218-4866

정혜숙 기자

거장들이 발견한 평범한 일상의 역사 렌즈에

매그넘 사진의 비밀전 '브릴리언트 코리아'
봉은사 기림사 선암사 등 사찰 사진도 주목



매그넘은 한국의 역사를 카메라에 포착해 전시를 연다. 2013년 봉은사 개산대재 정대불사 장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시 '매그넘 사진의 비밀 展-브릴리언트 코리아(Brilliant Korea)' 가 10월 3일까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9명의 매그넘 포토스(이하, 매그넘)작가는 '한국' 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전통, 분단의 역사, 그리고 오늘을 이끈 열정과 영웅들의 모습을 찬란한 찰나의 시각에서 포착해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봉은사, 인왕산 선바위, 경주 기림사, 순천 선암사 등을 주제로 한 사진들도 선보여 주목된다. 봉은사 개산대재 정대불사 등 사찰 문화행사는 물론, 경주 기림사의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모습과 순천 선암사에 놓인 고무신 한 켤레 등은 한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상에 대한 진정성을 추구하는 이들 작가는 스스로의 철학에 충실하게 지난 2년간 수시로 한국을 오가며 작업했다. 전시장에서는 결과물인 사진은 물론 그 과정을 담은 영상물도 함께 볼 수 있어 관객과의 소통 및 공감을 모색한다. 또한 매그넘 작가들은 어떤 순간을 기다려, 언제 셔터를 눌러 만족스런 사진을 얻어내는지 등 사진 비결(Secret)과 사진철학 등도 직접 공개해 사진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1947년 로버트 카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는 기치로 결성한 사진작가 그룹 매그넘은 전쟁과 평화, 인권과 환경 등 인류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를 다양하게 아우르며 역사의 결정적 장면에서 생생한 증언자로 활약해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놓쳐버린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래서 매그넘이 주목하고 사진으로 기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대상은 '눈 여겨 봐야 할 존재' 가 된다. 070-4492-0025 **정혜숙 기자**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송암 김서경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 實戰四柱 강좌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강의일시 : 매주 월 ~ 화, 목 ~ 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수 강 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질병,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매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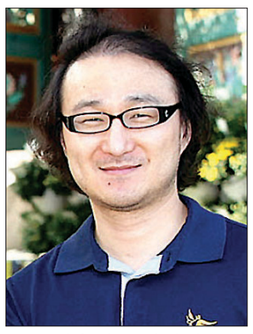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프로젝트 음원으로 대중과 더 가까이

한정일 씨 '한스 브리즈-어떤 인연' 출시


작사 법현 스님


예술감독 한정일


보컬 박보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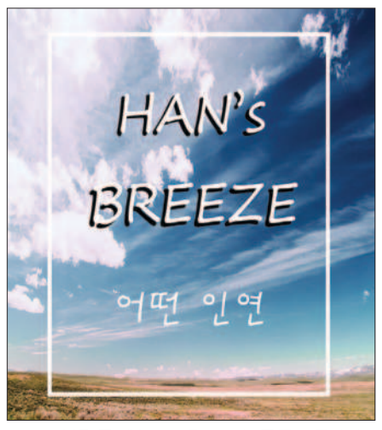
"불교음악을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어요. CCM처럼 불교음악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죠. 이번에 음원으로 출시된 어떤 인연은 대중적 찬불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불교적 소재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불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성악가 한정일 씨가 '한스 브리즈'(Han's Breeze)라는 프로젝트 음원을 출시했다. '향긋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프로젝트는 분기별로 대중적 찬불가를 발표해 불교음악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에 음원으로 출시된 '어떤 인연'은 그 첫 번째 작품이다.

예술감독을 맡은 한정일 씨는 "한스 브리즈 프로젝트는 불교음악의 전법과 포교의 방편으로 기획되었다.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간행물형식을 빌려 봄여름가을겨울 4회 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스 브리즈라는 타이틀로 발표될 음원들은 내가 곡을 쓰고 불교음악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른 가수 혹은 연주자를 참여시켜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이번에 발표된 '어떤 인연'은 한정일 씨가 곡을 쓰고 법현 스님(열린선원장)이 작사를 맡았으며 노래는 보컬리스트 박보윤 씨가 불렀다. 이 곡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물수제비를 뜨는 전경을 인연이라는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남녀 간의 인연은 물론 세상의 모든 인연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장르의 대중적 찬불가로
불자 비불자에게 불음 전하고자
가을에는 발라드곡 발표 예정



'한스 브리즈'(Han's Breeze) 프로젝트 음원 표지 이미지

작사를 한 법현 스님은 "대학시절에 데모하면서 즐겨 불렀던 곡 중에 '흔들리지 않게'라는 노래가 있다. 나중에 그 곡이 CCM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종교에 상관없이 대중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작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찬불가도 의식곡이나 행사용 외에 대중들이 일상 속 어디서든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다"며 바람을 전했다.

보컬리스트로 참여한 박보윤 씨는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 OST 작업에 참여할 정도로 실력파 가수이며 현재는 태고종 성주암에서 12년 동안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한스 브리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대중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한정일 씨는 "11월을 전후한 가을에는 계절에 어울리는 발라드풍의 곡으로 대중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장르에 구애 없이 대중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부처님의 뜻을 담고자 한다. 불자가 아닌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불교적 정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어떤 인연'은 멜론 벅스 등 유수의 음원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양산 불광사 '함께하는 삶을 위한 산사문화제'

8월 30일, 불광사 대웅전 앞 마당서

경남 양산 불광사(주지 문수)는 8월 30일 불광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함께하는 삶을 위한 제2회 불광사 산사문화제'를 개최한다.

어울림 한마당으로 마련되는 1부 공연에서는 장애인·다문화 가족 및 기관장의 노래자랑, 품바 등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2부에서는 '정태춘과 박은옥 초청 산사음악회'가 진행된다. 음악회에는 청공중창단, 국악, 파파밴드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아울러 부대 행사로 생활도자기 전시와 만다라 작품전, 동천 이현도 선생의 전통 한지 작품 등 다양한 전시도 준비된다.

음악회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육법공양과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된다. 불광사 주지 문수 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은 장애인 가정의 자녀20명, 다문화 이주여성 6명에게 각 30만원씩 지원된다. 이어지는 만발공양에서는 메밀국수를 마련 산사를 찾는 방문객에게 대접할 계획이다.



양산 불광사 산사문화제 포스터

주지 문수 스님은 "불광사 주지로 부임 한 후 사회적 회향을 위해 고심을 하던 중 장애인들과 인연이 되어 산사문화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055)381-5508 하성미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요리 혹은 셰프 프로그램 열풍 '유감'

- '꽃밭의 독백'이 주는 교훈 -

노래가 낫기는 그 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開闢)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낯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 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海溢)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미당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전문이다. '사소(娑蘇) 단장(斷章)'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 시는 박혁거세의 어머니 '사소'가 꽃밭에서 독백하는 형식으로 구도의 염원을 노래한 것이다.

글 서두에 미당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을 인용한 까닭은 최근 방송계에 열풍이 불고 요리(혹은 셰프) 프로그램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이다.

'집밥 백선생', '한식대첩',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등이 대표적인 인기 요리 프로그램이다. 물론, 세 프로그램 모두 장점은 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진행하는 '집밥 백선생'은 누구나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한식대첩'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맛이 있는지 일깨워준다. '삼시세끼'는 산간지역이나 바닷가 지역에서의 생활을 그림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삶의 가치를 높여 주고, '냉장고를 부탁해'는 스타들의 삶을 훔쳐보는 재미와 사소한 재료들로 요리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런 요리 프로그램들은 장점만큼이나 단점을 지니고 있다. 아니, 장점은 적고, 단점은 많다고 봐야 옳다.

김도언 작가는 최근 〈작가회의 통신〉 '열풍과 음식'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열풍은 기괴하게도 정부나 언론 같은 제도권에서 조장하는 형식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군부 독재정권 시절 위정자들은 국민의 관심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열풍의 대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우민 정책을 썼다. 그것은 매우 공공연하게 선전되고 유포되었다. 우리




독재정권이 만든 3S 열풍과 최근 불고 있는 요리 열풍의 공통점은 국민을 우민화하고 그 기저에는 대중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3S 열풍은 권력이 조장한 반면 요리 열풍은 대중이 자발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진 위는 '집밥 백선생', 아래는 '냉장고를 부탁해'

세상의 단 맛이야 많을 테지만
깨달음의 단 맛에 견줄 수 없어

가 흔한 사례로 드는 3S 정책 같은 것이 그것인데, 국민의 눈과 귀를 스포츠와 섹스와 스크린으로 쏠리게 한 뒤 국정을 농단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다. 〈중략〉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국민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가장 미쳐 있는 것은 음식과 요리인 것 같다. 바야흐로 음식, 요리 열풍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것이다. 〈중략〉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성별도, 계층도, 세대도, 정치적 이념도, 지역도, 계급도 모두 백기투항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 국민의 정치적 환멸이 심해진 건 주지의 사실이다. 불행해진 국민은 정치적 환멸이나 기대감의 상실에 대한 욕망의 대리 투사 대상을 찾아야만 했는데, 내 생각에 우리 국민이 찾아낸 대상이 바로 가장 본능적인 감각에 충실한 음식이었던 것 같다. 가정적으로 불행하거나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집의 아이들보다 설탕과 소금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논리일까?"라고 주장했다.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다. 김도언 작가의 글에서 알 수 있듯 독재정권이 만든 3S 열풍과 최근 불고 있는 요리 열풍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공통점은 국민을 우민화하고 그 기저에는 대중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3S 열풍은 권력이 조장한 반면 요리 열풍은 대중이 자발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이다.

필자가 서두에 인용한 '꽃밭의 독백'은 최근 불고 있는 요리 열풍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노래가 낫기는 그 중 나아도'라는 표현에서 노래는 아마도 시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가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왔다'는 것은 아무리 최상의 노래인 시일지라도 육도윤회의 삶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는 표현도 세속적인 욕망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어서 시인은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고 표현한다. 육근(六根)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벼락과 해일(海溢)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라고 주술사처럼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꽃은 물론 깨달음의 상징일 것이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맵고, 감칠맛이 돌고 이런 혀를 자극하는 맛들은 결국 단 맛이라는 하나의 맛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 단 맛은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일화에서 벼랑 끝에 매달린 사내가 맛보는 꿀맛과 다르지 않다.

이 세상의 단 맛이야 많지만, 깨달음의 단 맛에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유응오 작가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액 14,000원 (배송비 별도)
구입 054)734-1767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2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9권 출간! 수산, 분양, 섭현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8.17~2015.8.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2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3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7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8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김영사
9	감산자전	감산덕청/대성	탐구사
10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언해불전 펴낸 이유는 특권층 허물려는 의도일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정도전의 〈불씨잡변〉을 비롯해 조선의 선비들은 불교를 허무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교는 선비들이 믿는 하늘이나 운명, 변하지 않는 성품 따위는 믿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모두 중생의 의식이 지어낸 망상이라 허망하다고 주장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그런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했다.

사대부 양반들의 숙원인 억불 정책을 통해 조선에서 불교 입지를 좁힌 유학군주 세종대왕. 그런 그가 불교 책을 읽고 펴낸 것은 당시로서 가히 혁명이었다. 신하들의 강력한 거듭되는 반대에 세종은 언로를 차단한다. "현명한 신하의 말이 무지한 임금에게 먹힐 리도 없고, 무지한 임금의 말이 현명한 신하의 귀에 찰 리도 없다. (중략) 귀찮게 자꾸 청하지 말라."

도대체 무엇이 세종 임금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불교가 무엇이기에 세종은 신하들의 입까지 막았을까? 오윤희 前 고려대장경연구소장〈사진〉이 불교를 억압한 조선 왕조가 불경을 간행한 배경을 분석한 〈왜 세종은 불교 책을 읽었을까〉를 최근 펴냈다.

세종뿐 아니라 1461년 즉위 7년째를 맞은 조선 세조는 불경을 간행하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세웠다. 이는 한문본뿐만 아니라 우리말 풀이를 한 언해본(諺解本)까지 간행했다.

저자는 "세조가 간경도감을 세워 여러 경전을 보급한 것은 세종의 유훈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상소만 올리는 사대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세종은 불교책을 읽었을까
불광 펴냄
오윤희 지음
2만원

"언해불전 보지 않은 채 세종 평가 말라"
'함께 읽고 논란 하자'는 의미도 포함된 듯
저자의 주석 중심 독특한 편집도 '눈길'

언해불전은 이념투쟁, 계급투쟁의 도구

왜 세종은 한글로, 불교 책을 펴냈을까? 이 화두에 저자의 번뜩이는 상상력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저자는 "한글로 불교 책을 펴낸 까닭이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보고 살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또 알게 된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지배층에게만 허용되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지식과 권력과 금력을 백성과 지배층이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세종의 훈민정음과 언해불전은 지배층의 특권을 허물려는 이념투쟁, 계급투쟁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능엄경언해〉를 비롯한 언해불전 다수의 핵심 내용은 "누구나 보아 살펴 사랑하면, 즉 관찰하고 사유하면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하늘이 신분을 결정한다는 당시 유교사회 원리에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종 · 세조 때 문신인 김수온의 〈사리영응기〉를 보면 "261명 사람들이 귀천 없이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 부처 되기를 기원하며 서로를 향해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구절 가운데 "성상", 즉 세종의 덕을 입어 그 모임에 모두 참석했다는 구절이 있다. 조선의 계급이,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은 잠시라도 무너졌었다."라고 설명한다.

선사들의 말투… '입말의 활어'

이왕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일, 쉬우면 쉬울수록 좋았을 것이라고 저자는 책에서 밝힌다. 언해불전 사업에 조선의 선사(禪師)들이 참여한 것은, 이 점에서 탁월한 결정이었다. 선사들의 말은 시장통과 여염집서 쓰던 '입말'이었기 때문이다.

선사들의 말은 '입말의 활어'다. 그들의 말투에서는 어려운 개념어와 추상어 대신 쉽고 생생한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서술어와 수식어가 관건이다. 그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소수 지식인들의 말과 글에 맞서기도 했다. 동네 사투리, 속담과 속어를 써서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통할 수 있는 말의 전통을 세웠다. 문자는 몰라도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던 우리 입말 전통이었다.

준동함령(蠢動含靈)은 (뭇 생명의) 꿈틀대는 모습을 그린 '구믈구믈하다'로 되살리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개념어보다는 쉬운 우리말, 그 중에서도 동사를 잘 활용해 번역한 것이 놀라웠다며 언해불전 속에 담긴 선조들의 우리말을 다루는 기술에는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점과 모델이 있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예를 들면, '준동함령(蠢動含靈)'은 (뭇 생명의) 꿈틀대는 모습을 그린 '구믈구믈하다'로, '성성(惺惺)'은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지혜가 분명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그린것으로 되살아났다. 어려운 한자어나 개념어보다는 이쪽이 이해하기 쉬울 터다.

저자는 또한 "이 책의 주 공격 대상은 유학자들이라며 우리말 불경 주석을 보면 유학자들에 대한 불평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해불전은 종교책이라기보다는 사상서다. 조선의 지적, 사상적 지형도의 단서가 여기 들어있다. 세종이 갖던 지적 성향과 군주로서의 정치적 성향이 담긴 언해불전을 보지 않은 채 세종대왕을 평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문불전 전산화 작업을 해 온 저자가 언해불전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관심을 둔 것은 주석 중심의 독특한 편집형식과 우리말 번역이다.

또 하나의 의도… 열린 지식 전통 되살리기

일본 승려 엔닌(圓仁, 794~864)은 〈입당구법순례행기〉서, 당나라에 머물던 신라 사람들이 승속, 남녀, 노소, 존비의 차별 없이 한자리에 모여 〈법화경〉을 신라 말로 함께 읽고 토론하던 장면을 묘사한다.

"남녀 승속이 함께 절 안에 모여 낮에는 강연을 듣고, 저녁에는 예참(禮懺), 청경(聽經)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승속의 숫자는 사십여 명이다. 그 강경과 예참은 모두 신라의 풍속을 따르지만, 저녁과 새벽의 예참은 당나라의 풍속을 따른다. 나머지는 모두 신라 말로 한다. 집회에 참석한 승속, 노소, 존비(尊卑)는 모두 신라 사람들이고, 단지 세 명의 중과 행자 하나가 일본 사람이다."

신라 때도 있었던, 함께 읽고 토론하던 전통. 권근이 묘사한 목은 이색의 학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매일 강의가 끝나면, 의심스러운 뜻을 두고 서로 논란하여 각각 끝까지 의심을 풀었다." 하지만 조선 초의 억불과 세종의 불사를 둘러싼 논란에서는 이러한 열린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불교가 고려를 망쳤으니 조선에서는 아니 되옵니다.' 성리학 선비들은 이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들의 논리에는 자기 생각이랄 게 없다. 자신들이 떠받드는 성현 주자의 말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외울 뿐이었다. 세종은 이런 데 질렸고, 그래서 입을 닫았다.

어쩌면 세종이 언해불전을 펴낸 이유 가운데는, '함께 읽고 논란하는' 열린 지식 전통을 되살리려는 뜻도 들어 있었는지 모른다. 혁명의 일방적인 거센 물결 속에 휩쓸려 사라진 이 문화가 되살아나야만, 거친 앎으로 인한 폐해와 성리학자들의 독주를 막고 조선을 제한적이나마 열린사회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태교는 엄마의 기쁨 나누는 것"



엄마마음, 태교
이유민, 강은정 엮고 쓰다
길벗 펴냄
1만 5천원

이 책은 넘쳐나는 태교 방법에 의구심을 갖게 된 전업맘들, 태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직장맘들의 고민을 담아 완성했다. 아이를 품은 열 달 동안 엮은이가 겪은 감정 변화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것이다. 엮은이가 옛글을 읽으며 얻은 깨우침은 부모의 자리를 고민하는 예비 엄마들에게 진솔한 고백이자 새로운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엮은이의 고민에 해답처럼 다가온 울림 좋은 시와 산문은 엄마의 감수성을 깨우고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이 부모로 살 엄마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아이의 행복을 축복하는 자아성찰형 태교 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총 임신 시기별로 총 4개의 장으로 나눠 소개한다. 1장은 '1~3개월: 환희와 감사', 2장은 '4~5개월: 정성과 기다림'은 3장 '3장_6~7개월: 응원과 격려', 4장은 '8~10개월; 희망과 용기'를 주제로 동서양의 아름다운 시와 산문을 실어, 엄마와 배 속 아이를 즐겁고 행복한 태교 시간으로 인도한다. 특히 각 장을 시작하는 〈마음을 여는 글〉은 엮은이가 배 속 아기와 함께하는 열 달 동안 겪던 감정 변화들과 고민들을 지혜의 옛글을 통해 어루만지고 다독이는 과정들을 보여준다. 엮은이의 글을 통해 예비 엄마인 독자들 역시 나를 돌아보고, 공감하고, 위로받고,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아름다운 문장, 뜻 좋은 글로 엄마 마음 어루만지기

태교란 '엄마 마음 다스리기'가 가장 먼저라고 저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우리 가정의 방향을 계획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책은 엮은이가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임신과 출산 시기, 엄마의 일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임신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나눴던 글들을 모았다. 아름다운 묘사가, 리듬감 넘치는 운율이, 숭고한 뜻이 맘에 들어 여기저기 적어놓고 읊조렸던 글들을 실제 임산부들로 이루어진 베타테스터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객관화되고 정돈하는 과정을 거쳤다. 고전과 시, 산문, 동요 등 매일 마음을 울리는 좋은 글을 소리 내 정성껏 읽으면서 엄마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지는 행복한 태교가 된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태교가 '태어날 아이의 삶'이 아닌 '엄마가 될 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낭독과 필사 태교로 엄마와 아빠, 아이가 함께 교감하기

낭독은 바쁜 엄마아빠가 짧은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하기 좋은 태교 방법이라고 저자는 소개한다. 소리는 몸에 울림을 만들어 집중도를 높이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단어 하나하나를 소리 내는 과정은 글 읽는 행위에 진심과 정성이 담긴다. 낭독을 통해 엄마와 아빠, 아이가 함께 교감하며 명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을 수 있다. 낭독과 더불어 베껴쓰기(필사)를 하며, 손과 입은 특히 뇌를 자극하는 신체 부위라 입속말로 웅얼거리며 필사 하면 더욱 깊은 뜻을 깨칠 수 있다고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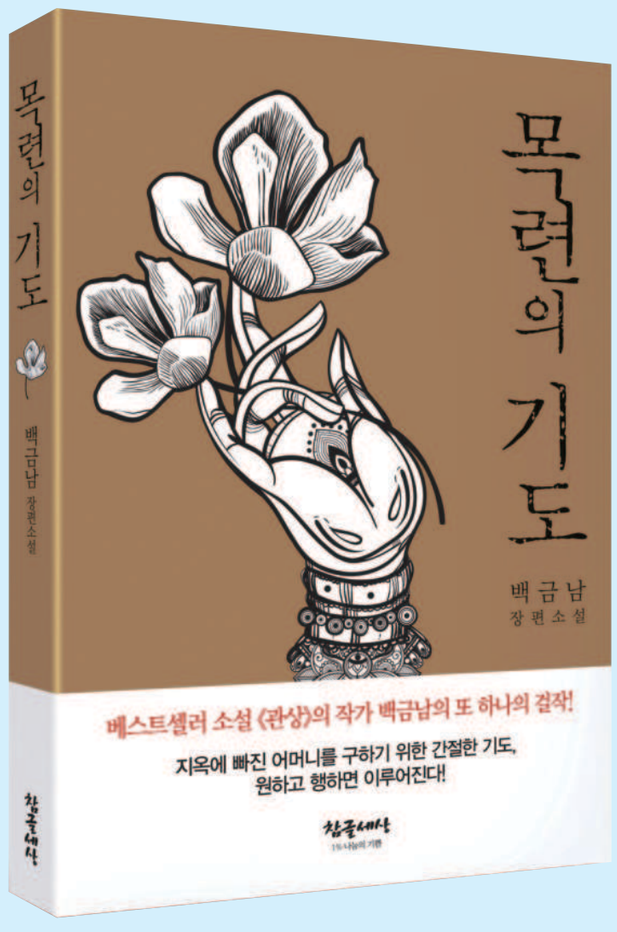
엄마 '마음다스리기' 가장 중요
임신중 아이와 나눈 글들 모아
전업맘, 직장맘들 고민 담겨져

저자들은 이 책에서 "낭독 하고 나서 되새기고 싶은 글이나 베끼고 싶은 글을 적어두었다가 아빠, 아이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보다 낭독과 필사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부모 되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올곧아야 아기도 배 속에서 자유로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다.

엄마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가장 훌륭한 태교

이 책은 수많은 태교법과 책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직장인으로 태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엄마들, 의욕적인 태교를 하고 있으나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억지 태교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고민을 담아 완성했다.

김주일 기자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낳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1003@hanmail.net
참글세상 1% 나눔의 기쁨

책 속의 밑줄 긋기

"나의 훌륭함을 가르쳐주는 금강경의 힘은 무한하다. 금강경 앞에서는 악착같이 사는 사람도, 인생포기한 사람도, 그저 그냥 사는 사람도 그 모두가 행복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마음속에 살며시 품고 되새김질하면서 조금씩 내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면 그 맛은 세상을 얻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님을 저절로 알게 된다. 적게 갖거나 없으면 불행한 감각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이 유해한 시대에 나 자신을 금강경에 풍덩 던져 넣어 세탁해버리자"

<금강경의 재발견 中에서>

"수행해라" "예, 수행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수행으로 보답하는 길뿐이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삼배를 하고 일어서서 잠시 방향을 잃고 출입문을 못 찾았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을 벗어나 자유를 얻은 듯했다. 가사도 상가도 벗어나 떠나가야 했다. 사야도 꾸띠를 나와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홀로 떠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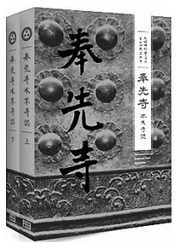
<스승은 붓다이시다 中에서>

Books

봉선사 90여 본말사찰 역사 성보 등 집대성

봉선사 본말사지

봉선사 편집위원회 엮음
조계종 출판사 펴냄 | 상하권 세트 15만원



1994년 직지사서 본말사지를 출간 후 21년 만의 처음으로 본말사 현황 보고서가 나왔다. 봉선사 주지 스님을 필두로 편집위원회 구성 이후 1년여 조사와 취재를 통해 얻은 결실을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말사 90여 사찰의 역사, 성보, 재산 현황을 모두 담아 집대성했다. 이 책은 이런 노력의 결실로 발간된 것이다.

원색의 전 2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총 900여 쪽에 걸쳐 봉선사와 산하 말사들의 연혁, 성보 문화재 현황, 재산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보의 사진과 각 사찰의 전경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번 본말사지 발간은 작년 봉선사 현 주지인 한암 정수 스님(간행위원장)을 필두로 봉선사 총무국장인 선우 스님(부위원장), 봉선사 연꽃유치원장을 지낸 지환 스님과 봉선사 교무국장 남림 스님(이상 편집위원), 능엄승가대학원 연구원과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석산 법등 스님(교정위원), 능엄승가대학원 학감인 취봉 정원 스님(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봉선사 본말사지〉 편집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이로써 25교구 본사인 봉선사는 88년 전인 1927년 안진호 스님의 〈봉선사본말사지〉와 1977년 편찬된 월운 스님의 〈봉선사본말사약지〉 출간 이후 38년 만에 다시 〈봉선사 본말사지〉가 출간돼 25교구 소속 본말사의 역사와 현황을 담은 세 번째 출판물을 갖게 됐다.

'본말사지' 는 본사와 소속 말사의 역사, 성보, 재산, 가람 배치, 역대 주지 등을 총망라한 현황 보고서로 본말사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할 수 있는 한편, 가람의 유지.발전과 성보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 데 꼭 필요한 책이다.

편집위원회 간행위원장인 봉선사 주지 한암 정수 스님은 "〈봉선사본말사약지〉가 출간된 이후 38년이 흐른 지금 사암도 늘어나고, 폐사된 사찰도 생겨남에 따라 삼보정재와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 책이 빨리 편찬돼야 했다"면서 본말사지 편찬의 목적을 "삼보정재를 잘 지키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호해 불일(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27년 편찬된 〈봉선사본말사지〉는 24개 사암이 수록되었고, 1977년 편찬된 〈봉선사본말사약지〉의 경우 64개 사암과 1개 포교당의 현황이 실렸으나, 금

지난해 편찬위원회 발족하며 시작
성보 및 각사찰 전경 사진도 실어
전각과 성보현황 한눈에 조망 가능
1927년 편찬된 사지엔 24개 사암만

번 〈봉선사 본말사지〉에는 90여 개 사찰 현황이 실려 있어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봉선사 본말사지〉는 지금까지 연구돼 밝혀진 바와 함께 구비나 전적 등을 통해 전해내려 오는 사찰의 역사를 종합 정리해 소개하고, 무구한 역사 속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각과 도량에 봉안된 성보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해를 돕기 위해 가람의 전경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보 사진도 덧붙이고 있어 가람 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한편 봉선사 측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추측에 머물고 있는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앞으로의 연구 활동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수 스님은 "아직 본말사지를 편찬하지 않은 사찰이 많다"고 하면서 "전법교화와 수행의 도량이며, 중생들의 안식처가 되는 우리 도량을 지키고 잘 가꿔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타 사찰의 본말사지 출간을 독려하기도 했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도 "이번 간행 불사는 불교의 장래를 원대하게 내다보는 역사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선조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이 소중한 자산으로 처처에 남겨져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축사에 가늠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선정과 열반에 이르는 초기불교 수행법

스승은 붓다이시다

김정희 지음 | 푸른향기 펴냄 | 1만 6천원



초기불교 경전 〈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 후 부처의 원래 가르침을 따르겠다며 명상을 실천하는 불자와 일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늘었고, 동남아의 이름난 수행처를 찾아 나선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정년퇴임 후 미얀마의 파욱명상센터를 오가며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록한 김정희 씨의 6년간 수행 기록이다.

저자는 경북대 교육대학원서 국민윤리교육 석사를 취득하고 육군대학을 수료 후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하다가 정년퇴임 했다. 이후 웰다잉 강의와 호스피스 봉사를 하던 중, 세계적인 명상지도자 파욱사야도를 만나 붓다의 수행법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수행으로 도와 과를 얻고 나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생각하고 하던 일을 모두 접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적인 명상지도자 파욱사야도를 만나게 된 인연과 그곳에서 수행하는 치열한 과정을 담백히 풀고 있다. 수없이 좌절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한 끝에 귀한 결실을 얻은 재가수행자의 정진 일지가 마음의 영원한 피안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의 길잡이

이 책은 파욱명상센터서 명상수행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한 재가수행자 김정희 씨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는 수행 안내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학적인 논설이 아

저자의 파욱명상센터 6년간 수행기록
초기불교 수행과정 정확한 이해 도와
교학적 논설 탈피해 실습위주 소개

닌 사마타 수행과정과 위빠사나 수행과정 등, 전통적인 도제식 수행 전수의 과정을 체계적인 실습 위주로 소개함으로써 초기불교의 수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명상 수행을 직접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과 정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행자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을 했다

모기떼가 날아다니는 파욱명상센터 꾸띠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자는 제대로 먹지 못해 나날이 야위어갔고, 잇몸이 부어오르고 발가락에는 종기가 생겨 진물이 나왔다. 그렇게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며 '사람은 누구나 업의 상속자' 라고 말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던 어느 날, 여섯 살짜리 소녀가 보시한 비스킷 한쪽을 삼키다가 저자는 '나' 라는 허상을 깨닫는다. 저자의 수행일기를 읽다 보면, 이내 자신 안에도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있음을 깨닫고 깊은 감동과 환희를 경험하기도 한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핵심 키워드 32개로 세분화시켜 이해 쉽게 구성

금강경의 재발견

행복한 책 읽기 펴냄
지공선사 최재혁 지음 | 2만 5천원



금강경 강독이나 금강경 해설 등, 금강경에 대한 책은 많다. 그런데 〈금강경의 재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읽기 쉬운 구성과, 재미난 예화, 그리고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탁월한 해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깊이 있는 깨달음 때문이다.

〈금강경의 재발견〉은 불자(佛者)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읽어보아야 할, 아니 평생 동안 옆에 끼고 읽고 또 읽어야 할 금강경을 누구나 편하게 읽기 쉽게 구성했다. 이 책의 구성은 금강경 설법의 현장감을 살리면서 부처님의 육성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라가도록 돼있다.

금강경을 모두 32장으로 나누어, 매 장의 시작마다 전체를 요약한 핵심 키워드가 한 문단씩 제공된다. 그리고 뒤이어. 금강경의 한문 원문과 한글 음독, 이어서 깊이 있고 풍성한 내용의 금강경 해석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데, 본격적인 금강경 해설에 앞서서 저자의 생생한 경험서 우러난, 깨달음이 있는 예화나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한 편씩 소개된 것도 특징이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법하실 때, 또는 명승대덕(名僧大德)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깨달음의 에피소드나, 선문답들은 종종 일어난다. 총 32편에 이르는 생생한 예화들은 재미나기도 하지만, 어쩌면 선문답 같은 이 에피소드들을 통해 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만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금강경은 저 멀리 불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새로운 것은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저자의 탁월한 해설 때문이다. 저자는 김세환 법선사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오랜 동안 '화광선원' 서 법선사로서 각종 강의와 상담 등을 도맡아 왔다. 이런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석가모니,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등 위대한 성현들의 가르침과, 불경과 사서삼경 그리고 빅데이터와 카오스이론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종횡무진 누비며 모든 것을 불법(佛法) 속에 녹여냈다. 바로 그것을 금강경이란 그릇에 담아 독자들에게 내보여준다. 불법(佛法)과 동서고금의 가르침, 현대의 최첨단 물리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금강경이란 용광로에 녹여낸 저자의 해설은 방대한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 그래서 560쪽이 넘는 책이지만, 쉽게 금방 읽힌다.

기독교서 신구약성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인 것처럼, 금강경은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이다. 그래서 불자라면 누구나 금강경 한 권쯤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누구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정작 가장 잘 알지 못하는 경전이 금강경인지도 모른다. 금강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부처님을 제대로 아는 일이다. 또, 금강경만 제대로 읽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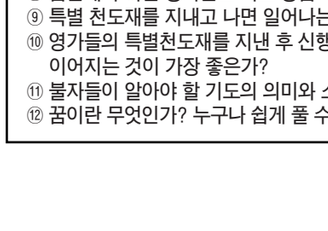
읽기 쉬운 구성, 재미난 예화,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탁월한 해설

나' 를 만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금강경을 만난다는 것은 가능성을 가진 나를 만나는 일이다"라고 한다. 〈금강경의 재발견〉의 부제가 '내가 밝아지는 금강경 읽기' 인 것도 그런 이유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2일이면 〈금강경의 재발견〉을 모두 읽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불자가 공부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佛法)에 풍성한 읽을거리들이 들어 있다.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의 금강경은 이전의 금강경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의 ' 재발견' 이다.

이 책은 펼치기 부담스러운 금강경을 친근하게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실마리를 갖도록 해 준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문자풀이와 어렵고 관념적인 표현을 되도록 배제하였으므로 누구나 술술 읽어가면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된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수행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수행의 한복판서 갖는 무의식적인 착오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지금 자리로부터 성큼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아미타 · 미륵 신앙, 민초에게 희망을 주다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6. 정토, 내세의 유토피아 꿈꾸다

7세기 중반 삼국통일 후 신라 사회에서 불교가 맡게 된 과제는 이전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다. 불교가 짊어져야 했던 새 미션은 바로 사회적 대통합과 신앙의 대중화였다. 이전에는 지역적으로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하고 불교신앙의 수요층도 왕실 및 지배층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이제는 옛 고구려와 백제 지역을 포괄하는 확대된 영역, 신라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상대로 해야 했다. 〈삼국유사〉 등의 사료에서는 저자거리와 벽촌마을에서 일반민을 상대로 한 포교행위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변방에 위치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병합하면서 고구려, 백제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고 그 여세를 몰아 삼국 통일의 위업까지 완수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랜 전란으로 인해 민생은 피폐해졌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산 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은 불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신라인들은 불교를 통해 현세의 바람과 내세의 안위를 얻고자 했고, 불교는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콘텐츠와 방편을 불교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었고, 7세기 중반의 신라사회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것은 바로 아미타 정토신앙이었다.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에서 대중교화로 이름이 난 승려로는 혜숙, 혜공, 대안, 원효가 있었다. 이 중 혜숙은 앞서 7세기 전반에 지방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한 대중화의 선구자였다. 그는 화랑 낭도 출신으로 국선인 구참공이 사냥을 즐겨하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주며 살생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고 국왕의 초청까지 거부하고 일반민을 위한 포교에 전념하였다. 그의 불교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7세기 중반 혜공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하인 출신으로 삼태기를 쓰고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신이한 행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혜공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반야공관을 중시하였고 원효에게 공의 가르침을 전수해 준 이로도 알려져 있다.

〈금강삼매경〉을 편집했다고 하는 대안 또한 당대의 유명한 교화승이었는데, 그는 미친 척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였다. 신라를 대표하는 불교사상가인 원효 또한 온 몸을 던져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그는 요석공주와의 로맨스 이후 환속하여 소성거사로 자칭하였고 광대의 춤을 추고 무애가를 부르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애행의 교화를 펼쳤다. 원효는 현실의 고통에 시름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미타 정토신앙을 보급하였고, 그로 인해 무지한 사람들까지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세간과 출세간에 걸림이 없었던 그의 삶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아미타 정토신앙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 후에야 자신이 성불하겠다는 취지의 48개 서원을 세운 법장비구가 결국 아미타불이 되어 서방에 극락정토를 만들었고, 그의 원력에 의해 누구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서방 극락정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 서쪽에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유토피아이다. 현세를 떠나 죽은 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의 6도 윤회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열반(해탈)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하지만 서방 극락정토로의 왕생은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부처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답답한 현실과 윤회의 부담에서 벗어나 누구나 죽은 후의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호소력과 흡인력을 가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미타 정토신앙은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대중적 파급력을 가지면서 크게 유행했다. 아미타 정토를 설한 〈무량수경〉에서는 정토왕생을 서원하고 염불을 하면 큰 죄를 짓거나 불법을 비방한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는 칭명만으로도

통일신라인들 내세 안위 소원
아미타 정토신앙 폭발적 인기
광덕 · 엄장 설화 등 이를 증명
미륵신앙도 대중들에게 퍼져
고단한 삶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국보 제109호 군위 삼존석굴. 흔히들 제2석굴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주 석굴암보다 조성시기는 빠르다. 석굴 내에는 본존불인 아미타불과 좌우로 대제지보살, 관음보살이 있다. 통일 신라시기의 아미타 신앙을 보여준다.

왕생이 가능하며 악인도 왕생할 수 있다고 하여 정토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중국의 정토신앙 수용과 불교식 사후 관념의 정착에 기여한 이는 여산 혜원이었다. 그가 활동하던 남북조시대에는 불교의 윤회 문제에 대해 윤회의 주체인 영혼이 과연 있는가를 둘러싸고 유불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혜원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전통적 신멸론(神滅論)에 대해 법신으로서 붓다의 영원성을 전제로 하여 영혼이 존재한다는 신불멸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와는 배치되지만 중국인들이 불교의 윤회와 업 관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되었다. 혜원은 또 윤회를 탈피하고 서방정토로 바로 왕생할 수 있는 아미타불 관상 수행을 권장하였고 그를 위한 백련사를 조직하여 정토신앙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토신앙은 6세기 전반 담란에 의해 이론적 체계가 잡히고 도작과 선도가 활동하던 7세기에는 칭명염불을 통해 쉽게 왕생할 수 있는 타력신앙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대중적 기반을 넓혔다. 도작은 말법시대에는 중생 구제를 위해 정토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여 칭명염불을 강조하였는데 하루에 7만 번이나 염불을 하였다고 한다. 또 염주를 만들어 염불을 권하고 콩과 팥으로 염불한 수를 세는 소두염불 방식도 제시하였다. 그의 제자인 선도는 염불을 큰 소리로 외는 구칭염불을 권장하였고 많은 정토 관련 주석서를 남겼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정토신앙은 반석위에 놓였고 이후 교종과 선종에서 모두 정토신앙을 인정하고 수용하였다. 특히 선종에서는 '유심정토 자성미타' 를 내세워 수행의 한 방편으로 염불을 활용하였다. 또한 계율의 준수를 강조하는 염불결사가 성행하는 등 정토는 선과 함께 불교의 주류적 사조가 되었다.

신라에 들어온 아미타 정토신앙은 삼국통일기인 7세기 중반부터 크게 유행하였고 왕족, 귀족층에서 일반민과 천민까지 모든 계층에 걸쳐 신봉되었다.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위해 개설된 아미타도량이 왕족의 사례라면, 염불을 통해 살아서 바로 서방극락으로 왕생한 노비 욱면의 설화는 하층민의 경우이다. 욱면은 여종이었는데 극락정토에 뜻을 둔 진주지방의 거사 수십 명이 미타사를 세우고 만일계회를 만들자 주인을 따라 절에 갔다가 법당 밖에서 염불에 전념하였다.

그녀는 주인이 염불을 방해하고 과도한 일을 시켰음에도 정성스럽게 염불에만 정진하였다. 어느 날 하늘에서 "법당 안에서 염불하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법당 안에 들어가 염불을 계속하였다. 어느 순간 서쪽에서 음악소리가 퍼지면서 그녀의 몸은 들보를 뚫고 한순간에 서쪽으로 날아갔고 조금 가다가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은 채 빛을 발하면서 극락으로 향해 갔다. 이 일화는 노비라는 신분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현세에서 바로 극락정토로 왕생했다는 점에서 매운 흥미로운 서사구조를 담고 있다. 또 정토왕생을 희구하는 염불결사를 조직해 거의 28년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만일염불에 매진하는 모습이 이른 시기부터 있었음을 보여주는 설화이기도 하다.

통일기의 신라 사회에서 아미타 정토신앙이 크게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 문무왕대의 광덕과 엄장을 들 수 있다. 광덕과 엄장은 정토로 왕생할 때 서로 알리자고 약속하였는데, 어느 날 엄장은 "나는 이제 서쪽으로 갈 테니 당신은 잘 지내다가 후에 나를 따라오시오"라는 광덕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엄장은 남편이 떠난 광덕의 처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밤에 남녀의 정을 통하려 하자 그녀는 "당신이 서방정토를 구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질책하였다. 엄장은 광덕도 서방정토로 갔는데 왜 자신은 안 되는 것인지 의아하게 여겼다. 광덕의 처는 "그는 10여 년이나 동거하였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아미타불을 외우고 16관을 이루었기에 서방정토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천리를 가는 자는 첫걸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신은 동쪽으로는 갈지언정 서방정토에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엄장은 부끄러워하며 원효에게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고 결국 뉘우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관법을 닦아서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광덕이 지은 〈원왕생가〉는 "달이시여, 이제 서방정토에 가거든, 무량수 부처님 앞에 알리어 아뢰어 주소서. 다짐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보며 두 손 모아서,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사람 있다 아뢰소서. 아아 이 몸 버려두시고 마흔여덟 가지 큰 소원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이다. 앞의 설화와 이 향가에서 정토왕생을 향한 광덕의 간절한 염원과 치열한 구도행의 자세를 엿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아미타 정토신앙과 함께 전부터 중시되던 미륵신앙도 계속 성행하였다. 특이한 것은 도솔천으로 왕생하는 미륵상생신앙과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아미타신앙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나타나는 점이다. 719년 성덕왕대에 김지성이 감산사를 세우고 죽은 부모를 위해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을 동시에 조성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두 상은 광배 뒤에 조성자와 조성 동기를 적은 명문이 있고 또 미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유명하다. 또한 〈삼국유사〉에 전하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다음 이야기에도 미륵과 아미타불이 함께 등장한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출세간에 뜻을 두고 승려가 되었고 백월산 인근에 각자 거주하면서 부득은 미륵을 구하였고 박박은 아미타를 예념하였다. 3년이 안된 어느 날 저녁 젊은 여자가 박박의 암자에 나타나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지만 박박은 거절하였다. 여자는 부득에게 찾아갔는데 부득은 날이 어둡고 또 중생을 따르는 것이 보살행임을 떠올려 유숙하게 하였다. 밤에 부득은 염불에 전념하였는데 여자가 갑자기 출산 준비를 부탁하였다. 해산한 후 여자는 부득에게 목욕을 하게 해 달라 하였고 곧 향기가 나면서 물이 황금색으로 변하였다. 여자가 이 물을 부득에게 붓자 부득의 온 몸이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연꽃 좌대가 나타났다. 이에 여자는 자신은 관음보살이며 부득이 깨달음을 얻도록 도왔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다음 날 박박이 부득에게 가보자 부득은 미륵존상이 되어 있었다. 박박은 지난밤 자신의 마음에 가리는 것이 있어서 성인을 만나고도 몰랐음을 탄식하고는 부득에게 서로의 약속을 잊지 말자고 청하였다. 이에 통의 남은 물로 목욕하게 하자 박박은 바로 아미타 존상이 되었고 이들은 촌민들에게 법을 설하고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고 한다.

삼국통일 후 개인의 평온과 내세의 안락을 염원하는 불교신앙이 신라 사회의 전 계층, 전 지역에 걸쳐 퍼져나갔다. 특히 이전부터 유행해 온 미륵신앙과 함께 아미타신앙이 새로운 정토신앙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7세기 중반 신라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아미타 정토신앙은 이후 불교신앙의 대표주자가 되었고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극락정토로 향하는 불교인들의 꿈과 염원은 계속되고 있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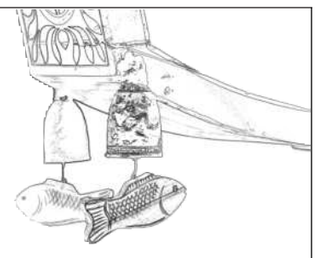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언제나 모든 삶의 무상함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든 죄악에 물들지 않으리라.

- 반니원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정확한 방편술
한권의 책으로 방편술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사찰 대출
포교당,부전,공양주 상담
천도재 / 철학
실력자 구인
010-5381-1419
법당철거 / 인테리어 상담
02-319-9696

미륵불 (대형)
알 림
010-4630-800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고승 비급 전수
책임지도, 바로 친견가능. 기존 사주학 아님
동국대대학원 졸업(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49재,천도재,점안식
최고의 의식으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작법무,살풀이,회심곡)
이 인연으로 성취하소서!
010-5482-209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진주, 60세이상)
참신하신 분
010-4587-10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7311-533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010-3639-8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0-4415-57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영주)
010-3346-2328

사찰 운영
하실
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이름은 돈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주는 인생의 씨앗이요
이름은 인생의 꽃입니다
빛나는 이름, 향기로운 이름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덕인 성명학 (역삼역 6번출구)
02)562-8353
(홈페이지 참조)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십시오
-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6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 (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공연히 망상에 젖지 말며, 오직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지어다.
- 금강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사찰전세7천만원
- 2층법당58㎡요사110㎡공양간
- 토지600㎡, 마을주변, 깨끗함
- 전세금액 7천만원(양도 가능)
- 집기류완비즉시법회가능(월세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임대
- 위치 : 김해지역
- 평수 : 약 50평
- 아파트 밀집지역, 포교하기 좋은 곳(불교대학가)
- 가전집기 일체
- 가액 : 2,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
시설A급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옥과 설산 기암괴석사자형상, 적송림 옥과 톨게이트 5㎞
- 산: 1만2천평, 종교부지650평
- 약사석불12자(血사리봉안)
- 건물 : 조립식건물 3동, 암반식수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 가액 : 3억7천, 차진입가함

010-8224-16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부지:110평 ◎ 면적:220평
◎ 법당:50평 ◎ 법당:50평, 요사:60평
◎ 요사:60평 ◎ 차량진입, 경관양호
◎ 양도:16억5천 ◎ 양도: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제천시 포교사찰 급 양도
* 법당48.7㎡, 한옥요사채59㎡, 토지250㎡
* 제천시시장부근사찰. 포교사찰 적당함
* 양도가 : 1억 6천만원 (융자5천가능)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음성IC 3분
- 부지 1,187평, 법당 39평 삼선각 5평, 용왕단 7평
- 요사채 60평, 법회즉시 가능
- 법당 미등기
- 산세가 수려하고 정원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음
- 가액: 7억 (조절 가능)

010-3708-173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안
- 2층, 삼존불, 소불 108불, 아담한 법당
- 평수 20평, 시설일체 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삼십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010-3101-1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7-7번지 태진빌딩 4층
- 총 실평수 120평, 대법당, 일체 시설은 최상임.
- 100% 시설완벽 일체 양도해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급 양도 일단 오셔서 눈으로 보세요

010-4010-4070

토 굴(터)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 관음리
- 지목 : 전, 면적 : 221평
- 토지이용 : 생산관리지역
- 금액 : 1억원(목재 석재 포함)
- 참고사항 : 백두대간 포함산 주변 2차선 도로에서 200m 거리이며 지적도상 도로 구거와 연결되어 있고 앙쪽은 산이며 입구 주택 3가구 까지 차량통행 주차가능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완료 15톤 덤프 레미콘 차량 출입 가능

연락처 : 010-8555-4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243-4번지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123번지
- 화재로 요사채 전소 , 산신각, 미륵불상
- 암반수, 전기
- 대지 1,240평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연수구
- 평수 : 2층 40평 법당, 삼존불
- 방2칸, 화장실, 옥상사용가능
- 1층 공양실 20평,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능)

010-4858-5377

사찰싸게(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9평, 법당 23평 조립식
- 주택-한옥 및 양옥 35평
- 지하암반수 50미터, 수목, 담장, 대문
- 가액 : 2억 2천
- 2016년 복선 전철개통(상반기) 남이천 IC개통 2015년 말
- 비구니 수행도량 최고, 시내 5분거리(자가용)

010-2813-1381
010-3194-3738

포교원 임대
- 위치: 안산 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 교통편리 유동인구 많고, 포교원 운영으로 최적지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 좋고, 일체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실평수 60평
- 법당, 상담실, 요사채, 다용도 공간, 주방,욕실,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 90만원 시설비 3,300만원(상담시 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 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옥상활용(기도, 행사) 너무 좋음
- 현대 원활히 운영중이며, 불사관계로 소입을 맡아 급하게 내놓습니다

010-5913-7239 일연스님
010-3145-8626 종무소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의성 IC 5분이내
- 대지 235평, 주차장 10대주차, 채전밭 약 300평(국유지)
- 법당 : 삼성각, 요사채 집기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30년된 아담한 사찰
- 가액 : 1억 5천만원(조절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 스님 건강상 문제로 안내

054)832-6567
011-522-65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포교원 최고의 위치
- 부산 서면역 5분 거리(부전시장)
- 5층 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후불탱화 108호신불, 시설완비,
-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공양실, 종무실, 주지실, 화장실(남녀)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삼천오백중 일부(급이전관계)

문의전화 : 010-3711-50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 법당,방2,상담실1,주방, 세면장
- 약45여평
- 서대구 IC 10분거리
- 보증금 3백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천칠백만원(조절가능)
- 즉시법회가능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5530-6865

사 찰 안 내
- 위치 : 황성시
- 임법당, 대지 약 230평, 2층 건물중 1층 30평
- 방4개, 2층 법당 280평, 건물 27평 별채, 실외화장실 2개도 있음
- 다용도 겸 건물 20평 모두 건물 3개임,
- 마당 넓음, 법당실내, 실외계단 이용함 모든조건 최적임
- 가액 : 6억 2천, 부동산 사절

010-3058-5660

신축 한옥 주택
땅을 알고 터를 잡은
산 자락에 예쁜 한옥
이웃환경 좋은 마을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30평,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황토방, 정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2층 8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 주인직접 (매수, 전세 :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02)403-3333

청평 한옥 주택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 (큰방 1, 작은방 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암자나 토굴 교환 가능
- 가액 2억 6천만원

주인직 :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가액 : 3억 6천
- 대지 : 1408㎡ (약 425.92평)
- 임야 : 340.49㎡(약 103평)
- 전 : 287.60㎡(약 87평)
- 경내로 청정한 개울이 흐르고 있음

010-5479-5779

토굴 겸 임법당
- 위치 : 경북 김천
- 건물 22평, 실제 31평
- 대지 129평, 정남향
- 방3개, 주방1개, 화장실 1개
- 삼존불, 탱화, 관음소불 100불
- 조용한 시골 홀로 정진기도 하기 최적지
- 노스님 시봉관계로 급 안내
- 가전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5,800만원

010-4323-35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373평
-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034-830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건물 : 2층 23평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223-487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토당동 843-20
- 평수 60평(3층건물에 3층)
- 대로변 버스정류장 앞 포교하기 좋은곳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 60만
시설비 : 2,300만원
-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0-6505-7678

사 찰 안 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 건평 : 40평중
- 4층 : 법당, 5층 : 요사채
- 보증금 : 2,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 협의후 절충 가능
- 주변이 산과 아파트 단지로 20여년 운영중입니다

010-5237-0408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5억(절충)

010-8988-341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재
- 총 1.250평
- 법당 30평
- 요사 3동 75평
- 가액 : 2억원

011-370-5904

울산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30평
- 삼존불:아미타불.관세음. 지장보살.관음.지장보살.소불60불 후불탱화.미타.관음.신중.칠성.산신
- 현재법회도량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558-90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장근접
- 2층 80평
- 법당.방3개 부엌1. 화장실3개
- 삼존불.후불.일체
- 보증금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조정가능

010-5942-2032
070-8844-2030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향리 팔공산 뒷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기도도량임
- 대지 : 700평(시유지포함)
- 법당 : 20평, 요사채 : 50평
- 가액: 9천5백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 포함)

연락처 : 053-986-1080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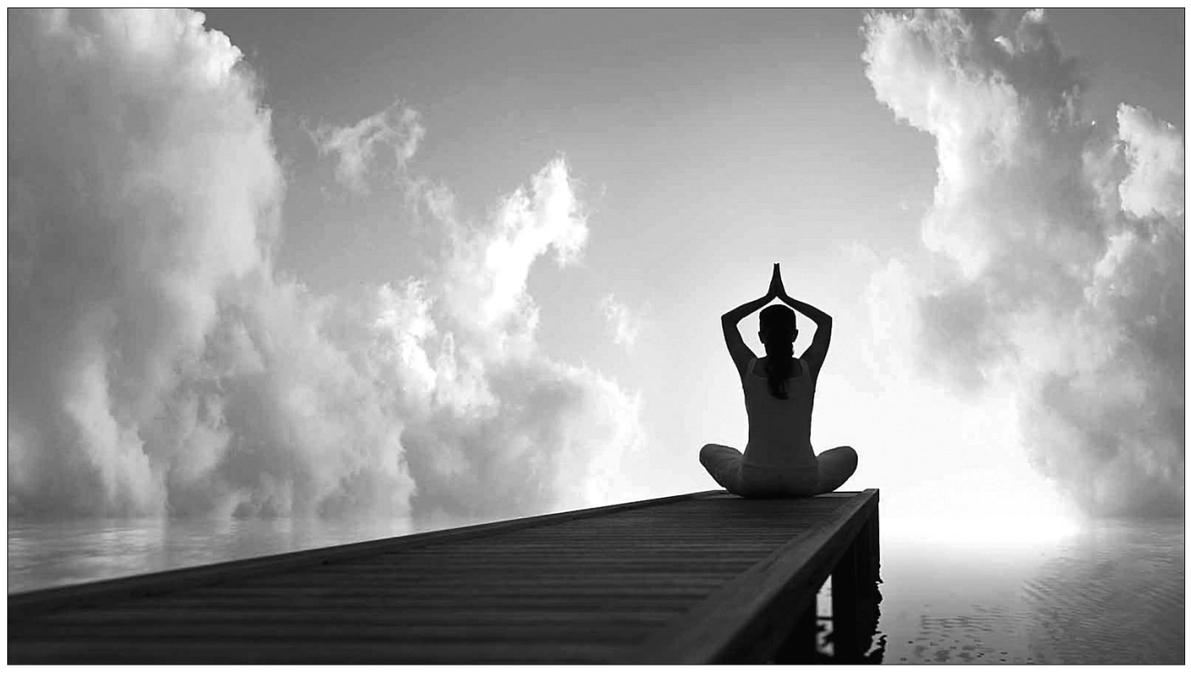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마음 다이어트

〈4〉 호흡 제대로 하기

김대선

명상으로 먼지·구름 걷고 '하늘'을 찾아라



파장을 주고받는 호흡

기운과 함께하는 숨 명상은 아랫배까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비워 맑게 정화하고, 조절하여 궁극적으로 지혜를 밝히는 명상법이다. 이때 호흡과 의식(생각)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호흡(呼吸)이란 내쉬는 호(呼)와 들이쉬는 흡(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는 공기를 내보내는 것 외에 '호통치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 이는 한 가지 단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즉 내쉬는 '호'를 통해 몸 안의 탁한 공기와 에너지를 배출하고, 언어와 몸짓을 통해 의사소통과 감정의 파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반면 '흡'은 공기를 통해 산소를 포함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타인의 감정과 자연의 파장을 받아들여 뇌와 마음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

〈동시성의 과학, 싱크Sync〉에서는 호흡을 한다는 것은 공기 속에서 에너지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직접적인 수단인 것이다. 이것을 '파장을 주고받는다' 또는 '호흡을 맞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호흡은 기운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수단이다. 'k팝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심사 위원 박진영은 소리의 공명을 위해 깊은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전달되는 느낌을 ' 공기반 소리반 '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똑같이 날숨으로 하는 노래인데도 전신을 울리는 소리, 머리를 울리는 소리, 가슴을 울리는 소리 등 다양한 느낌으로 전달된다. 이를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입안의 혀 모양과 위치에 따라 흐르는 공기의 진동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파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때 인간은 감정이라는 자신 안의 에너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며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공기가 입을 통해 나가지만 마음이 공명하다는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몸의 울림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다.

평소 아랫배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잘 관리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스트레스를 통해 탁한 에너지가 모여 적(積)이 된다.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적(積)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복부가 냉해지고 딱딱해져 돌처럼 굳는다.

숨 명상에서 하는 호흡은 평소 방치되어 있던 기운 저장 창고인 아랫배(단전)를 사용하는 호흡이다. 초보자는 가장 먼저 내쉬는 호흡을 통해 몸속에 쌓여 있는 탁한 기운을 내뱉고, 들이쉬는 숨으로 자연의 맑은 에너지를 끌어온다. 단순히 아랫배를 움직여 호흡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운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자신의 마음을 통해 탁한 기운을 배출하고, 맑은 기운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랫배를 움직이는 몸의 호흡과 의지가 결합해야 기운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기운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강해진다. 집중하는 능력도 높아지면서 조금씩 몸 안에서 기운의 이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 타기가 연습을 하며 누구나 가능하듯, 기운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을 모르고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가능한 잠재 능력이다.

호흡을 조절하는 것을 조식이라 하며 기운과 파장을 조절하여 자신과 자연을 일치시키는 수단으로 숨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깊은 명상을 위한 3단계 호흡

호흡을 조절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영적인 각성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조상들은 호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밝히는 방법을 전해준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수행에서는 호흡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호흡을 하여 가장 먼저 몸 안의 탁한 기운을 배출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채운다. 그 후 일정량 이상의 기운이 모이면 몸 안에서 유통시키는 훈련을 한다. 그 과정에서 요동치던 몸과 마음의 파장이 조금씩 낮아져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인간의 뇌파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시점과 수면 상태 간에 많은 차이가 난다. 수면의 초기 단계인 세타파, 깊은 수면 상태인 델타파는 1시간 30분을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 세타파는 수면 중 꿈을 꾸는 파장 대역으로 뇌 과학과 명상에서는 영감과 창의력이 나오는 파장으로 이해한다. 숨 명상은 호흡을 통해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삼매라고 하는 델타파의 영역까지 의식 상태에서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흡을 통해 뇌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명상을 하면서 중간에 졸게 되는 이유는 피곤하고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맑은 기운으로 하는 깊은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호흡에 힘이 있어야 한다. 초보자는 복부의 힘을 통해 강한 호흡을 먼저 한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잠시 후에 출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화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풀무질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다. 복부를 강하게 움직이는 호흡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경직된 복부에 쌓여 있던 탁기는 배출되고, 맑은 기운이 점차 모이게 된다. 기운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근육의 힘이 아닌 기운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강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된다. 호흡에 힘이 없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우울과 슬픔을 의미하고, 신체적으로는 체력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 근육의 힘을 이용하여 강하게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운이 부족할 때도 강한 호흡을 5~10분 정도 하다 보면 서서히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

둘째, 호흡이 부드러워야 한다. 근육을 통해 강한 호흡을 하는 것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 만약 힘이 없다면 체력 단련을 위해서 강한 호흡을 먼저 익혀야 된다. 그 후 강한 호흡을 바탕으로 부드럽게 호흡하는 것을 연습하게 된다. 강함이 없는 부드러움은 유약한 호흡이기 때문이다. 강한 호흡을 통해 부드러운 단계로 넘어갈 때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셋째, 천천히 길게 호흡해야 한다. 호흡이 강하고 부드러운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에 충분한 기운이 공급되고 유통된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최대한 천천히 하면 폐와 심장의 심박 수 저하로 인해 몸의 진동이 고요해지고, 감정 상태도 점차 안정된다.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낮아지면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파 중 세타파와 베타파를 포함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의 내면이나, 원하는 일에 더욱 주의 깊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타파에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호흡을 통해 창조의 원동력과 접속되는 것이다.

> "'단전호흡' 사용해 기운 전달
> 아랫배 움직이며 의지 결합해야
> 일정 기운 모이면 유통, 전달
> 혈(穴)과 경락이 유통 수단"

명상의 2가지 집중법

수련은 몸과 마음을 갈고닦는다는 의미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마음을 바꾸는 방법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기질을 바꾸어 몸을 바꾸는 방법이다. 전자는 예절(몸의 올바른 동작)을 통해 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으로 밖에서 안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후자는 자신의 불균형한 음양오행의 기운을 조화시켜 마음에 가득한 감정과 욕망을 비우고 인간의 본능적 상태인 맑음, 밝음, 따뜻함으로 기운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숨 명상은 호흡과 기운의 힘으로 안팎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수행하는 명상법이다. 그래서 호흡을 적극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갈고닦을 수 있는 기운을 모으며, 자신을 변화시키고 스트레스로 흥분된 파장을 낮춘다. 마음을 갈고닦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호흡이다. 이때 어떤 기운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가가 명상의 수준을 결정한다. 명상에서는 영성과 본성을 각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우주 기운을 추구한다.

호흡을 통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기운은 지기, 천기, 우주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기는 지구의 땅과 자연의 기운이다. 호흡을 하지 않아도 곡식을 포함한 음식을 통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식사를 하면 음식물의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이 에너지는 몸의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 작용에 사용된다.

천기는 감정을 조절하고, 사랑을 키우며, 마음의 폭을 넓히는 하늘과 별의 기운이다. 전통적으로 천기에 관해서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별들 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오행의 천기이고, 태양은 양기로 따뜻함, 달은 음기로 맑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드라마 '허준'에서 침을 늦은 밤이나 새벽에 시술했던 이유가 바로 천기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우주 기운은 북극성의 기운으로 대표된다. 아주 낮은 파장 대역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의식 상태에서는 느낄 수 없다. 오직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서 무의식과 같은 파장 대역을 통해서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잠으로 비유하면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 무의식을 통해 우주와 연결되는 것과 같다.

명상에서 하는 호흡은 보이지 않는 혈(穴)과 경락을 통해 기운을 유통시키는 수단으로서 자세 명상법이 동반될 때 효과가 배가된다. 요가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몇 개의 혈(穴)을 차크라로 표현한다.

인간은 여러 유형의 구멍을 통해 기운과 소통하며 살아간다. 입은 음식을 받아들이고, 공기의 떨림을 통해 소리를 발생시켜 기운과 정보를 주변에 전달한다. 코는 공기를 출입시키고, 공기에 포함된 입자를 통해 냄새와 에너지를 뇌에 가장 빠르게 전달한다. 귀는 소리라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 주변의 정보와 파장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눈은 빛 에너지를 통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피부의 구멍을 통해서는 땀을 배출해 체온을 조절한다. 즉, 인체의 모든 구멍은 유무형의 에너지와 기운을 받아들이거나 배출하는 혈(穴)이다. 따라서 피부를 통해 기운과 정보 등의 파장을 받아들일 때 밀착된 옷이나 화학섬유로 된 옷을 잘못 입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명상에서 비움(공)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높은 하늘은 비워져 있고, 투명하게 맑으며 가볍기 때문이다. 구름과 먼지가 있으면 하늘의 빛이 지상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내면에 갈등과 고민, 감정이 가득 쌓여 있으면 본성의 빛이 빛날 수 없다. 결국 마음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기억과 경험, 지식 등으로 생성된 감정의 상처와 흔적을 치유하고 깨끗이 지워내는 기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준 높은 천기와 우주기는 호흡을 길게 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연결되며 받아들여진다. 몸을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과 함성을 지르는 동적인 명상으로는 천기와 우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때 영적 각성(Spiritual awakening)을 위한 명상은 마음을 비운 채 맑고 밝은 따뜻한 기운으로 하는 긴 호흡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글은 〈마음 다이어트〉(책나무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1-4번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장수순대국밥집을 하던 중 소지품과 신분증, 휴대폰도 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강화경찰서에 실종신고도 했고 인천경찰청에 부친 DNA 검사 자료도 준 상태입니다. 본명은 박영복입니다. 주위 분들 자세히 보시고 꼭 연락 바랍니다. 사례하겠습니다.

부모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현재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 뇌계길 102-2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처 010-6737-1455 아버지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

관음수련법

❶ 관음법은 기원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수련하고 정진하면 인간의 몸 통로가 열려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첨단 음파공학 진리이며,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초첨단 의학적 진리입니다.

❷ 관음수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통증, 신병, 변비, 소화불량, 빈혈 및 다이어트,20대 몸매, 피부미용효과, 목소리 교정 및 트임 등등

❸ 관음수련의 종교적 성취
(1) 좌측(뇌) 통로가 열리면 – 지혜의 문이 열려 (문수보살)
(2) 우측(뇌) 통로가 열리면 – 보리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
(3) 중앙(뇌) 통로가 열리면 – 행동하는 힘이 생겨 (보현보살)
(4) 사지 통로가 열리면 –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약사여래)
(5) 오관이 모두 열리면 육신통을 성취하며 이마에 제3의 눈이 열립니다.

❹ 관음수련의 일반적 성취
(1) 초인적인 운동선수, 골프 등등
(2) 시인 및 학문적 재능
(3) 가수 및 예술적 재능
(4) 팔정도의 사고와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 올바르고 바른 인격수양
(5)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건강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음.

❺ 관음수련은 불자가 되기 위한 수련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 –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03-9번지
전화 031)572-6118 제석천 만덕사 관음 합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집터와 주택풍수」 수강생 모집

가을학기 개강 ▶ 2015년 9월 3일(목) ~ 16주

○ 강의시간 : 목요일 18:00 ~ 20:00
○ 교수약력 :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전략학 박사
○ 수 강 료 : 300,000원(1학기)
우리은행 1005-602-240360 (예금주 : 동방대학원대학교)
▣ 담당교수 : 이상무(풍수지리학 박사)
▣ 모집정원 : 선착순 15명
▣ 교육목표 : 삶의 본거지이자 생활공간인 현대사회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다. 본 강의는 양택에서 필요로 하는 풍수의 기본이론을 포함하여 집터와 좌향, 지형지물, 건물의 형태 그리고 건물 내부의 배치 등이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길흉을 양택 전반에 걸쳐 학습하고, 지식과 안목을 길러 양택풍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용적인 풍수교육을 지향한다.
▣ 교 재 : 가택풍수학, 나경, 유인물, 甲午年 民曆 외
▣ 양택2급 자격증 : 1년 수료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총장명의 자격증 수여
▣ 가을학기 개강 : 2015년 9월 3일(목) ~ 16주
▣ 주요 강의 내용 : 양택풍수에서 터와 건물의 기본조건과 개념/구성풍수의 길방과 6대 흉방/팔방위별 주택과 집터의 가상과 지상/사무실의 부서배치와 업종에 맞는 출입구/건물내부의 인테리어 풍수/하도,낙서와 선후천 팔괘이론/나경의 사용법과 기초이론/택지내 정원수와 수목별 배치 길흉론 양택삼요와 문, 주, 조(부엌)의 배치/물과 하천을 이용한 집터의 길흉/택지로서 좋은 터와 나쁜 터 구분하기/택일법 (이사, 건축, 장택, 개업 등)

■ 연락처 : 02)3668-9890 담당교수 : 010-2247-9007
■ 오시는 길 : 4호선 한성대입구 6번출구 1111번,2112번 동방대학원 하차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통광 스님

앉기도 하고 때로는 누워 자유자재로 노니네

송광사 강주이신 덕조 스님의 전화가 있었다. 통광 스님의 건강이 나날이 좋지 않으니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스님의 말씀에 시간의 절박함이 묻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구례 행 버스를 탔다. 구례 터미널에서 스님을 만나 통광 스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했다.

암자 입구에는 오디가 진흙위에 떨어져 달디 단 향을 내뿜고 있었다. 그 떨어진 흔적 주위에는 벌이며 나비가 단물을 탐하느라 바삐 날개를 움직여서인지 시원한 바람이 일렁였다. 통광 스님을 만나기 전 스님께서 사시는 절 입구 공간이 주는 느낌은 이랬다.

스님의 첫 인상은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스님께서는 자신을 그릴 화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준비하신 게 분명

> 스님의 눈에 고인 눈물과
> 어지러운 눈썹을 그렸다
> 말 못할 번뇌를 안고 가시는
> 눈물 머금은 스님의 눈빛은
> 잊을 수 없다.

했다. 수발정제 했지만 머리부위에는 얇게 베인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다. 이런 삭발의 모습에서 배려와 욕망이 같이 느껴졌다.

나는 직업적으로 스님의 용모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마 위 머리 부위가 불쑥 솟아 살아있다. 얼굴은 검었고 이목구비의 선이 뚜렷했다. 눈썹은 숱이 많았다. 긴 흰 눈썹이 어지럽게 휘날려 파상형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눈은 작았지만 희고 검은 대비가 분명했고 깊었다. 눈 꼬리 좌우로 많은 주름이 형성 되어 있고 그 주름은 광대뼈는 물론 턱 아래로까지 연결돼 있다.

코는 오뚝했고 코 망울이 크다. 아울러 코 구멍도 형태가 뚜렷했다. 코 아래 인중은 길다. 입은 돌출되어 있다. 입술은 얇지만 힘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입 좌우 주름선이 깊고 턱 근육이 발달해 있다. 귀는 길고 얼굴 위쪽에 위치해 있다.

이런 제 요소들로 인해 굵고 강인한 인상을 만들어 낸다. 스님은 말씀을 잘 했고 유머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내내 자세는 꼿꼿했다. 스님의 모습 어디에서도 병세를 느낄 수 없었다.

스님께서는 시를 읊으며 자신의 삶을 드러내었다.

첫 번째 시는 포항 무학사에 계실 때 지은 것이라 했다. 스님께서 한문으로 지은 시를 종이에 적더니 해설해 주셨다.(이 한 시는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소 박동춘 소장의 도움을 받아 현대의 어법에 맞게 윤문하였다)

산마루에 흰 구름 날고
암자 아래 맑은 시냇물 흐르네
얼글 얼글한 눈썹 늙은 스님이
일 없어 고개를 떨구고 졸고 있네.

다음으로 화개동천 자혜정사에서 지은 시를 암송하셨다.

푸른 산 맑은 물 흰 구름 날고
맑은 바람 밝은 달 아래
시냇물 고요히 흐르네



통광 스님. 스님께서는 가사 장삼을 갖추시더니 의자에 앉은 동작과 좌복에 앉은 자세 등을 취해 주셨다. 동작을 취해 준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응해 주셨다. 스님의 자태는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표정은 없었다.



생성.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숭고하다. 심고 자르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생성과 소멸은 우주의 원리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 과정 속에 있다.

병든 늙은 승려 주야로 포행하니
혹은 앉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누워서 자유자재로 노니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잠깐 나가셨다. 스님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 제자스님이 통광 스님의 투병생활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병세가 더욱 악화 되고 있다. 암의 고통이 너무 심해 한숨도 주무시지 못할 정도이고 화장실을 달고 다니신다. 스님께서는 자신을 그릴 화가분이 온다하니 기다렸고,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며칠 동안 이전과는 다르게 고통도 없고 편안해지셨다고 했다.

스님의 병환과 투병 생활, 길어진 진료에 대한 어려움, 병환 중에도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낀다 했다. 통원 진료비 걱정도 했다.

이런 저런 세상사의 편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조용히 들어오셨다. 나가시기전 보았던 스님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말씀하시는 목소리의 톤은 더욱 낮고 정확했지만 어딘가 미세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서 오른쪽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입술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는 듯 양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고 계셨다. 이런 참을성이 오히려 뺨 곡선의 음영을 짙게 강조했다. 상좌스님이 말한 진료비 등의 걱정을 스님께서 들으셔서 얼굴빛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옅은 미소를 보이셨다. 나는 그 순간 양명한 곳에서 세상사를 뛰어 넘는 바람 소리와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처럼 모습이 좋을 때 사진 몇 장 찍어 놓는 게 좋겠다."며 밖에 나가 모델을 서 줄 것을 부탁 드렸다.

스님께서는 이내 가사 장삼을 갖추시더니 의자에 앉은 동작과 좌복에 앉은 자세 등을 취해 주셨다. 동작을 취해 준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응해 주셨다. 스님의 자태는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표정은 없었다.

몇 달 뒤 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스님의 다비식에 가지 못했다. 대신 스님의 눈에 고인 눈물과 어지러운 눈썹을 그렸다. 말 못할 번뇌를 가슴에 안고 가시는 눈물 머금은 스님의 눈빛은 잊을 수 없다.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불자 세상보기

사과 없는 아베 담화 '유감 천만'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일본의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지난 14일 패전(저들은 종전이라 함) 70주년을 맞아 담화를 내면서 전쟁, 침략, 식민지배, 반성, 사죄와 같은 말들을 사용,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이 교묘하고 다분히 수사적이어서 진정성이 없다는 게 국내외 언론들의 평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사죄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러번 반복해 왔다. 그래서 이번 그의 담화는 미리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95년 무라야마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에 일본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행한 가장 적극적인 사죄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졌고, 일본 역대 정부도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는 이를 계승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달랐다.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되풀이 하면서, 일본 정부가 무라야마 총리와는 다르게,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했다.

일본 극우세력의 속내를 그가 대변하면서 자신들의 과거 전쟁과 침략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내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선 그의 이러한 기세는 꺾이고, 과거 일본의 잘못을 뉘우치는 논조로 바뀌었다. 역사의 진실에 대한 아베의 왜곡이 아마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아베의 이번 담화를 환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아베의 담화는 전혀 진실성을 담고 있지 않은 언어적 유희와 같은 감이 없지 않다.

첫째로 아베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약소국들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세계적 시류에 의한 일본의 생존전략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육강식에 의한 영토확장과 부국강병을 노린 제국주의의 본색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아베는 10포인트 활자로 A4용지 가득이 3페이지가 넘는 담화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식민지배의 파도는 아시아에도 들이 닥쳤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 있어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중략〉일본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다. 나아가야 할 진로를 그르치며, 전쟁의 길로 나갔다."

이와 같은 아베의 말에서 보면, 서양 열강의 불록화된 식민지 경제에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세계 대세를 따라 일본도 침략 전쟁에의 길로 전진해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확장되는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에도 들이 닦쳐, 일본도 역시 이를 따라 배울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일본의 잘못이기 보다 서구 열강의 시대적 조류에 휩쓸린 것 뿐이라는 지극히 피상적 논리이다. 모두가 그렇다면 일본의 책임은 무엇이겠는가.

다음 두 번째는 이번 담화에서 한국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일본)는 '앞선 전쟁'에서 행한 일에 대해 반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해 왔다.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인 아시아 사람들이 걸어왔던 고난의 역사를 마음으로 새기며, 전후 일관했다는 그런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이번 아베 담화에서 침략국들에 대한 사죄의 핵심 문장이다.

아베가 말하는 "앞선 전쟁"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키고, 그들의 괴뢰정부로 '만주국'을 세우면서 벌이는 중-일 전쟁, 그리고 일본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쟁을 확대한 것, 또 1941년 미국을 대상으로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두고 한말이다. 그 문장 안에 '한국'을 넣었지만 이건 우리에 대한 사죄를 전혀 심중에 두지 않은, 지극히 허구적인 겉치레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역사적 관계는 1910년 '한일합병' 이래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 이번 담화에서 아베는 어디에서도 이런 한 · 일의 '식민지 지배' 관계에 대한 사죄는 없다.

아베는 이번 8.14담화를 통해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을 상대로 종전 70주년을 정리했을 뿐이다. 우리로선 유감천만일 밖에.

발언대

재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8월 20일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기의 한국불교, 재가불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교개혁 운동의 주체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발표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비제도권의 연대가 필요하다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조계종단은 대한민국의 0.9%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3000개의 사찰과 문화재 대부분과 정신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그마한 기득권에 집착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모를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종단 개혁 정신의 진짜 의미는 종단과 사찰의 공공성이다. 이러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자'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하지 말자'는 외침이 분명해져야 한다. 상벌을 분명히 하는 교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실현 가능성을 염에 두지 아니한 던지는 행위에 불가한 운동을 지양해야 한다.

가치지향적 집단에서 결국 시대 상황에 따른 올바른 변혁방향이 없으면, 집단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불교변혁운동은 1994년도에 그랬듯이 사회적 상부구조를 변혁시켜 사회를 정화시키는 지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주체 이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지계를 중심으로 행위에 대한 상벌의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고, 역사의 의미와 판단을 존중하면서 비기득권적 비제도적 의식을 고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합인 비제도권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매개로 폭넓은 연대가 가능한 틀을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개인의 외침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은 아직은 참여불교재가연대에 있다고 본다. 결국 이름값을 못하면 없어지던가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은 재가단체도 마찬가지다.

주체적 신앙 능력을 배양해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앞으로의 재가운동에는 종단이나 특정 스님과의 연관성이 적은 참신한 이들을 발굴해서 재가운동 전면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단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경력이 많은 기존 재가 활동가는 그런 이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분담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계나 부패에 있어서 특정사회에서의 허용범위라는 것이 있다. 집단의 위기는 그러한 허용 범위를 넘어설 때 초래된다. 그렇기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위기상황을 개선하고자하는 최소한의 개혁 의지가 있는 스님들과는 언제나 연대하는 열린 자세로 임하고 힘을 합쳐 상황을 풀어가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이들에게 억 단위의 돈이 부담없이 뒷거래되고 개인 소유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 투명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굴종의 신앙을 넘어 주체적 신앙은 청정 수행을 위한 첫 걸음이다. 종단 내에서 제대로 수행하며 전법에 힘쓰는 바른 승려에 대해 널리 소개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시하는 운동을 전체 재가단체에서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천도재 등 각종 의례 비용이 너무도 천차만별이라 신도들의 불만이 많다. 사찰 의식에 대해 합당한 기준 비용을 제시하고 이를 종단 차원에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돈이 된다는 것 하나로 신도들을 부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社說

아픈 곳 해소해야 대학생이 모인다

최근 20대 젊은이들은 한국을 '헬조선', '조선불반도'라고 부른다. 이는 취업, 결혼, 출산 등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자조적 표현이다. 반대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분투는 눈물겹다.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대학 동아리도 영어 스터디나 창업, 공모전 등을 준비하는 동아리가 인기다. 종교 동아리에는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실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따르면 2009년 158개 대학 지회가 있었지만 2015년 현재 122개 대학 지회로 줄었다. 6년만에 36개 지회가 줄어든 것이다.

8월 17~18일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교수불자대회에서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주제로 특별회의가 진행된 것도 대학생 포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충북 영동대 포교 방법은 현재 대학생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불교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모범 사례다. 이규호 영동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가 추진하는 불자 선후배 네트워킹을 통한 취업 멘토링으로 전무했던 법회 참가자가 50명 가까이 늘어났다. 학생들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불자교수연합회가 주축이 돼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대학간 연합법회도 눈여겨봐야 한다. 부산 지역은 대학 내 불교 동아리 회원이 1990년 1500명에서 2006년 150명으로 급감했지만 이 같은 연합법회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부산의 대학간 연합 법회 역시 신도회의 기업 대표들, 교수들과 법회 후 영화 관람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단순한 법회로는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계층 포교는 철저하게 대상 계층에 대한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힐링과 마음의 위안만이 실제적인 포교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한국갤럽의 2015 통계에서도 나오듯이 단순한 힐링법회와 템플스테이는 포교적 효과가 없다. 대학생 포교의 기본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파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찰 · 오피니언 리더 신도 · 교수의 삼박자 네트워크가 이뤄져야 한다.

불교무용대전에 지속적 관심을

7월 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대학로 소극장-스튜디오 SK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펼쳐졌다.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이다. 그동안 음악제와 미술제 등 문화관련 행사들은 많이 열렸어도 무용제는 처음있는 일이라 불교계 문화인사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대한불교조계종의 후원과 (사)한국춤예술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서 대상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전북대 이화석 무용학과 교수가 '다비'라는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서 이 교수는 불교의 자비와 구도정신을 몸짓 언어인 무대예술로 승화시켜 심사위원들로부터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교 예술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공연을 관람한 일본 기획자로부터 내년 10월 일본 아키타현서 열리는 '이시이바쿠 댄스 페스티벌'에 초청 요청까지 받아 다시한번 일본에 불교 포교 무용인 '다비'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까지 얻게 됐다.

무용 포교의 중요성은 그동안 계속 강조돼 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굵직한 행사는 엄두조차 못냈다.

그래도 이번 행사는 조계종 문화부의 후원금이 첫 무용대전을 여는 기폭제가 됐다고 한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총무원장상에 상금이 없었다. 예산부족으로 후원금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무용도 음악과 미술 못지않게 중요한 포교예술의 한 분야이다. 이번 첫 대회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불교계가 꾸준히 관심갖고 적극 후원해 명맥이 끊기지 않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300질 한정판 예약

《벽암록》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공안집
《종용록(從容錄)》 역주 · 해설판(전 5권)

천동정각(天童正覺) 송고(頌古) / 만송행수(萬松行秀) 평창(評唱)
석지현 역주 · 해설(벽암록 역주 · 해설자)

《종용록(從容錄)》은 벽암록과 더불어 선가(禪家)의 필독서!
선종의 공안 송고 평창집(公案頌古評唱集:공안에 대한 송과 평론, 주석, 해설서)

이 종용록은 원문을 수록하고 현토 · 완역했으며, 또한 각 단락마다 상세한 해설과 주註를 달았고,
《종용록 어휘사전》까지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용록 어휘사전》은 종용록에 나오는 문어체와 구어체 등 모든 용어를 해설한 사전입니다.
이 사전 한 권만 있어도 선어록을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주 · 해설자는 《벽암록 전 5권 값 145,000원》을
역주 · 해설한 석지현 스님으로 번역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 출간일 9월 30일 / 배본일 10월 5일부터 배본
▶ 하드카바 / 각권 400~450쪽 어휘사전 198쪽
▶ 정가 : 전 5권 값 165,000원
▶ 예약 : 민족사 02-732-2403~4
▶ 예약금 : 65,000원
▶ 송금은행 : 농협 053-02-109450 윤재승 /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일감 스님의 금강경 내비둬 북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8월 21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특별 출연 이창선과 친구들(퓨전국악팀)

'내비둬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일감 지음 | 15,000원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망 조상님과 용맹 정진하신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백중날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법보시 하시면 크나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민족사 전화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남미륵사에 초대합니다

남미륵사 빅토리아 연꽃을 보세요...
가피의 삶이 시작됩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절 전남 강진 남미륵사
세계적으로 희귀한 빅토리아 연꽃과 소중한 인연을 맺읍시다.

남미륵사에 초대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한 도량, 남미륵사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빅토리아 연꽃이 한창입니다. 빅토리아 연은 연꽃의 여왕 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잎과 꽃을 가진 연꽃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연은 특히 거대한 잎과 멋있는 테, 아름답고 우아한 꽃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기 높으나 번식이 어려워 국내에서는 두 세곳에서만 재배되고 있습니다. 밤에 새하얗게 피어난 꽃은 이튿날 밤에 보라색으로 변하며, 겉잎을 물위에 내려놓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왕관을 펼쳐 올려, 보는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밤이 이슥해지면 꽃은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전국에 계신 스님, 불자님들께 빅토리아 연과 소중한 인연 맺으셔서 부처님의 충만한 가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 강진터미널 ➜ 군농면 풍농마을 시내버스 이용
· 장흥-해남간 18번 지방도로 이용 ➜ 풍농마을 진입

■ 주소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 1길 24-13 ☎ 061-433-6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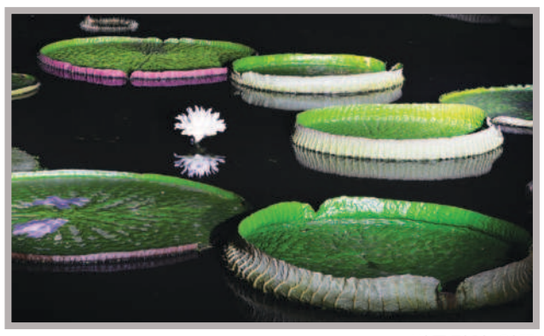

빅토리아 연꽃


빅토리아 연잎


동양 최대 아미타좌불상

●사진제공 : 하나로 고의태


수련


빅토리아 연꽃


수련


수련

문학

한국불교 문학 70년

원고지에 피운 '문학 만다라'



동국대와 사단법인 미당기념사업회는 2월 26일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 공연'을 개최했다. 동국대 교수를 지내기도 한 미당 서정주는 한국 근대 시문학사에 족적을 크게 남긴 인물이다.



유응오
소설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만해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에서 인용

만해 한용운 스님이 열반한 날짜는 1944년 6월 29일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게 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광복을 한 해 앞두고 열반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광복 70년, 불교 70년' 문학부문을 살펴봄에 앞서 먼저 필자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정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는 '근대화' 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문학' 에 대한 정의이다.

먼저, 근대화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흔히, 정치학적으로 근대화의 3요소로 △산업화 △민족주의 △자유인의 출현을 꼽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 근대화의 핵심요소들이 동일시기에 구현되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근대화 과정이 일제강점기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단계를 살펴보면, 1750~1810년 중상주의(상인자본), 1810~1870 자유주의(산업자본), 1870~1930 제국주의(금융자본), 1930~1990 후기자본주의(국가독점 자본), 1990 이후 신자유주의(다국적 자본)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도 우리나라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근대화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복 이후 곧바로 6.25전쟁을 치러야 했던 까닭에 근대화 과정은 정상적으로 구현될 수 없었다. 특히 전후 사회에서는 '산업화' 에 밀려 '민주화' 의 실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글은 불교문학이 광복 70년 동안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교문학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홍기삼 평론가는 〈불교문학의 이해(민족사)〉에서 불교문학을 분류하면서 △불교경전 문학 △붓다의 가르침을 세계관적 토대로 수용한 창작문학 △경전과 창작의 중간 지대에 걸쳐 있는 문학의 자원(선시, 불교설화, 승전류, 영험록 등)로 나눴다.

이글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을 다룬 창작문학만을 다룰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사르트르가 말했다시피 "문학은 영구혁명 안에 있는 사회의 주체성"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사회적 종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불교문학 역시 사회 현실을 담보해야 한다는 명제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불교문학들을 간단히 논하되 불교적인 제재를 차용함은 물론이고 주제에서도 보살(菩薩) 사상, 무아(無我) 사상, 선(禪) 사상 등 불교사상을 다룬 작품들을 텍스트로 했다. 그 이유인즉슨, 불교사상에 입각해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불교문학의 범주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시의 본령으로 서정을, 소설의 본령(本領)으로 서사를 꼽고 있는데, 이 역시 근대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대 불교문학의 원형

서정적인 시와 서사적인 소설이라는 한국 근대문학의 원형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만해 한용운과 춘원 이광수이다.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는 보살사상이 용해돼 있다. 이타행을 통한 중생구제의 태도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것이다. 시집에 가장 빈도가 높은 다섯 개의 어휘는 '사랑(146), 꽃(74), 눈물(62), 이별(60), 죽음(41)' 이다. 〈님의 침묵〉이 대표적인 서정시집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기삼 평론가가 지적했다시피 '만해의 시가 서정적인 아름다운 연가로 읽혀질 때 그의 모국어 사랑, 진실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육체를 가진, 그래서 온갖 고통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의미가 되어 아침 햇살 속의 이슬처럼 한결 영롱한 빛을 내뿜게' 되는 것이다.


만해 한용운


이광수

만해 스님 · 이광수 초석 다지고
미당 서정주 · 김동리 기둥 올려
1970~80년대 불교 구도 소설
역사의식 · 보살정신 회통 보여줘

만해 한용운은 소설도 남겼는데, 1938~1939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박명〉은 순영의 대철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보살행의 실천을 역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춘원 이광수는 〈이차돈의 사(1935)〉, 〈사랑(1938)〉, 〈세조대왕(1940)〉, 〈원효대사(1942)〉 등 장편과 〈무명(1939)〉, 〈꿈(1938)〉 등 중 · 단편의 불교적 작품을 남겼다.

이중 단편 중에는 조신설화를 모티브로 한 〈꿈〉이, 장편 중에는 원효대사의 일대기를 그린 〈원효대사〉가 대표적인 불교소설로 꼽히고 있다.

〈원효대사〉는 원효 스님이 방울 스님에게서 선을 배움으로써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춘원 이광수가 창씨개명을 하고 조선문인협회를 결성하는 등 대일 협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당시에 쓰인 것이어서 일본의 대동아 전쟁을 두둔하기 위한 작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밖에도 일제강점기 불교문학으로는 1910년대에 발표된 양건식의 단편소설 〈석사자상〉, 〈한일월〉, 〈아의 종교〉, 〈오(悟)!〉와 1930년대 현진건의 장편소설 〈무영탑〉을 꼽을 수 있다.

만해 한용운과 춘원 이광수는 일제강점기에 시의 서정과 소설의 서사라는 기틀을 만들었고, 대표적인 불교문학을 남긴 주인공이었다. 다만, 둘의 차이가 있다면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민족주의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때로는 제국주의에서는 파시즘의 도구로 전락하지만, 약소국에게는 파시즘에 맞서는 이념이 된다.

끝까지 일제에 맞선 만해 한용운과 중도에 일제에 부역한 춘원 이광수의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미당, 근대 문학의 기둥을 세우다

만해 한용운과 춘원 이광수가 한국 근대문학의 기초를 닦았다면, 미당 서정주와 김동리는 한국 근대문학의 기둥을 세운 인물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서정주


김동리

미당 서정주는 석전 박한영 스님과의 인연으로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전(中央佛專)에서 수학하게 된다. 그 결과 불교사상에 심취하게 되고 시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게 된다. 들끓는 원시성과 생의 의지로 충만했던 처녀작 〈화사집(1941)〉과 달리 미당의 시세계는 〈귀촉도(1946)〉 이후 전통문화에 차츰 경사된다. 〈귀촉도〉, 〈견우의 노래〉 등 작품들은 특유의 가락과 조탁된 언어로 전통적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이후 미당은 〈서정주시선(1955)〉에서 〈국화 옆에서〉, 〈상리과원〉,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무등을 보며〉, 〈풀리는 한강 가에서〉 등 작품을 통해 핍진한 전후 한국사회를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자연의 품을 빌려 위무한다.

미당의 시 세계는 〈신라초(1960)〉에서 신라의 역사 속에서 영원성을 발견한다. 〈선덕여왕의 말씀〉, 〈꽃밭의 독백〉, 〈노인헌화가〉, 〈인연설화조〉 등이 그 대표작이다.

미당이 본격적으로 불교사상에 귀의한 시집은 《동천(1968)》이라고 할 수 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내가 돌이 되면〉, 〈가벼이〉 등 작품들은 연시(戀詩)의 형태를 빌리고 있으나 그 내용은 불교사상으로 충만해 있다.

미당 서정주는 60여 년 동안 1,000편에 가까운 시를 남겼다. '시인 부족의 족장' 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그는 우리의 모국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사상이 얼마나 심원한지 시를 통해 일깨워줬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에서 민족의 정한은 맑게 씻기어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바뀌었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서사문학의 원형을 만든 것은 김동리이다. 미당이 가장 한국적인 서정시를 썼다면, 동리는 가장 한국적인 서사를 썼다고 할 수 있다. 김동리는 우리 민족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불선(儒佛仙) 사상은 물론이고 토속사상과 기독교사상까지도 서사 속에서 용해하는 기량을 보였다.

토속사상이 깃든 작품으로는 《을화》, 〈무녀도〉, 〈황토기〉, 〈달〉, 〈역마〉, 〈바위〉를, 기독교 사상이 깃든 작품으로는 《사반의 십자가》, 〈목공 요셉〉을, 유교사상이 깃든 작품으로는 〈화랑의 후예〉, 〈용〉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솔거〉 3부작, 〈등신불(1961)〉, 〈극락조(1968)〉, 〈눈 오는 오후(1969)〉, 〈저승새(1977)〉, 등이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에 해당한다.

〈솔거〉, 〈잉여설〉, 〈완미설〉은 불화(佛畵)를 모티브로 한 연작소설로서 비록 불교사상이 서사 속에 제대로 용해되지 못한 단점은 있으나 이후 한국 예술가 소설의 원형이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등신불〉은 등신불을 제재로 다루고 있고, 그 주제도 승속일여(僧俗一如) 사상이어서 김동리의 대표적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문학
한국불교 문학 70년

맑고 향기로운 바람 일으켜



2014년 만해축전의 모습. 불교를 넘어 한국 근대문학의 초석을 다진 만해 한용운 스님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양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인 불교소설로 꼽을 만하다.

〈등신불〉은 학병으로 중국으로 끌려간 23세의 화자가 부대를 탈영해 한 사찰에 은둔한다는 게 줄거리다. 그 과정에서 화자는 정원사에 안치된 등신불을 친견한다. 등신불을 보는 화자의 심정은 아래와 같다.

허리도 펴고 앉지 못한, 머리 위에 조그만 향로를 얹은 채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오뇌와 비원이 서린 듯한, 그러면서도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 같은 것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콱 움켜잡는 듯한, 일찍이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그러한 어떤 가부좌상이었다.

소설 말미에서 원혜대사는 만적의 소신공양 이야기 끝에 화자에게 식지를 들라고 한다. 이는 나의 식지와 만적의 소신공양이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저승새(1977)〉도 윤회사상이 잘 용해된 빼어난 김동리의 불교소설이다. 만허 스님이 주석하는 곳마다 저승새가 나타나는데, 이 저승새는 세속에서 사랑했던 여인인 남이가 환생한 것이다.

전후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인 미당 서정주와 작가인 김동리가 불교사상에 심취한 작품들을 남겼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한국문화의 젖줄 중 하나가 불교사상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미당 서정주와 김동리는 심원한 사상을 다루고 탁월한 미적 성취를 이뤘지만, 젠더(Gender, 계급성)적인 측면에서는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미당 서정주와 김동리는 친일행적은 물론이고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근대사 과정에서도 순수문학을 주창하면서 문단권력의 실세로 행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일 행적과 독재 찬양 발언 등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당 서정주와 김동리가 남긴 문학적 궤적까지 폄훼돼서는 안 될 것이다. 미당 서정주와 김동리의 문학은 어찌 보면 전근대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종교의 경지로 승화될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구도소설, 깨달음을 소설로 만나다

미당 서정주 밖에도 6.25전쟁 전후로 많은 시인들이 불교작품들을 남겼다. 6.25전쟁 이전 활동한 시인으로는 백석, 김달진, 조지훈 시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백석은 토속 언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민족공동체의 정취를 복원했는데, 〈여승〉, 〈수라(修羅)〉, 〈절간의 소 이야기〉, 〈고사(古寺)〉 등 쓸쓸한 정조의 불교작품들은 식민지민의 정서를 대변하기에 충분했다.

그런가 하면 월하 김달진 시인은 승려 출신답게 심원적 불교적 사유가 용해된 작품들은 남겼다.

조지훈 시인도 승려 출신 시인 중 하나이다. 그가 남긴 〈앵음설법〉, 〈승무〉, 〈고사(古寺) 1〉 등은 불교사상이 깃들어 있으면서도 탁월한 서정의 결이 돋보인다.

이밖에 김광섭의 〈저녁에〉와 박두진의 〈유전도(流轉圖)〉도 윤회사상을 다룬 서정시로 손꼽을 만하다.

6.25전쟁 후 활동한 시인으로는 이형기, 박재삼, 신경림, 고은, 홍신선, 박제천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형기의 〈낙화〉, 신경림의 〈갈대〉, 고은의 〈문의마을에 가서〉는 불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시로 형상화되는지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그중에서도 산업화 과정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를 맞아 한국문학도 한층 진일보하게 된다. 당시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의식(혹은 계급의식)이 전면에 출현한다는 것이다. 소위 말해 실천문학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1970~1980년대의 불교문학은 역사의식이 보살사상과 회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황석영과 조정래를 꼽을 수 있다. 황석영은 단편 〈삼포 가는 길〉에서 백화라는 술집 작부의 삶을 통해 당대 관음보살의 현현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백화는 관음보살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조정래는 대장경을 편찬하는 과정을 그린 역사소설 〈대장경(1976)〉을 통해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가르침을 역설했다.

당대 발표된 양대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태백산맥〉과 〈장길산〉에 등장하는 승려들이 신음하는 민초의 삶을 위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1970~1980년대 불교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구도문학이 잇따라 발표된다는 것이다. 김성동의 〈만다라〉, 한승원의 〈아제아제 바라아제〉, 강인봉의 〈구나의 먼 바다〉, 남지심의 〈우담바라〉가 대표적인 불교계 구도소설로 꼽을 수 있는데, 이 작품들은 승려인 주인공이 불교적인 가르침을 사회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고뇌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중 〈만다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우담바라〉는 영화화돼 많은 관객이 몰리기도 했다.

정찬주는 1980년대부터 근현대 스님들의 전기를 소설로 펴냈다. 그의 생생한 전기 소설은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미대사의 한글창제 역할을 다룬 〈천강에 비친 달〉을 출간하기도 했다. 1970~1980년대에는 시단도 민초들의 아픔을 위무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시담론의 1990년대 불교문학

1990년대 이후 불교문학의 특징으로는 미시(微示) 담론과 현학주의를 꼽을 수 있다. 미시담론은 1970~1980년대 문학의 특징인 거대담론의 반대급부로 나타난 것으로 존재론적 고독을 다루는 특징이 있다. 미시담론의 불교문학으로는 윤후명과 윤대녕 작가의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이 두 작가의 작품은 불교적인 제재를 통해 영원성을 노래한다는 점과 빼어난 문체문학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윤후명의 〈돈황의 사랑〉과 윤대녕의 〈신라의 푸른 길〉 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도 구도소설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데, 1970~1980년대와 다른 점은 보다 현학적인 성향을 띠고 가공의 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의 전기를 다룬다는 것이다.

승려출신인 고은이 선재동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화엄경(1991)〉과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까지의 구도기를 다룬 〈선(禪)〉을, 한승원이 초의선사의 행장을 형상화한 〈초의(2003)〉와 원효선사의 행장을 재해석한 〈원효(2006)〉를, 최인호가 경허선사의 행장을 모티브로 한 〈길 없는 길(1993)〉을 발표했다. 이중 한승원의 〈원효〉는 이광수의 〈원효대사〉와 달리 원효를 반전주의자로 그림으로써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원효사상이 지니는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노력했다.

이밖에도 1990년대 이후 불교소설로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황석영의 〈심청〉, 송기원의 〈안으로의 여행〉, 김성동의 〈꿈〉을 꼽을 수 있다. 〈심청〉은 매춘 오디세이아의 서사 속에서 보살행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안으로의 여행〉은 자전적 구도 여정이 돋보이고, 〈꿈〉은 조신설화의 재해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990년대 이후 불교시를 발표한 시인은 수없이 많아 이름만 언급해도 이 지면이 다 채워질 정도이나 불교와 생태주의의 회통을 추구한 이문재 시인과 서정시 속에 불교사상을 용해하는 노력을 거듭한 문태준 시인만큼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현대 한국문학에서 불교 아동문학으로는 정채봉의 〈오세암〉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문학은 질곡의 근·현대사 속에서 대중과 함께 웃고 울었다. 다만, '근대문학의 종언'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상황에서 종교와 문학이라는 두 숭고미의 본령이 한국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광복 70주년 대표적인 승려문인은?

韓 문학 전반 걸쳐 큰 영향


故 법정 스님 오현 스님 정휴 스님 청화 스님

광복 70주년 동안 활동한 승려문인은 적지 않다. 제3세대 문인들이 대거 활동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절정기인 이른 1970~1980년대에 불교문학도 꽃을 피우는데, 이때 특징 중 하나가 1970년대 전후로 등단한 승려문인들이 시, 소설, 수필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오현 스님이 1968년 〈시조문학〉 시조부문에, 지현 스님이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 정휴 스님이 197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성우 스님이 197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청화 스님이 197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잇따라 등단한다.

이중에서 꾸준히 시 창작을 한 스님은 오현 스님과 청화 스님이다. 선시와 현대시가 조우하는 지점을 꾸준히 모색해온 오현스님은 《아득한 성자》, 《마음 하나》, 《절간 이야기》 등 시집을 출간했으며, 그 문학적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정지용문학상,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시 오현 · 소설 정휴 탁월한 업적
법정스님 '무소유' 수필 열풍
〈유심〉 등 불교문학 견인차

특히 오현 스님은 만해축전을 개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백담사를 문예도량으로 거듭나게 했으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한 〈유심(唯心)〉을 복간해 발행해오고 있다.

청화 스님은 시집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수필집 《돌을 꽃이라 부른다면》을 상재했다.

정휴 스님은 유일하게 서사문학에 천착했는데, 경허선사를 소재로 한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불교사상에 입각해 죽음문제를 다룬 《열반제》, 광기 속에 예술혼을 펼친 중광스님의 삶을 그린 《중광》 등을 발표했다. 정휴스님은 선(禪) 문학을 대중화하는 작업에도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1970~1980년대의 현상 중 하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필문학의 시대를 견인했다는 것이다.

1980년에는 '승려시인회'가 발족됐고, 1983년에는 시인회를 모체로 '승려작가협회'가 창립됐다. 이후 진관 스님을 중심으로 승려시인회가 꾸준히 활동 중에 있다. 진관 스님 역시 최근까지 24권의 시집을 발간하는 등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불교계에는 시 전문 계간지인 〈유심〉이 복간되고, 문예계간지인 〈불교문예〉가 1995년 창간호가 발간돼 불교문예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1995년 제정된 현대불교문학상은 시인 신경림, 이시영, 정희성, 홍신선, 공광규, 소설가 한승원, 최인호, 전상국, 조정래, 송기원, 평론가 홍기삼, 권영민, 조남현, 김인환, 방민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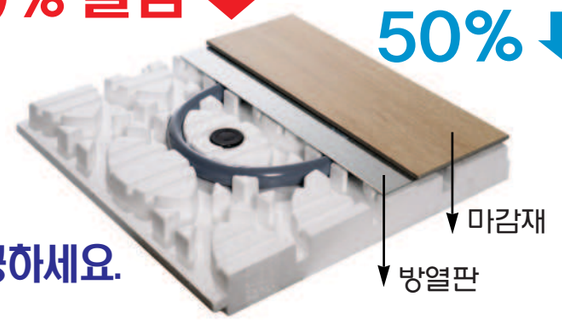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 시 건 강 상 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母子로 道伴으로 여여하게…

〈모자〉 〈도반〉

母子 이란 여여원장 · 이재성 교사



어머니와 아들 가정 법회를 20여 년 이끌어 온 이란 여여원장(왼쪽)과 찬불동요 작곡가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 이재성 씨. 뒤에 보이는 현판 안심료는 당호. '안심하고 찾아오는 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란 원장(법명 수덕화, 修德華)은 (사)대한불교법사회 법사, (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 사임당 · 율곡 장학재단 이사, 시문회 회원이다. 아들 이재성 씨는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로 서울초중등컴퓨터음악교육연구회장, 한국동요작곡가협회 양악 교육팀장, (사)한국동요문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정 법회 20여년 이끈 어머니
이웃과 나누는 보시행 '귀감'
참고 기다리는 '甘忍待' 모자의 화두

15년전 난소암 판정 받고도
군입대 앞둔 아들에게 말 안해
"불법 만나 죽음 두렵지 않았어요"

교대 졸업후 교사의 길 걸으며
찬불가 작사 · 작곡 · 지휘
"어머니의 삶 존경하고 감사해"

이란 여여원장은 재가불자로서 20여년 가정법회를 이끌어왔다. 그는 자신의 집을 법당으로 개방해 이웃의 가족들을 법회로 초대했고 또 법사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면서 신행활동을 이끌었다. 이런 어머니 덕분일까. 그의 큰아들 이재성 씨(서울교육대 부설초등학교 교사)는 찬불 작곡가와 사찰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며 불음을 전파하는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지중한 인연으로 만나 부처님 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까지 이란 원장(66)과 아들 이재성(42) 모자의 인연의 향기를 소개한다.

안심하고 찾아오는 집 '안심료'

8월 13일 무더위와 소나기가 오가는 여름날 광진구에 위치한 이란 여여원장의 자택을 찾았다. 아파트 11층에 위치한 이 원장의 자택에 들어서자 왼쪽 통창으로 여여하게 흐르는 한강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왔다. 그 다음으로는 피아노 위 '안심료(安心寮)' 라는 당호가 새겨진 현판이 들어왔다. 안심하고 찾아오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당호는 해인사 전계사 종진 스님이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오고 가며 불법을 익혔을 이곳은 선원에 온듯 여여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 원장이 우려내는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듯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불자로서 오랜 시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해왔고 그런 어머니를 어린시절부터 지켜보았던 아들. 그 긴 인연의 시간을 어디서부터 꺼내 놓아야할까.

우선 20여년 전 이 원장이 난소암에 걸리고 난후 어머니가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군에 갔던 그때의 이야기부터 들었다. 이 원장은 15년전 당시의 기억을 담담히 이야기 해나간다. "둘째 아들이 고3이었고 큰아들은 군에 가기 전이었는데 난소암 판정을 받았어요. 불교공부를 한 탓인지 암에 걸렸다고 해도 크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저 큰 일을 앞두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게 걱정이 됐죠. 그래서 수술 날짜도 큰아들 군대에 간 이후로 잡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군에 있는 3년 내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리지 않았죠. 군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라는 배려에서였어요."

제대를 하고 난 뒤에야 어머니의 병을 알았다는 재성 씨는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많이 놀랐고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군복무 중에 도반 보살님들과 음식을 준비해와서 면회도 오시고하셨지만 수술을 하신 줄은 몰랐어요. 제대하고 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신 어머니의 지혜와 인내에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또 아들의 입장을 고려한 배려에 감사할 뿐이죠. 그 모두가 오랜 시간 수행으로 스스로를 잘 다스려 온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다. 결혼을 하면서 시댁의 종교를 따라 불교를 믿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불교가 복을 비는 기복종교인 줄만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 업무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주말 부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그때 불교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한다.

"남편 친구 모임이 있어 부부 동반으로 남한산성에 놀러 갔다가 성불사 도원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어요. 산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일이라는 요지의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을 모두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가슴에 와 닿았죠. 얼마 후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성불사를 찾아갔어요. 스님께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고 청했죠."

묵묵히 계시던 도원 스님은 한지에 붓글씨로 '감인대(甘忍待)라는 글씨를 써 주었다. 이후 감인대는 이 원장의 화두가 되었다. 이 화두는 이란 원장에게 사바세계는 묵묵히 견디며 살아야하는 인토(忍土)임을 알게 해주었고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봉은사에 나가 불교 서적을 읽으며 지은대로 받고 행동한 대로 윤회한다는 가르침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생기는구나, 나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닦으면 되겠구나라는 가르침을 얻었죠. 다행히 좋은 것을 빨리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었기에 바로 발심을 하게 되었고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죠. 이후 태고종 전 종정이셨던 덕암 스님에게 수덕화라는 법명을 받으며 신행 생활을 이어나갔죠."

어머니가 제시해 준 길을 따르다

재성 씨에게 어머니는 늘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다. 그가 오늘날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데에도 어머니의 의견이 큰 작용을 했다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큰아이는 동생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것을 잘 하더라구요. 둘째 아들은 병원 놀이를 재미있어하구요. 그래서 큰 아이는 교사로 키우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는데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주었죠."

재성 씨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교육대학으로 진로를 정했다. "처음 어머니가 지방의 교육대학을 권했을 때는 저도 남들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기도 했어요. 음악에도 관심이 있어 음악 관련학과를 가고 싶기도 했구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권유가 정말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가 된 이후에도 음악도 지도하고 또 작곡 관련 공부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아들에게 가장 맞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이 원장은 혜안이 있는 몇 분의 스님들에게 조언을 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심성이 고와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춘천교육대학으로 원서를 썼어요. 그 당시는 모험이었죠. 아이를 혼자 지방에 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쳐놓고 합격자 발표를 보러가니 장학생으로 붙은 거예요. 그저 불보살님의 가피라 생각하고 장학금 받은 만큼을 108개의 약과 상자를 만들어 주변 분들한테 나누어주었죠."

물론 지방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당시 스무살이던 재성 씨에게도 이 원장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춘천교대 앞에 아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이 원장은 많이 울었다고 한다. 아들 재성 씨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저를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서울로 가시며 많이 우셨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저 역시 생전 처음 가족과 떨어진데다 여럿이 함께 묵는 하숙집에서 살아보는 것은 처음인지라 적응이 쉽지는 않았죠. 힘들 때는 불자였던 하숙집 아주머니를 따라 청평에 있는 절에 가서 위로를 받고 왔어요. 어머니는 제가 집에 없는 동안 늘 식사 때마다 부엌 한켠에 제 밥을 떠놓고 숟가락 젓가락을 놓아두셨다고 해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뭉클할 뿐입니다."

교육자가 된 재성 씨는 지금도 어머니의 교육방식과 철학이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말 한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책을 읽으셨어요. 저도 그 옆에서 책을 읽었죠. 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부처님전에 삼 배의 예를 갖추시죠.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늘 정진하시며 자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자애로운 교육방식과 철학을 어떤 이론서보다도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교육,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늘 아이들을 지켜보고 몸으로 행하는 바를 먼저 보여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불동요로 불음을 전파

재성 씨는 책 읽고 글 쓰는 어머니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동시를 쓴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동요를 작사작곡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도 어린이관현악단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동요작곡가협회 운영위원, 한국동요문화협회 회원, 한국서정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성 씨는 경남 MBC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에서 '어린이 세상' 으로 은상을, 울산 MBC 서덕출 창작동요제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 으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동요제에서 수상을 한 실력파 작곡가이기도 하다.

또한 찬불동요를 작곡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맡는 등 불자로서도 그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교방송이 주최하는 '제5회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에서 그가 이끄는 일곱빛깔 중창단의 '산사로 오세요' (작곡 이재성 · 작사 배정순)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 수상곡인 '산사로 오세요' 는 풍성한 자연이 함께하는 산사로 오라는 내용을 밝고 경쾌하게 담아낸 곡이다. 이는 2012년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부처

※ 2016년 달력 ※



12절(벽걸이형) 달력
100부@1,000원
삼천부 이상@800원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700 (100벌 이상)
동남영가옷 정가 900원 동녀영가옷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121068-56-042256 [예금주:강태규]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네 마음도 지휘하여라”



지난해 불교방송이 주최하는 ‘제5회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에서 이재성 씨(맨 왼쪽 두번째)가 이끄는 일곱빛깔 중창단의 ‘산사로 오세요’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인도 굿시나가르, 이란 원장과 여여원 회원들이 성지순례 중 참배를 하고 있다.


방이동 시절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다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재성 씨, 우담 거사, 이란 원장, 막내 재준 씨



틱낫한 스님 방한 법회 당시 월정사에서. 왼쪽부터 이재성 씨, 우담 거사, 이란 원장

님께 가는 길’로 같은 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은 이후 찬불 동요로는 두 번째 수상이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행 활동은 꾸준히 해왔는데 대학 때는 우리는 선우 청년부에서 활동했죠. 당시 도반들이 캠프송을 만들어 보라고 권해서 캠프송을 만든 것이 제 첫 작곡이에요. 2012년 불교방송에서 인기상을 받은 ‘부처님께 가는길’은 제가 많은 애착을 가진 곡이기도 해요. 오색 연등 따라 부처님께 가는 길을 통해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늘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던 기억을 떠올리며 만든 노래죠. 당시 아쉽게도 인기상에 머물렀지만 제 추억이 담겨 있는 의미 있는 곡입니다.”

그는 최근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로 부른 ‘아침 연기’를 작곡 ‘2015 창작 국악 동요제’ 본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른 아침 산골 마을에 피어나는 연기를 통해서 옹기종기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어머니가 밥 짓는 모습을 연상 시키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안고 일터로 향하는 내용을 굿거리 장단으로 흥겹게 담아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을 위해 이란 원장은 음악 교육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피아노는 기본이고 바이올린 가야금 성악까지 공부를 했죠. 제가 굳이 찬불 동요를 만들라고 권한 적은 없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들이 그대로 노래 속에 들어 있는 듯합니다.”

가족을 도반으로

두 모자의 공통점은 평생 공부하며 살고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 이란 원장은 오십이 넘어 동국대 불교학과에 만학도로 입학해 공부를 했고 불교서울전문강당에서도 불교 공부를 이어갔다. 아들 재성 씨는 한양대대학원 영어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수원대 일반대학원 합창지휘과에 들어가 현재 음악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남편 우담 거사와 함께 모자는 문경 관음사의 지유 스님을 찾아 매달 초발심자경문 법문를 듣고 있기도 하다. 이 원장이 가정법회를 이끄는데에 가족과 도반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일찍이 수덕화라는 법명을 받았고 1996년 남편과 두 아들은 해인사에서 계를 받았는데 남편은 우담, 큰아들은 호경, 작은 아들은 삼현이죠. 가족들은 가정법회를 이끄는 저를 방이동 포교 국장이라 부르며 응원해 주었어요. 또한 지도 법사를 맡아주신 종진 스님, 또 함께 법회를 이끌어준 도반들도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이 원장은 사찰을 찾아 다양한 보시행을 펼쳤는데 운주사 연흥사 거조암 등의 사찰 불사, 여러 선방 대중공양은 물론 경전이 필요한 사찰에 한글대장경, 티베트대장경 등을 봉헌하고 불교서적 1만 여권 이상을 법보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남편 우담 거사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을 했다고. 이 원장은 “신심 깊은 도반들이 없었다면 이렇듯 오래 가정법회를 지속적으로 해올 수 없었습니다. 은행통장은 숫자로 보이지만 공덕 통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덕 통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이런 어머니의 삶은 재성 씨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늘 공부하시는 어머니와 그 도반님들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어머니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셨고 순간 순간을 의미있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생각해요.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죠. 어머니는 저에게 ‘네 마음을 지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불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것이 내 인생에는 큰 복이구나 하고요.”

이란 원장은 2013년 여름 다시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행복과 불행이 한쌍임을 아는 이 원장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한 잘 극복해 냈다. 불법을 삶의 지표로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여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란 보살과 아들 이재성 모자는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불제자의 길을 함께가는 도반이다. 이란, 이재성 모자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싹틔우는 가족으로 또 도반으로 오늘도 불법의 향기를 세상 속에 꽃피우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찬불가 대중화 운동

내가 머무르는 대구의 작은 암자에는 조그만 텃밭이 하나 있다.

여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부산의 도반스님을 만나고 돌아와 보니, 밭이 영 엉망이었다. 수확해야할 때를 지난 옥수수부터 감자며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허겁지겁 옷차림을 간단히 하고 밭으로 향했다. 뙤약볕 아래서 한참 일을 하다 보니, 밀짚모자는 흥건히 젖고 목덜미에 땀이 뚝뚝 떨어졌다. 그래도 게으른 일꾼을 탓하지 않고 혼자서 잘 자라준 옥수수, 감자, 콩을 보니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지, 절로 콧노래가 흘러 나왔다. 처음엔 조용히 흥얼거리다가 좌우를 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아예 대놓고 신나게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아~ 연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눈부신 햇살이 반짝이는 거리마다 오색 꽃잎이 반짝여 연등꽃 피리라”

그렇게 신나게 찬불가메들리를 부르고 더 부를 곡이 없을 때쯤 밭은 제 모습을 찾은 듯했다.

흙투성이에 땀범벅이 된 몸을 좀 닦으려고 서둘러 요사로 향하는데, 마침 보살님 한분이 법당참배를 위해 절에 오다가 들었는지 대뜸 “주지시님, 무슨 노래를 그래 열심히 부르시는교?”했다.

“들으셨어요?” 내가 겸연쩍어 대답을 하니, 보살님은 “근데, 스님 제가 얼핏 들으니 찬불가 같은데, 찬불가를 밭에서 일하면서 불러도 되는 겁니꺼?”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럼 보살님은 일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데요?” 그러자, 보살님은 환한 얼굴로, “당연히 트로트 아입니꺼? 트로트를 불러야 힘이 나지예. 호호 근데 스님은 트로트 모르시지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거 말입니더”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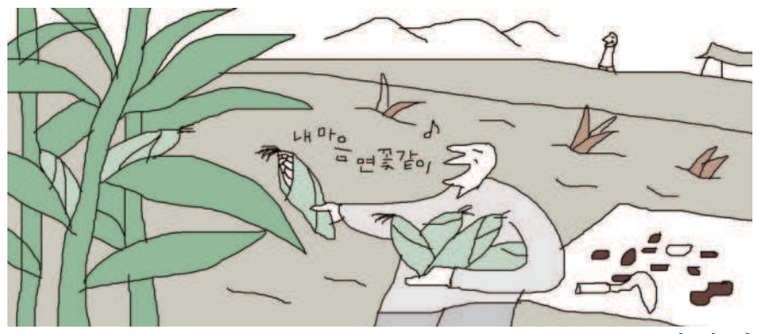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방에 돌아와 앉아 있으니 ‘트로트를 부르면 힘이 난다’는 보살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힘이 나는 노래, 힘들고 지칠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불자들에게 찬불가가 그런 노래가 되어야 한다. 내가 밭에서 찬불가메들리를 부르며 힘을 얻고 땡볕에서조차 신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불자들, 아니 우리 절 신도 보살님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찬불가 운동의 일선에서 수십 년을 부지런히 다니며 활동했지만, 내 절의 보살님조차 찬불가란 법당에서 여법하고 거룩하게 불러야 하는 노래라 여기시니, 불교 음악인들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좋은 벗 풍경소리’는 그동안 찬불가의 대중화를 내걸고, 찬불가가 불자들의 삶의 노래, 생활의 노래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3년째 조계사 (불교역사문화회관)에서 붓다콘서트를 열고 있다. 매월 셋째 목요일 7시면 관객이 많던 적던 어김없이 무대를 열었고, 전국의 수많은 사찰합창단과 숨은 불자인 연주자, 가수들을 무대에 세웠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도 몇몇 뜻있는 이들의 고집스런 열정으로 붓다콘서트는 힘겹게 이어져 왔다. 그간 3년 동안 무대에서 선보인 찬불가의 곡수만 해도 얼추 200여 곡 가까이 될 것이다. 8월 20일이면 38번 째 붓다콘서트를 열었다. 더러 불교음악에 대한 지원도 열악한 환경에서 불자들조차 외면하는 찬불가 운동을 뭣하러 하냐고 심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작은 무대를 지키고자 애쓰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불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붓다콘서트를 통해 새롭게 찬불가를 만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터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것 이상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며칠 전 신도 보살님께 찬불가 CD를 선물하며 작은 쪽지를 썼다. “보살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송대관, 태진아의 노래보다 신날 겁니다. 불자에게는 찬불가가 힘나는 노래입니다”라고.



덕신 스님(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대행 스님

블랙홀이라는 그 생산처는 바로 내 가슴에 직결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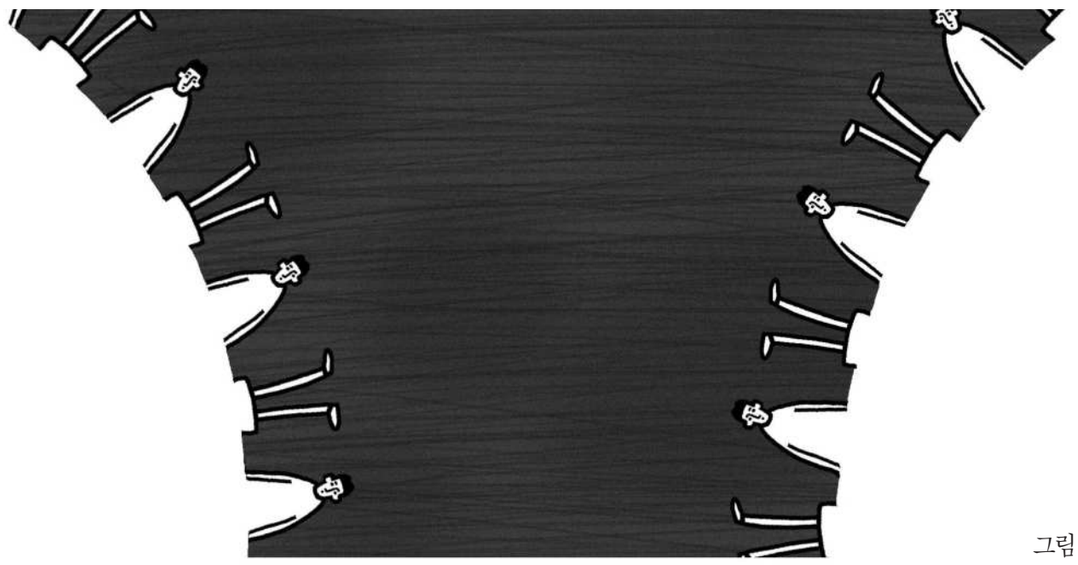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번에도 울산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신심이 돈독해서 여기에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한마음 여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소죠.

부처님을 한 분만 모셔 놓은 것은 그 부처님이 여러분과 몸이 둘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과 생명이 둘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부터 "내 고깃덩어리를 보지 말라. 내 골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미래의 정신계가 지금 물질계의 참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줄 모르고 항상 기복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가 '기복으로 해라, 마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미래의 정신세계와 더불어 같이 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님이든 아니든,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교 아닌 바가 없으니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합니다. 불(佛)은 영원한 근본, 즉 생명,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이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교(敎)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즉 말하자면 끝 간 데 없는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불 바람 흙, 이런 것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습니다.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생명이 생겨났고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이 말을 하려면 말도 길고 그렇지만 말한 사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발인지도 모르게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납득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끝 간 데 없이, 지금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부처님께서는 '불바퀴가 돌아간다' 고 하셨고 '우주 전체의 불바퀴' 라고 하셨고 '우리 불성을 먼저 알라' 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그렇게 말합디다마는 블랙홀이라는 그 생산처는 바로 내 가슴에 직결돼 있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울산 지역에 살면서 담을 똥그렇게 쳐 놓고, 담 바깥에서는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만 아주 안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번 바깥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땅속이나 물속이나 저 허공이나 다른 혹성이나 별성이나 어디고 아니 다니는 데 없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 그게 바탕이 돼서 오신통이라는 문제도 굴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법바퀴를 말입니다.

그 법바퀴를 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쓰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쓰고 있고 모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우리 앞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라는 재료가 충만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바로 50%의 저 언덕을 몰라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과거 50%를 생각지도 않고 현재 50%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생명이 생겨나서 미생물의 시대도 있었고 곤충의 시대도 있었고 짐승들의 시대도 있었고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난폭한 짐승들의 시대도 있었고, 또 인간이 될 수 있는 진화력을 가지고 실험하는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되는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증발해 버리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당에 가서 절이나 하고 음식이나 놓고 돈이나 놓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면 불자가 되는 줄 알지 마십시오. 어느 종교인을 막론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다 불자입니다. 불자는 불자대로 불자 노릇을 해야 불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의 근본을 알고, 우주의 근본이 자기의 근본 속에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모두가 자기 마음속의 근본에 가설이 돼서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뜻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허공을 믿을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 스님네들 고깃덩어리를 믿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도 믿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고 돌아가고 하는 그 자체 속에 바로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몸이 움죽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끌고 갑니까. 저 허공에 부처가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한 것만큼, 인연을 맺은 것만큼, 악으로 맺었으면 악이요 선으로 맺었으면 선이요, 악업 선업이 다,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그 모임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시키는 대로, 파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벌어지는 것은 바로 도청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돼 보겠다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잘되겠지. 이 직장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가면 잘되겠지.' 이래도 업식들은 여러분의 합쳐진 그 도청 입력기에 입력이 돼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살면서 생각했던 것이나 지금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입력이 되는 것은 도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바로 도청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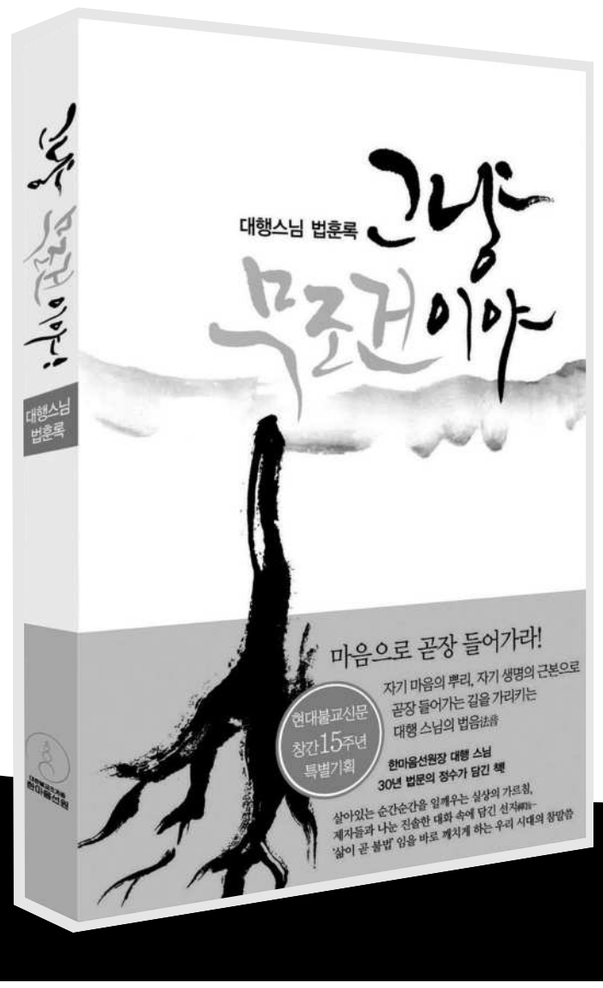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사람을 죽였는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본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남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즐거운 마음을 가졌을 테고 남을 언짢게, 이익 하지 못하게 생각했다면 바로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한테 모두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 찰나에 연락이 다 되며 한 찰나에 들고 나며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 현실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다, 그렇다 하고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지 못하고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한테 있고 팩시밀리가 여러분한테 있고, 탐지기가 바로 여러분한테 있고 무전통신기가 여러분한테 있고, 천체망원경이 여러분한테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건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천안통 숙명통, 이 다섯 가지이고 바깥으로 벗어나서 그걸 굴릴 수 있는 지배인을 바로 누진통이라고 그럽니다. 누진, 즉 레이더망도 두뇌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뜻을 잘 생각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하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숭상하고 나가야 됩니다. 불자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바로 불자도 나요 법신도 나요 움죽거리는 화신도 나입니다, 각자!

나는 여러분이 딱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병이 이렇고 이런데, 암이라는데, 또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한마음이 바로 부처!

☞ 29면에서 계속

백혈구가 이렇게 돼서 백혈병이라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인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그건 이름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혈관이 막혀서 뭉쳐 있는 것을 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다면 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이라고 하는 데 속지 마시고 그 이름에 질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재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재료로 있다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발전소가 돌아갑니까? 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날마다 삽니까? 여러분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고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각자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혹성입니다.

그 혹성 속에는 뭣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생명체가 별성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습은 그럴지언정 지금 그게 운행을 안 해 준다면 내가 못 사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별성인 것입니다. 혹성을 몸체라고 한다면 별성은 살고 있는 그 생명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이날까지 왔다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번 바깥을 보십시오. 바깥에 있는 건 전부, 보면 더럽고 무섭고 징그럽고 그렇지만, 그 징그럽고 더럽고 무서운 것들이 전부 나를 운행해 주고 나를 이렇게 움죽거리게 해 주고 건강하게 해 주고 또는 파워를 일으켜서 나를 못 살게 만들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내가 이렇게 두서없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두서없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말마따나 '바담 풍' 하더라도 '바람 풍' 하라고 제자들더러 가르쳤듯이 말입니다. 두서없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두서없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생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가깝고,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지금 행하면서 살림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우리 몸뚱이라면 이 몸뚱이 속에 사는 생명체들처럼 우리도 그 지구 속에 지구를 집을 삼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붙어서 살고 있을까요? 작든 크든 모두 생긴 것도 다르지만 차원들도 달라서, 이 세상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그릇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들을 보십시오. 종지가 있는가 하면 접시도 사발도 있어서 그렇게 여러 층으로 돼 있듯이, 사람들의 차원도 그렇죠. 도랑물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연못이 있어서, 그걸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조성돼야만이 썩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불법을 가르치면서 바깥으로 찾지 말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역대 조사들도 "만약에 너희가 바깥으로 만날 칠성 독성 산신을 찾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소굴이요, 바로 마구니가 말하는 것이니 마귀에 빠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둘로 보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말로 한데 떨어져서 마구니로 이끌어 가는 길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아무리 이론으로다가 무불통지해서 설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둘로 본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소굴이다. 그리고 공덕이 없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을 한 분만 모셔 놓은 것은
그 부처님이 여러분과 몸이 둘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과 생명이 둘이 아닌 것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량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말을 할 때는 입력이 돼서 에너지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와 우리가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주는 게 있고 낮에 받는 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거 한마디만 해도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혼은 다 뺏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속에 큰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쇳덩어리라고 하는 쇳덩어리는 다 여러분 자석에 붙어 들어오지마는 여러분의 자석이 작다면 그 조그마한 내 자석 하나 있는 것마저도 다 딴 데로 가서 붙어 버려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에너지와 모든 혼을 뺏기니 빈집에서 무슨 되는 노릇이 있겠습니까?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든 것이 아귀들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와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데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데서 실험을 하고, 실험하는 데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한테 기대는 마음, 남을 믿어서 보증이나 서 주는 마음, 남을 믿어서 속기나 하고 망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속고 속이고 이러는 마음들을 가지고서 항상 살아나가니 여러분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집이 비었으니 말입니다.

또 내가 새삼스럽게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의 모든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저거 죽여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대로 따라 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선한 마음을 먹어도 그대로 따라 주기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대중 가운데서 이해 갑니다.

큰스님 네. 지금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저런 벌레들도 좋고 나쁜 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막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을 잡아먹고 잡아먹히지는 않아도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뺏기고 그럽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지배인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인간은 좋고 나쁘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좋고 나쁘고를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해서, 모르는 모든 중생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하화중생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는 이 자체를 먼저 알아야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뚱이 속의 생명들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다스리는 마음이, 좋고 나쁜 거를 아는 마음이, 나라는 아집과 착, 이런 거를 다 놓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중생을 전부 천백억화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힘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삼십이응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악이 와서 '날 좀 살려 주시오.' 하면 둘이 아니게 한마음을 내서 바로 건져 주고 내가 돼 주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한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 세상의 모두가 나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습니다. 바로 끝 간 데 없는 진리입니다. 기어 다니는 조그마한 벌레가 땅을 딛고 있는 그 발도 내 발이기에 바로 평발이니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발이 뭉뚝하게 잘라져서 평발이 아니라, 벌레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평발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들자 가섭이 웃고 한마음이 돼 버렸습니다. 꽃 한 송이 들 때와 가섭이 웃을 때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둘이 아닌 한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나아가서는 그 꽃을 들고선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 모두가 한자리요, 한몸이라는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말 없이 일러 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아니 되죠. 그 뜻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하고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믿을 때 올바로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 풀 한 포기만 남아도, 아니 흙만 있어도 불교는 있는 겁니다. 우린 그 네 가지로 빚어진 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물에 가면 물이 참 좋고 산천초목을 보면 그렇게도 좋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시지 않죠? 그렇게 신선하고 좋죠! 여러분의 고향이니까 그렇습니다. 억만 년을, 수억겁을 거쳐 왔다 하더라도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천초목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들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정신, 혼, 이런 걸 뺏기고 뺏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뺏기셔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식구들을, 악업 선업의 인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보살로 화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다스리는 마음, 한마음입니다. 아집이라는 마음, 착이라는 마음 그걸 다 다스리면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동, 남을 이익 하게 하는 마음으로써, 자기가 조금 밑지더라도 둘로 보지 말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 할지라도 고정되게 나쁜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도 고정되게 좋은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모를 때의 내 모습으로 생각하세요. 어린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 형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 자식 내 부모로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골무더기에다 큰절을 했죠. 그러니까 "사생자부인 어버이신데 어찌 하치않은 해골에다가 큰절을 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얘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저기 가서 구름처럼 모였다가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억겁을 거쳐 나왔어. 그러니 저 해골이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절을 안 하겠느냐." 하니 "미처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부모 내 부모가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없는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짚단 모이듯 한 식구가 인연 따라서 그릇대로 모였다가 또 사대로 흩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차원대로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부모만 내 부모겠습니까? 만약에 저리로 돌아가서 또 내 부모가 됐다면 어떡하렵니까? 그렇게 수없이 거듭거듭 돌아가면서 거쳐 나왔으니 내 부모 아닌 게 어딨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딨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라! 준다고 해서 남을 주는 게 아니니라. 바로 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없으면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누어 쓰는,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절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말만 공산주의지 행동은 독재요, 사회주의요, 마음을 평등하게 쓰면서 그냥 사는 사람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1년 8월 11일 울산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